

創刊號 2005

高城文化



高城郡文化院

高城文化



高城郡文化院

祝

刊 創

鄉土文化暢達



有泉

咸貴鎬



2005年度 高城郡文化院 寫眞으로 본 活動狀況



고성군 문화원 사물놀이팀 경연참가 기념(정선문화예술관)



제23회 수성문화제 기념 사진전시회 커팅(문화의 집)



문화학교 사물놀이 공연



춤, 소리로의 초대(제23회 수성문화제 기념공연)



수성문화제 수성제 봉행(2005년도)



2005년 수성문화제 간성시가 축하퍼레이드(거진읍 편)



수성문화제 행사시 개최한 전통혼례의 모습



수성문화제 가장행렬시연(죽왕면 편)-벼 탈곡 작업



고성군 문화원 이사진 유적답사(금강산 건봉사 등공대)



한울 사물놀이 공연(고성군문화원 주관)



고성군문화원 합창단 리허설 장면



제7회 고성군 문화원장기 게이트볼 대회(2005. 4. 29)



청소년 인성 및 예절교육 실시(고성군문화원)



서예반 수강생들의 채본 수업 장면



문화학교 수료식에서 함형구 군수 인사 말씀



문화학교 수료식을 맞아 표창하는 황연인 원장

Contents



創刊特別寄稿

지역문화 창조하는 거점공간으로 기능해야!(함형구 고성군수)	19
함께하는 역사를 기다리며!(박효동 고성군 의회 의장)	22
소중한 우리역사 남겨야할 고성문화!(정문헌 국회의원)	25
변화, 혁신과 교육(최호영 고성교육청 교육장)	30
21세기를 향한 고성문화 주역들!(김종식 동우대 겸임교수)	32

名士칼럼

이제는 문화의 시대(신동진 경동대 총장)	35
------------------------	----

論壇

고성군의 지역혁신발전 전략(구승모 경동대학교 관광학부교수)	40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함승시 강원대 교수)	49
접경지역 평화, 생태적 발전방안(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55

郷土史

高城의 城郭과 烽燧遺跡 考察(최선희)	64
우리고장의 전설과 세시풍속(김철수)	81
봉래 양사언과 감호 飛來亭(이창원)	90

郷土歌

죽정리 편곡 경위문(권오진)	92
-----------------	----



Contents

說話

개무덤이(신현필)	94
-----------	----

하 이슈

광개토 대왕릉설에 부쳐(차주문)	98
우리 고장의 恭讓王陵(공양왕능) 설(이선국)	102
미래산업의 주역인 해양심층수(高城郡 提供)	108

寫眞同友會 作品紹介

사진작품(김성호, 이태건, 류경렬, 안의봉)	115
--------------------------	-----

文藝作品(詩편)

길을물다(장은선)	119
도루묵 찌개(김종헌)	120
화진포 찻골 거위(김향숙)	122
화진포. 8(조인화)	124
친정(송옥주)	125

文藝作品(隨筆편)

시가 있는 乾鳳寺(임정숙)	126
花津浦(화진포) 사랑(이응철)	136
고성일기(신준철)	141

Contents



인연(황연근) -----	152
분단의 아픔, 실향의 땅에서 쓴 詩(김춘만) -----	154

文化紀行

중국여행 백두산 탐방기(최선호) -----	161
일본의 공민관 제도와 문화시설을 돌아보며(남병욱) -----	166

學生文藝

아빠를 닮은 효녀가 되고싶어요(한은지) -----	170
너를 초청하고 싶어(임예진) -----	174
우리지역 문화 유적을 찾아서(이리나) -----	176

우리 고장의 名所 由來

花津 八景(윤용수) -----	179
旺谷 傳統마을(高城文化 編輯委員會) -----	184

高城의 鄉土 祝祭

수성문화제 외 9종(高城文化 編輯委員會) -----	187
------------------------------	-----

健康常識

一生의 定期 健康診斷(김종태) -----	197
내 치아는 내가 지킨다!(김국배) -----	200



Contents

觀光 高城 8景 8味

고성의 8景 -----	202
고성의 8味 -----	206

高城郡 文化院 紹介

연혁 -----	209
임원명단 -----	211
문화원 회원 가입 안내 -----	212

발간사(發刊辭)



黃鍊仁
(文化院長)

유행가 가사처럼 歲月은 流水와 같다고들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으면 敎授들의 한해 마무리 四子成語가 上火下澤이었으랴 여기면서 정말 多事多難 했던 한해를 흘려보내면서 새해에는 좀더 보람차고 希望된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高城文化 創刊은 우리고장의 傳統文化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긴 歲月을 더듬어갈 未來를 향한 꿈을 안고 出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高城郡은 8.15 光復 후 38도 선 以北으로 북한 共產治下에 들어갔다고 6.25의 와중에 실지(失地)를 回復한 땅으로 그 많은 歷史 속에 文化遺跡과 遺産이 송두리채 없어진 그야말로 廢墟의 고장에서 이제 收復 50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無에서 有를 일구는 心情으로 하나하나 文化歷史 遺跡을 다듬고 복원하고 保全하며 創造하는 틀을 잡아나가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統一의 1번지로서 金剛山 陸路觀光이 이루어지고 북쪽에 있는 5개 읍면이 收復되어 그야말로 統一된 高城郡을 이루는 것이 많은 失鄉民의 所望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뼈아픈 상처들을 하나 둘 치유하기 위한 方便으로 高城文化를 定期的으로 發刊하여 우리 郡民의 名譽와 自尊心을 회

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高城文化는 郷土文化發展의 틀로서 다양하게 變貌해 갈 것이며 歷史의 記錄으로 깊이 간직되리라 믿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좋은 고성의 郷土文藝지로 발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을 보는 高城文化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좋은 原稿를 기고 해주신 各界의 人士와 出郷人士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지를 發刊 하도록 支援해준 고성군 지자체와 編輯에 애써주신 編輯委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우리 文化院 會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聲援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지역문화 창조하는 거점공간으로 기능해야!



함형구
(고성군수)

많은 미래학자들은 21C를 지식정보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사회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하드웨어적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며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물질문명보다 정신문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속에서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욕구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화하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화, 개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화, 개별화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공급자, 수요자 모두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함양하는 자세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문화적 욕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반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인근 도심지역과 비교할 때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도심지역을 따라잡겠다고 또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다고 무조건 수만 늘려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도 1시·군·구 1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한 문예회관 건립정책이 추진되었던 것도 전 국민이 균등한 조건에서 공연이나 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예회관 건립보다는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프로그램, 운영형태의 차원에서 각각 바람직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기반시설이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 지역안에서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이 서로 연계되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거나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를 맞아 예술과 문화, 또 그를 품을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증진하며 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있어 문화예술정책은 시설 설치보다는 예술경영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경영체계를 탈피하여 고객내지는 주민 지향의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중심의 문화경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여건 조성,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동아리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수용조사 및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평생문화학습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예술 및 사회 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같은 맥락으로 군단위보다 작은 단위인 읍·면지역에서 그리고 각 리에서, 동네에서, 아파트 각 동에서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소단위 생활권의 예술과 문화가 살아날 때 비로소 어떤 주민이든 맘만 먹으면, 아니 맘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술과 문화에

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술과 문화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다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시설 조성 정책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권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소규모 문화복합공간인 ‘문화의 집’ 유형의 문화공간들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같은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이나 기타공공시설들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지역문화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정책적 촉진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문화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하는 시점이다. 동시에 문화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훨씬 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갖고 설립·운영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은 이제 특정 문화인만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창조활동 등 문화생활의 장을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역사를 기대하며!



박효동
(고성군 의회 의장)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의 뿌리를 찾아서 밝히고 그 열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역이나, 국가 등 대소의 차등 없이 자기 지역의 뿌리를 확인하고, 문화를 음미하며, 역사를 정립하는 것 자체가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보물을 찾는 것이며, 후손으로서 당연히 밝혀야 할 책임과 사명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맥(脈)을 찾아 여러 가지 문헌과 지역의 사료를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처럼 우리 주변에 묻혀있는 지역의 보물을 탐구하고 밝히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발굴된 역사와 향토 사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립하고, 새로이 발굴된 부분을 보완하여 되새기는 작업은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실천이라 생각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우리 군의 문화 유적 중 현재까지 그 자태를 뽐내고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없다할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전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점도 있으나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이해 그리고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전통문화를 일구고 가꾸어 왔다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는 상반된 진정한 문화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라 해도

과연이 아닐 것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유물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밝혀진 문화유물이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제고에 커다란 도움과 지원이 될 것이다.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나 문헌이 발간되고 있다. 또한 이런 향토자료가 책으로 발간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자료의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함께 인력이 수반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향토사료가 특정 인물에만 얽혀지고, 장식장의 장서로만 활용되어진다면 이는 노력과 인고 끝에 탄생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사장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최북단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분단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산 현장이다. 분단의 아픔 속에 남과 북 고성 주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지역의 현실은 온갖 풍파를 이겨내는 잡초처럼 어려움과 소외의 굴레를 벗어 앞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가는 어부와 같은 꾀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통일시대를 대비 지역주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후손들에는 통일시대 남, 북 고성의 뜨거운 숨결과 역동하는 지역의 힘찬 맥박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널리 읽힐 수 있고 재미있는 문화와 역사를 망라한 자료지를 기대할 때이다.

이러한 작업이 문화나 역사관련 일부 단체나 주민에게 편중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군민 모두가 내일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우

리만의 향토역사. 문화 자료지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나간 역사는 다가올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화의 거대한 시류(時流)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자료지는 지역의 뿌리를 확인시키고, 선조의 얼과 정신을 후손에 계승시켜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대해 본다.

소중한 우리역사 남겨야할 고성문화



정 문 현
(국회의원)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 중의 하나이다. 옛날 동굴암벽에 그림과 문자를 새기고, 노래를 만들어 구전시킨 이 모든 노력들은 인류가 그 시대의 자신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전해져 신화나 전설, 또는 역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였고 또 이를 전하려고 하였을까? 이는 자신들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교훈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후손의 평안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

역사인식 만큼 중요한 것은 역사기록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해석은 역사인식의 토대가 된다. 역사에 대한 엄정한 해석이 필요한 까닭은 정확한 역사인식이 보다 정확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교훈을 획득하기 위한 것

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歷史家 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인식이나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기록이다. 역사인식은 역사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특정 사실에 대한 역사기록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사인식은 백지(白紙)나 공백(空白)으로 남을 뿐이다. 역사가 상상(想像)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체계적인 기록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건이 실재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한다. 명백한 기록과 증거가 있을 때에만 역사가 역사로서의 진정한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고, 민족의 긍지와 반성의 진실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기록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한국 근대사는 ‘민족사’와 ‘국가사’의 괴리라는 아픔을 겪어왔다. 곧이어 ‘분단의 역사’라는 고난까지도 감내해야만 했다. 이제는 탈냉전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통일의 역사’를 적어 내려가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역사분쟁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내야 하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역사기록을 다시금 소중히 생각해야 할 때다.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힘든 역사

고조선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 동이족 나라인 九夷의 치우천왕,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농(神農)까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사이, 중국은 九夷, 東夷, 高句麗 등을 모두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히 고구려사만을 왜곡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上古史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고, 고구려사 왜곡은 동일한 맥락에서 단 하나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 역사문제에 고조선 이전의 역사까지도 흔들린다면 민족역사의 큰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도 아

무런 토대도 없이 그냥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 즉, 한 순간에 배달민족의 몇 천년 역사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과 발생할 수 있는 만주지역의 영토분쟁 문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사분쟁이 더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역사분쟁은 민족 정체성의 문제이고 또 뿌리의 문제이며, 후손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치느냐’ 하는 자존심까지도 개입된 문제이다. 그만큼 역사문제는 영토분쟁만큼이나 양보나 타협조차도 있을 수 없는 영역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설사 부당한 것일지라도 어느 나라든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 약탈당한 ‘직지심경’ 도 ‘돌려준다’, ‘영구 임대해준다’ 등의 많은 이야기도 들렸지만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같은 A급 전범과 함께 합사(合祀)된 한국인 희생자의 위패를 돌려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도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이처럼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 역사가 지닌 성격이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기록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한 역사기록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임금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이성계는 곧바로 사관(史官)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며 이 일을 기록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관은 무덤하게도 이성계가 그 이야기를 기록

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은 우리 조상들은 절대 입맞대로 선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록에 관한 엄격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고,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정7품~9품 정도로 그 직위는 낮은 편이었지만, 항상 임금 곁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들의 생명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데 있었고, 이를 위해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함부로 수정도 가할 수 없었고, 기록에 관해서는 일종의 면책특권도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이런 사관제도는 직필로 국가적인 사건,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을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거울로 삼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는 역사기록과 관련한 제도에서부터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제 역사기록은 국사(國史)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고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도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정보화와 함께 기록을 남기는 작업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용이해졌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역사기록을 남기는 것은 후손에게 훌륭한 삶의 가르침이 될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고성 문화와 역사

찬란한 실체의 역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지켜가기도 어렵기만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역사를 찾고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증해야 할 유물, 유적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기록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역사분쟁의 격랑(激浪)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기록을 찾아내고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는 것이 필

요하다.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현재 우리와 함께 하는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록이 후손들에게는 우리 역사와 발자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고향은 조상들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호연지를 기르던 교육과 수련의 무대였다. 신라 화랑들도 고향에서 심신수련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런데 요즘 고향에서 청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더욱이 고성인 문화와 역사, 심지어 자신의 뿌리조차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성의 문화전통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고성군문화원에서 앞으로 매년 <고성문화>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갑고, 너무도 축하해야 할 일이다. 이 책의 발간은 우리 고향의 문화·역사를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만큼 한 고장의 역사는 고향 주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뜻깊은 의미를 지닌 자산(資産)임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加減)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책임이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문화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 그리고 반성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 전달 되도록 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고성문화>의 그 진가(眞價)가 후일 드러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변화, 혁신과 교육



최 호 영
(고성 교육청 교육장)

오늘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 현실에 안주하거나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앞서가는 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뒤처지게 된다.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필수 과정인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사회가 물러가는 산업사회로부터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로 능동적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할 과제가 많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학교 교육은 공교육의 신뢰 상실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에도 소홀하고, 무엇보다 미래 사회를 지탱해야할 가장 중요한 창의성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수없이 받고 있다. 게다가 학벌위주의 사회, 학력의 세습화, 직업 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의 부실 등도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주체의 하나인 교육행정 체제도 관료적, 수직적 통제에 익숙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의 최 일선인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의 자율적 혁신 능력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변화와 혁신은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그 변화와 혁신의 현장은 바로 학교이다.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과 직접 맞닿은 곳에서부터의 변화와 혁신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 기관이나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 하향적 과제 선정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혁신과 변화가 당위성이 있다면 우선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하고, 그를 위한 실천방법도 좋다면,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구성원들이 동참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은 없다고 볼 때, 실천 방법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혁신에 대한 목소리는 높는데, 막상 혁신의 주체가 되는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걸돌고 만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자율적 참여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학교 관리자들의 몫이다. 변화와 혁신은 단위 학교가 주체가 되어 변해야만 성공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고성문화 주역들!



김 종 식
(동우대검임교수)

문화생활의 선도적 기수가 되는 고성문화집을 발간함에 원고 의뢰를 받고 기쁨과 찬사, 경의를 드립니다. 본 문화집을 통하여 고성문화의 嚮導(향도)가 우리나라 새 주역의 태양으로 계속 발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수성문화제와 고성인의 생의철학 실존철학이 겸비한 새로운 비전은 새 주역들을 낳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무엇보다도 새 지도자들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즉 안일하면 즉사하고, 변신하면 즉생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安逸卽死而變身卽生).

고성문화집의 상징은 우리 고성인의 얼굴이며 모습으로 비쳐지는 자화상이 된다고 보았을 때 주요한 사명으로 새롭고 창조적 지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성문화의 주역을 통하여 우리는 韓民族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檀君子孫萬枝同根임과 동시에 홍익인간 정신의 後裔임을 확신하고, 나는 주역으로서 우리민족 그리고 국가 나아가 인류철학을 자손만대에 계승할 수 있는 자질을 구유하게 함을 확신한다. (弘益四海로!)

둘째로는 불의를 憎惡制壓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불의를 증오와 힘으로 제압하는 민족이다. 민족정기에 서린 민족으로서 기쁨을

만각하는 자유민족, 분노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마음의 소유자, 슬픔에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인간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민족, 미움을 화합으로 바꾸는 민족, 욕심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이다. 즉 民族精氣를 타고난 우리들이다. (은근과 끈기 뜻심이 있는 민족) 또한 남에게 교만 업신여김, 인색, 찌찌함, 아낌, 여색에 미혹함, 성냄, 질시, 탐욕, 태만 등을 경계하며 그 罪源의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방법을 자손만대에 전승시켜야 할 것이다. (七縱八擒期會捕捉)

즉 악의 뿌리를 拔本하는 방법은 욕심, 과욕, 힘을 남발,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고 다시 생각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생활에서 정직하고, 매사에 굳세고 부드럽고, 유연한 생활습관을 쌓아 그 말과 행동을 굳게 믿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눔으로서 더불어 삶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 길은 仁義禮智信勇嚴의 길로 가는 길ियो, 인격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길이다. 환언하면 溫和 良順 恭遜 儉素 謙讓 등 오덕을 쌓음으로써 불의가 사라지고 제압하며 정의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鄉之仁敬尋心)

셋째로는 새 한민족의 고성주역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고성주역들의 교육필수는 가르치고 받음이다. 앎과 상식, 곧 지식 있어야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있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무지가 사라지고, 신성한 일을 귀중히 다룰 수 있고, 의로움이 있어야 아름다운 자기 완성이 되며, 마음에 진실이 중심이 되어야 참이 있다. 그리고 화합하여야 더불어 살 수 있다. 따라서 고성인은 白衣民族之六元德을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의 表象ियो 사랑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장자의 오천언에서)

孟母三遷之教(八反首八首를 겸하여 반성한다.)

그리고 Pestalozzi의 사랑과 신앙(신념), 다른 한편으로는 內外的勞作尊重, 그것이 세계교육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는 동의하며, J.JRousseu의

인간다운 인간교육을, 실존주의자로서 덕육과 체육을 중시하여 교육계의 획기적 견해를 나는 존중한다. 우리 한민족의 현대 교육은 평생교육이다. 그러므로 고성인의 주역들은 이 중요성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넷째로는 韓民族의 底力은 한강의 기적에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만주벌로 이어져야겠다. 보라! 漢江原流는 江原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발달되지 않았는가? 이제 고성문화집은 한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횃불이 되고 나아가 귀감이 되어야겠다. 삼천리금수강산 중심이 바로 강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강산, 점봉산, 대성산,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산수 등이 한 줄기로 한데 어우러져 있다. 우리의 보고! 신이 주시는 화수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한족의 생명선(永遠無窮弘益飛鳳)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리라.

다섯째로는 새 주역들의 약속과 실천은 주요한 과제이다.

주역의 役割은 모든 약속의 실천이다. 법의 근원은 약속이다. 약속은 법을 만들고 실천은 질서를 확립해 준 것이라 본다. 본 문화집이 밝고 명랑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떨어진 약속의 땅. 보전의 땅. 황금의 땅, 희망의 땅으로 가꾸어 떨어져 간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제 내 고장 고성문화를 빛낼 수 있는 3만여 고성주민이 단결하여 지혜를 결집, 새로운 문화 창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



신 동 진
(경동대 총장)

공직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해외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 중 상해를 출발하여 소주, 항주, 서안을 거쳐 북경까지 가는 중국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과 관련된 고사나 책들을 많이 보아온 터라 지나치는 유적지 하나하나마다 신비로움과 이 곳에서 펼쳐졌을 옛일들이 손에 잡힐 듯하여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다.

소주와 항주에서 보았던 상상을 초월한 개인 정원의 규모나 다양함을 보면서 서울에서 보아왔던 궁궐들의 초라함과 단출함이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서안에서 본 병마용, 북경에서 보았던 자금성의 웅대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리고 만리장성에 이르러서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축물의 하나라고 안내원의 말이 무척 거만스럽게 보였다.

당시 나는 이러한 중국의 오래되고 거대한 걸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상당한 번민과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화려하고 사람을 위압하는 건축물과 소박하고 때론 보잘 것 없게 보이는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나는 지금까지 가져온 내 사고의 틀 안에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든지 아니면 보다 차원 높은 틀 안에서 이 둘을 다 수용할 어떤 논리를 발견하든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

기도 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 데 10만 명의 백성들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를 당하여 죽었다고 한다. 심지어 시체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장성을 쌓을 때 함께 묻어 버리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정작 진시황은 만리장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말이다. 나는 만리장성 앞에서 죽은 자들의 원혼이 떠도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란 무엇인가? 성을 쌓기 위해 처참하게 쓰러진 백성들의 암울한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만리장성을 불가사의의 성벽으로 칭송하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닉슨은 달나라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 속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건축물 중의 하나인 만리장성을 보고 중국과의 수교를 생각했다고 한다. 역사는 왜 시대에 따라 동일한 가치나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가.

조선 시대 임금들은 스스로 검소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집도 크거나 화려하게 짓지 않으려 했고 호사스러운 잔치도 엄히 경계하여 백성들이 내야할 세금을 덜어 주고자 했다. 영조는 자신이 입은 옷이 닳아 해지면 그것을 여러 번 손질하여 입기도 하였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에서 중국과 한국은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네 왕들은 너무나 순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다.

그러나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치가 날로 심해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을 알지 못한다. 다른 나라는 사치로 인해 망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검소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물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만드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백성이 날로 궁핍해진다. 재화는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 퍼내면 가득 차고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좀바르트도 ‘사치와 사랑이야말로 자본주의 생성·발

의 원동력'이라고 말하였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자연의 반대어일 수도 있다.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룩된 유무형의 모든 산물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이다.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은 문화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보다 차원 높고 다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제가는 바로 이러한 면을 강조했다고 본다. 검소와 절약만을 강조하면 고급 장롱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 문화나 산업이 번창한 리가 없다.

나는 여기서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문화이고 그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배경과 요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우열을 수치적으로 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화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르네상스기에 문화 예술이 꽃 피었던 지역은 상업이나 국제간 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춤이 오랫동안 공연되었던 지역은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던 곳이다. 왕성한 문화 예술 활동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또 다른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이 반대의 설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경제가 문화를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21세기는 경제보다 문화가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 속에는 무궁무진한 부가 숨어 있으며 미래의 주역은 문화라는 부의 광맥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과 그런 인적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나

라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사실, ‘이태리 사람들은 조상들 덕에 산다’는 말도 있다.

과거에 선조들이 건설했던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나 그 유적이 현재의 후손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아시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다. 이 한류 열풍은 어떤 하나의 실체도 아니면서 영화로, 음악으로, 전자산업으로, 게임산업으로, 스포츠 산업 등으로 나타나면서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고 있다. 문화를 더욱 풍성히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리는 지역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지역 문화의 활성화는 우선, 지역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다. 또한, 지역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외지인들을 단시일 내에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요즘의 관광은 ‘즐거고 참여하는 관광’이다. 예전처럼 주마간산 격으로 ‘보기만 하는 관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별 소득도 안겨 주지 못한다. 이제 문화라는 코드는 지역 개발의 들러리가 아니고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고성군도 결코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발전은 우선 유지·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화를 굳이 시대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나 오래 전부터 토착화되고 공감을 얻어 왔거나 역사적인 필요에 의해 복원 가능한 것들에 대한 발굴 내지는 유지·보수가 먼저 필요하다. 나는 이곳에 와서 고성이 옛 동예지역이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예 지역의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과하마(果下馬)’는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다닐 정도로 작은 말을 가리키는데 현재 국내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과하마를 타고 짜리나무로 만든 ‘단궁’을 쏘아 보는 ‘동예체험마을’을 복원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 문화는 지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문화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가 가져오는 경제적 유발 요인이 얼마나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서글프다. 관광 수입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민이 즐기고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 축제에 참여했을 때 나를 가장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축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사판을 벌인 사람들이나 외지인들만 보일 경우이다.

사실,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주체가 없는 문화에 생기가 넘치고 가치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외지인들은 고성 지역의 축제가 고성 사람들에게 의해 누려지고 사랑 받는 그 모습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이지 꺾데기인 형상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관이나 전문가들보다 지역민들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그들의 삶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전통 문화는 문화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이들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용되고 변형될 때이다. 기존의 문화 행사나 축제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계속 찾아야 한다.

고성군의 지역혁신 발전전략

구 승 모

(경동대학교 관광학부교수)

1.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여건의 변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서비스산업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지방협치 (governance)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자율적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관리방향은 단계적으로 계획적 관리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특화 발전과 낙후지역 육성사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커짐과 동시에 지역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 대비 평균 2%에 머무르고 있는 고성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경제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 침

체는 특성화 되지 못한 지역산업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성군의 산업생산구조와 산업별 경쟁 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2차 산업은 여러 가지 부족한 자원과 취약한 인프라구조로 인해 지역특화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별 점유율과 생산규모 면에서도 관광관련산업과 건설업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성군의 산업별 종사자수도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관광관련 산업과 건설업으로 연계되는 특화산업 개발·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목적 산업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를 포함한 도내의 연구역량과 고성 청정해역의 천혜자원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연구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산·학·연간 연계체계 구축이 가시화되고 고성군의 사업추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심층수 산업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바 동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진척된 남북관계의 상황은 남북고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지역에 주어진 더할 나위 없는 발전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육로 관광의 활성화, 목전에 두고 있는 남북교류타운의 완공, 미시령 터널의 개통, 신활력사업 추진, 동해 북부선의 착공 등은 고성군이 여태까지 안고 왔던 지역개발이라는 엉켜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고성군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외국자본의 유치에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로 남북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남북교역으로 이어가기 위해 고성지역을 배후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코스의 다양화로 설악-금강권 연

계개발과 설악권 체류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성군은 천혜의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축 및 생태공원화, 백두대간의 종합관리 및 활용, 산림자원의 육성과 자연친화적 활용 등 자연환경의 보존인식 확산·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토지개발보다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요 창출이 요구됨으로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특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 관광산업, 농산어촌 자연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내외 산학연관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산업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고성군의 비전과 평화생태 거점도시

관광산업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성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관광객 수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방문시기가 7월과 8월 성수기에 편중되어 있고 외국인 방문객 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5都2村」, 「2days-4seasons」전략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정비하고 관광연계상품개발을 하여야 한다. 고성군이 지니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우수지역, 화진포, 송지호 등의 석호, 향로봉과 건봉사 일대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 등과 같은 자연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은 상대적으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성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은 청정지역으로 생태 환경적 차원에서 생태관광의 중심지이며, 평화생태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물류거점 지역으로의 발전가능성과 남북연계 관광루트의 개발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 이외에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신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고성군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대도시와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고성군이 아직 신활력지역으로 남아있지만, 환동해권의 물류중심으로 설악·금강 국제관광권에 속하여 국제교류 관광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환경적 여건에 부응하고자 고성군은 21세기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및 환동해권 거점도시”를 위한 복합관광·신산업 자유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고성비전21,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여 고성군은 평화생태 기능을 담당하면서 남북교류 중심지역과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기본 전략 및 과제설정

고성군을 남북교류협력,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로, 금강-설악을 연계한 세계적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다

르지 않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평화적인 활용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성군이 평화 생태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기본전략과 과제는 다음 < 표 1 >과 같다.

<표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전략 및 과제

기본 전략	8대 과제
• 남북 관광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설악-금강 국제관광권의 중심도시 · 남북교류 거점도시형성 • 평화를 기저로 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증대 • 자연산업의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 그린 · 블루 투어리즘을 통한 체험관광지로 발돋움 • 친환경 · 생태건축 · 생태산업 조성 • 생태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수직과 수평의 평화 · 생태 벨트 구축	• 평화 · 생명 · 통일 · 문화의 길 • 남북교류타운 조성 • 평화마을 조성 • 금강산 연계 평화특구 • 독일사례 연구를 통한 생태 · 경제프로그램 •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 • 그린 · 블루 투어리즘 개발 • 생명 · 건강중심 산업 육성

자료: 고성군, 「평화 · 생태 학술포럼」, 2005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의 원활한 수행은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전과 지역문화를 고려한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성공은 자연자원의 유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 등

과 같은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연중 안정된 저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균, 병원균 등의 유기물은 거의 없지만 해양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나 미네랄 등의 무기물은 풍부한 해수자원이다. 해양심층수는 저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영양성, 미네랄성, 숙성성 등의 특징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 중에서 생성되어 해수로서 재생 및 순환되는 막대한 청정자원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양산업의 신세대를 열어줄 동해안 심층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청과 협력하여 동해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이라는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고성군 해역은 최북단에 위치한 해역으로 각종 냉수성 수산물이 풍부하여 수산물 가공 산업을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오염도가 낮아 관광형 바다목장 개발 및 해양 레포츠의 개발에 적합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바다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과 수산업 및 관광업 연계를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TP)와 수산업 및 관광업 등으로 연계되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산업 집적지는 국내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성군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의 적용가능 분야와 산업 활용방

안은 < 표 2 >와 같다.

<표2> 해양심층수의 적용기능 분야 및 산업 활용방안

구 분		현 황	적용(활용)방안
수산 분야	증식	자원급감, 해양오염 위협	한해성 자원조성/관리(도루묵, 대구, 털게 등)
	양식	안정적 공급지장, 식량오염	한해성 수산양식/축양(연어, 노랑가자미, 김 등)
산업 분야	에너지	수입의존, 신재생에너지 탐색	냉각, 냉방, 냉장, 제빙
	물	물부족, 오염심각, 담수화기술	생수, 기능성 음료수
	소금	오염심각, 공업용(180만톤 수입)	청정소금, 기능성 소금
	식품	원재료 오염, 건강안전 위협	김치류, 장류, 주류, 두부, 염장류, 과자류
	약품	난치병 증가 및 신약개발 필요	당뇨약, 투석액, 신약
	의료	신경성, 알레르기성 질병 다발	피부염치료, 해양요법
	미용	공해 심각, 민감성 피부 증대	화장품, 보습제, 입욕제
	자원	수입의존, 자원무기화 위협	희소금속, 에너지원
기타 분야	농업	농약의 과다사용, 농산물 오염	냉온성 식물 수경재배, 토양내 응결 급수 등
	관광	수요증대, 기반취약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기반의 관광화
	휴양		생태형 청정촌 조성
	스포츠		해양공간의 스포츠 활용
	교육		전시체험형 해양교육

고성군의 산업적 구조를 감안하면 해양심층수는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해양자원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고성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해양심층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비전21과 고성군정 주요업무 계획지침을 수립하였고 신활력사업의 자원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창출하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시스템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유도,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민자 및 외자 유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고성지역혁신협의회 마을 혁신협의회 등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해양심층수 관련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지방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토대로 한 유치전략으로 민간 및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이 고성군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청정형 해양 수산업의 창조로 낙후된 강원 수산업의 활성화,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친수성 연안역 조성에 의한 해양 관광산업 기반제공, 관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를 통한 설악권 관광의 계절적 편중현상 해소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4.지역혁신 발전전략을 주도하는 주체 확보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평화생태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와 환동해권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고성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강점을 보여주었던 관광산업을 1차·2차 산업과 연계한 평화생태 지향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과 취약한 제조업을 보완하기 위한 지식기반형 해양심층수 활용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발전전략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주식회사 형식으로 상장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정분의 주식을 배당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감사제 및 경영성과 공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전문가, 금융기관, 관공서, 언론기관 등 여러 주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혁신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지역내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관련산업의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혁신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주체가 자발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관련 학술활동 및 간담회 등 행사 등을 주최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혁신리더들이 산학연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체계를 재구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

함승시
(강원대 교수)

I. 서론

20세기는 생명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생명과학이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적 이용이 극치를 이루었던 한 세기라 하겠다. 생명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우리 인류를 지난 한 세기 동안 질병과 기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20세기의 생명과학의 발전은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생명공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궁극적으로 인류를 괴롭혀 왔던 감염성 질병을 정복하고 인간 수명을 연장하였으며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을 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근대 산업문명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지속적 번영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경의 오염과 식량자원의 부족, 고령화 사회의 도래,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 우리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 인류의 미래 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식량자원과 환경보전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위한 생로병사에 대한 과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될 것이며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바이오 기술은 생물체의 유전자 염기배열을 연구하는 지놈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지놈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바이오기술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이 가속화 되면서 의학, 농업, 화학, 식품 등 기존의 바이오산업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화장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은 제2의 산업혁명이 될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 산업발전 분야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대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앞 다투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II. 본론

1. 바이오 산업의 정의와 분류

바이오(Bio)란 그리스어의 Bios에서 유래한 말로 생명, 생물을 의미한다. 바이오는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에 이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Bio-로 시작되는 많은 산업 분야들은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의 기능과 그 특질을 이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생명)과 테크놀러지(기술)의 합성어로서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식량, 의료, 전쟁 등 인류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IT산업, 신소재 산업 등과 상승작용을 주고받으며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생물산업의 범위를 생물 화학, 생물의약,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 식품,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생물학적 검정 및 측정시스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바이오산업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

바이오산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산업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혁명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기술이 가진 폭발력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기술 진보 등으로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현실성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기술은 전자·컴퓨터 기술과 함께 21 세기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기술 분야이다. 바이오 기술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가져온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다. 유전자 분석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고 비용도 급감하고 있어 그 결과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모든 산업이 바이오 기술과 연관되어 있고 산업혁신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바이오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특히 벤처가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어 역동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

3. 바이오산업의 특징

1) IT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 전략산업이다

바이오테크놀러지가 과거 ‘학문적·기술적’ 영역에서 ‘산업’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어 제4대 기술혁명이 바이오혁명시대라고 할 수 있다.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이다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인류의 보건, 식량,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분야로서 근본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테크놀러지는 학술적으로 생물공학 또는 생명공학으로 불리며 DNA재조합 기술을 응용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시도하는 기술 분야이다.

바이오테크놀러지의 연구 분야는 기초적 학문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유전자 공학의 공업적 응용에 국한 되지 않고 발효공학, 하이브리도마공학, 농업 공학 등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러지가 산업과 접목되는 분야는 의약, 식품, 농업, 환경, 해양, 에너지 등이다.

바이오테크놀러지의 결과물들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고 부가가치 비중도 매우 높다. 대표적인 생물산업 제품인 항암제 인터페론은 g당 5,000 달러로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 이른다. 또한 대형 생물의약품 빈혈치료제 EPO는 1g당 무려 67만 달러이며, 항암보조제 G-CSF는 1g당 54만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서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질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매우 크다.

3) 첨단기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 된다

IT와 BT는 분석기기 및 컴퓨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로 융합되어 생물 정보학,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칩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가고 있다. 21세기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기술을 바탕으로 IT와 BT가 접목되어 더욱 빠른 속도로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전자 구조 연구와 유전자의 기능을 풀어내는 기능 유전체학과 개인 간 유전자 정보 비교를 통해 생체내의 기능 차이를 규명하는 비교 유전체학에 대한 연구 등 그 응용기술은 매우 광범위하다.

4) 신규 진입이 활발한 미래 유망 산업이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공학 기술 분야에만 특화하여 사업을 일으킨 업체의 수는 1,300여 개가 넘고 전통적 화학 기업인 듀폰 등의 기업들도 생명공학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5)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연구 중심의 벤처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 산업이다.

바이오텍 기업의 30%가 직원수가 50명 이하이며, 60%가 135명 이하이다. 또한 가장 연구 집약적인 산업의 하나로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는 110억 달러에 이른다.

6)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다

과거의 산업들은 에너지 다소비형의 공해산업이었으나 바이오산업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또한 친환경적 에너지, 소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산업이다.

7) 미래의 생명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20세기 말의 정보화에 따는 사회 변혁에 이어 21세기는 바이오테크놀러지에 기반을 두는 생명 사회라고 수 있다. 인간 지놈프로젝트 완성에 따른

유전체 정보가 획득됨에 따라 바이오테크놀러지는 발전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는 미래 산업사회의 필수 산업이다.

Ⅲ. 결론

현재 세계는 유전자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바이오산업에 쏟는 정성이 지대하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이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 바이오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을 겸비한 선진국들은 발달한 컴퓨터 산업과 IT기술의 접목으로 벌써 세계 바이오시장을 선 독점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대비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진입은 서둘렀지만 투자액으로 보면 경쟁상대인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고갈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 인류에게 바이오산업은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으로써 산·학·연이 합동해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또 특히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평화·생명·통일·문화의 길연구개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학계가 나서 초기투자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평화 · 생태적 발전방안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I. 접경지역 평화 · 생태적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1. 국가균형발전에 부합

-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을 실현하는데 있음.
 - 분권과 분산에 입각한 국토발전모델의 정립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번영하는 상생전략 (win-win strategy)을 추구함.
- 각 지역은 지역고유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노력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과 지역혁신능력을 제고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함.

2. 국토중앙지대로서의 접경지역의 위상

-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써 미래의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공간임.
 - 통일과 통합의 전진기지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이용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아옴에 따라 많은 토지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 미래에 귀중한 토지공급 지역이 될 것임.
- DMZ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소망에 따라 세계 평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평화벨트”(peace belt)로 조성될 수 있음.
 - 평화벨트는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 정책적 공간을 말함.
- DMZ와 접경지역 주변의 산과 하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생태계는 한반도 주민들이 대대로 활용해야 할 공유자산임.
- 풍부한 역사적인 유적과 DMZ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남북분단의 흔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접경지역의 활용은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통일 이후 국토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귀중한 생태계의 보존,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남북 및 국제사회의 이해에 부합

- 남북한 쌍방의 포괄적인 이해가 얹히고 대립하고 있는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이 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국가이익

에 부합되어야 함.

- ① 정치적 측면 : 체제나 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체제나 당국의 정치력 · 외교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 · 고양할 수 있어야 함.
- ② 군사적 측면 :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자국에 불리하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지 말아야 함.
- ③ 경제적 측면 :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이득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
- ④ 생태적 측면 : 지난 반세기간 조성된 환경보전과 생태계를 오염 · 파괴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호 ·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⑤ 문화적 측면 : 산재한 문화유적 · 유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존 ·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DMZ는 좁게는 미국과 중국, 넓게는 UN이란 국제사회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은 한반도 주변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시 정치 · 군사 · 경제 · 환경 · 문화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에 부합하여야 함.

—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함께 아우르는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 · 생태적 활용방안이 제시될 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것임.

II. 고성군의 평화 · 생태적 발전 기본계획

1. 평화 · 생태적 발전 기본계획

•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배후로 한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와 화합의 장소 그리고 교류협력의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재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이 부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성군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 · 생태”적 발전계획은 시의 적절하고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야심찬 구상이라 평가함.

• 고성군은 평화 · 생태적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을 남북교류협력,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로, 금강-설악을 연계한 세계적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데 두고, 다음 세 가지를 세부지침으로 상정하고 있음.

- 남북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평화적인 활용여건 조성
- 남북한 자원의 공동이용 및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 그리고 그 구체적, 단계적 실천방안을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하여 <표 1>,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평화”와 “생태”를 고성군의 비전을 담은 상징어로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추진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평화와 관련하여 평화 · 생명 · 통일 · 문화의 길, 남북교류타운, 평화 마을 및 금강산 연계 남북평화특구 등의 조성
- 생태보호와 관련하여 독일사례 연구를 통한 생태 · 경제프로그램 개발,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린 · 블루 투어리즘 개발, 생명 · 건강중심 산업 육성회의 이해관계를 좀 더 고려해야 함.
- 우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남북한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설득력 있게 고려하고 있는가,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가란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발전계획에 북한이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때,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할 것임.

• 둘째, 현재 다른 접경지역이 “평화”와 “생태”와 관련하여 유사한 발전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과 중요한 차별성을 지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파주시의 “평화시” 구상
- 구 철원 · 김화권의 “평화시” 구상
- 서해연안의 “해양평화공원” 구상

• 셋째, “평화”와 “생태”와 연관하여 고려 가능한 모든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하되 국가적인 지원, 나아가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중적이고 선택적이며 차별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평화와 생태관련 사업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생태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 그 외 개별적인 평화관련 사업 및 생태관련 사업을 병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고성군 평화 · 생태적 발전의 보완 방안

1. 한반도 동해연안 교통의 중심축 지향

• 남북한의 접점지역, 천혜의 자연환경 등 고성군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한계는 접근성이 불량임.

• 남북한간 동해선 철도 · 도로의 연결이 추진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시령터널의 개통, 동해고속도로의 완성 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속초 · 고성군을 한반도 동해연안 교통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킴.

• 철도, 고속(도로), 항로, 공로 등 포괄적인 교통망의 중심지로서 성장시킨다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평화 · 생태적 발전계획을 수립함.

- 서해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준하는 수준의 교통중심지로 도약시킴.

2.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상생 전략

• 고성군 발전계획의 입안부터 북한측 고성군, 나아가 그 인접지역을 함께 발전 대상권역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공동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평

화· 생태적 발전방안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함.

- 남북이 지역 경제 및 생태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화· 제도화함.

- 동시에 주변국과 국제사회도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함은 물론, 유효수요를 적극 창출함.

- 이럴 때 고성군의 평화· 생태적 발전전략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면서 지속성과 생명력을 가질 것임.

3.국제화 지향

- 고성군이 가지는 남북 간의 접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이란 장점을 활용하면서, 접근성의 불량이란 한계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국제교통로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며,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평화· 생태적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국제화에 둠.

- 국제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추진함.

- <첨부> 참조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현재 고성군이 입안한 평화· 생태 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할 것임.

- 유엔기구로서 “평화”를, 환경기구로서 “생태”를, 국제기구로서 “경제”적 효과를 동반하여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이해에 부합할 수 있고,

- 유엔기구의 유치로 이에 대한 육·해·공의 포괄적인 교통망이 확보되어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며,
- 유엔기구를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자치단체로서 고성군이 가지는 투자재원의 한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변영에 기여할 수 있음.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와 더불어 평화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적 연구소 유치, 평화와 환경보호 관련 국제적 활동 등이 더욱 탄력을 받고 실천될 것이며, 국내 관련 기관·단체들과 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임.

- 평화·생태 관련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 평화·생태 관련 최첨단 정보·자료센터의 유치,
- 평화·생태 관련 국제적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 더불어 평화와 환경보호 관련 국제적 교육의 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 유엔환경기구란 국제기구의 권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동대학교를 국제적 대학교로 탈바꿈하여 평화와 환경보호 관련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시킴.
- 평화와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고성군에서 남북한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통일·통합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으로 활용함.
- 이상을 통해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과 세계적인 생태보고 지역에서 평화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전 세계인을 위한 교육, 토론, 체험, 문화의 현장으로 발전될 수 있음.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로 인해 국제적 관광의 명소로 부상할 것임.
- 환동해권을 겨냥한 평화 · 생태관광 크루즈여행을 실시함.

4. 고려사항

- 고성군의 평화 · 생태적 발전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적극적 참여가 요청됨.
- 지역발전계획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 · 유도키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국제 NGOs 포함)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지역주민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한 상호 이해관계 형성,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유도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 “3중적 접근”(three track approach)이 요청됨.
- 고성군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간 신뢰구축이 요청됨.

高城의 城郭과 烽燧遺跡 考察



최 선 호
(문화원 사료조사 전문위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異 民族과 수많은 戰爭을 겪어오면서도 끈끈한 民族性을 維持하고 民族文化를 繼承 發展시켜왔다.

우리고장 高城은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城郭과 烽燧의 흔적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켜온 先祖들의 智慧가 담긴 소중한 遺産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國防遺蹟(關防遺蹟)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關防遺蹟은 城郭이나 봉수(烽燧), 진(鎭), 보(堡), 돈대(墩臺), 포대(砲臺), 같은 각종 군사시설물 유적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DMZ(非武裝地帶:Demilitarized zone) 일대의 關防遺蹟은 陸軍博物館에서 1994년 파주군을 시작으로 연천군, 철원군, 포천군, 화천군과 김포시, 강화군, 2002년 양구군과 인제군을 거쳐 2003년 고성군을 마지막으로 조사되었다.

「戰爭은 백년동안 없을 수 있지만 軍隊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國家를 守護하고 國土를 防禦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努力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 民族은 나라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城을 築造하여 外敵을 방어 하였으며 烽燧를 운용하여 이민족의 動態를晝夜로 警戒하고 把握해 왔다.

東海岸 최북단인 우리 고성군 지역의 國防遺蹟으로는 7개의 城郭과 5개의 烽燧臺가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軍事戰略의 基礎資料가 될뿐만 아니라 先祖들의 智慧와 護國精神을 敎育하는 資料로도 活用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모두 國防文化의 理解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I. 概要

1. 목적과 필요성

고성군은 강원도의 동부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이다. 해방 후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이를 극복하고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은 휴전선 일대의 관방유적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고성군이 문화사업 창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학계의 관방연구 체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다.

2. 대상

城址는 금구도성, 고성산성, 간성읍성, 금수리 산성, 죽도성, 백촌리 성지, 봉포리 토성이었다. 烽燧址는 마차진리 봉수, 정양산 봉수, 죽도 봉수,

삼포리 봉수, 봉포리 봉수가 있다.

II . 高城郡의 沿革과 環境

1. 연혁

현재의 고성군은 삼국시대 이래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였다. 간성과 고성은 당초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이 시기의 간성은 遼城郡 혹은 가라홀(加羅忽)이라 하였으며, 고성은 달홀(達忽)이라 하였다. 진흥왕 29년(568) 달홀주(達忽州)로 편제하고 軍主를 배치하였으며 다시 경덕왕 때에 달홀을 고성군으로 읍호를 개칭, 편제하였다.

고려의 행정편제의 개편에 따라 간성군은 2개의 속현(屬縣)을 임내로 확보하고 있었다. 열산현(烈山縣)과 익영현(翼嶺縣)이 그것이다. 고성군 역시 2개의 속현을 임내로 확보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환가현(豢假縣)과 운암현(雲巖縣)이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 다시 분리되어 간성군과 高城縣으로 편제되었다.

조선시대 세종조에는 고성현이 郡으로 읍호가 승격되었다. 물론 고성과 간성이 각각 확보하였던 속현도 여전히 임내로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양군의 속현은 조선초기까지 존속되었다. 고종 32년(1895)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八道制가 폐지되고 23府制로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강원도는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할되었다. 이때 고성군과 간성군은 강릉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府制는 이듬해 13道制로 개편되었으며, 이때 간성군과 고성군은 다시 강원도의 관할로 편제됨으로서 府制 이전의 지방관제 형태로 환원되었다. 1914년에 고성군을 간성군에 합병하였고, 1919년에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으로 개칭하였다. 한국전쟁 후 2개읍(고성읍, 장전읍)

3개면 (외금강면, 서면, 수동면) 42개리가 수복되지 못해 군세가 크게 약해졌다. 1963년 1월 1일 양양군에 넘어갔던 죽왕면과 토성면이 다시 고성군에 편입되어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 등 5개면이 되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거진면이 巨津邑으로 1979년 5월 1일 간성면이 杆城邑으로 각각 승격되어 5개 읍면이 되었다.

고성군의 전체 면적은 624.81km²이다. 그 중에서 경지 면적은 76.56km², 임야는 78%인 487.21km², 기타가 61.04km²이다. 2003년 현재 고성군은 2개면(거진읍, 간성읍) 3개면(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으로서, 법정리는 모두 87개리이며 행정리는 127개 마을이다. 인구는 2004년 현재 33,813명이다.

2. 자연환경

고성군은 강원도 동해안의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북으로는 名山 금강산을 사이에 두고 통천군과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휴전선과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香爐峰을 경계로 인제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속초시 장사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위도상으로 보면 동경 128° 26' ~128° 35' 까지이며, 북위 38° 36' 51"인 현내면 송도진리에서 북위 38° 11' 30"인 토성면 용촌리까지이다.

고성 지방의 지세는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해안 산맥이 곳곳에 뻗고 있어서 암석해안이 많으며 그 사이에 모래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태백산맥 줄기에서 고성군에 접하고 있는 산은 金剛山(1,638m), 陳富嶺(529m), 香爐峰(1,293m), 古城山(267m) 등이 있다.

특히 금강산은 행정구역상으로 고성군과 금강군 그리고 통천군의 일부에 걸쳐있다. 금강산의 전체규모는 남북길이가 60km이며 동서로 40km에 530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금강산은 주봉인 비로봉(해발 1,638m)을

정점으로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이루며 한반도 중동부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광대한 경승지역이다. 내금강은 태백산맥 능선 서쪽에 위치하며 현재 북한 행정구역으로는 금강군에 속하고, 그 규모는 동서 4km, 남북 12km에 이른다. 외금강은 동쪽에 위치해 고성군에 속하고, 그 규모는 동서 8km, 남북 20km에 달한다. 해금강은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 15km거리에 위치한다.

군내의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간성읍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거진읍과 현내면이 위치하고 있고 현내면 북쪽 끝에 휴전선이 가로 놓여 접해 있다. 간성읍의 북서편으로는 수동면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죽왕면과 토성면이 속초시 장사동과 접하고 있다. 고성군을 통과하는 동해 해안선은 매우 단조롭고 직선적이어서 천혜의 향만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안사구에는 송림이 울창하고 용기해안의 특징인 사호가 발달되어 화진포를 비롯하여 송지호 등이 자리잡고 있어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백두대간의 척추에서 발원하는 명파천, 남강, 자산천, 초계천, 남천, 북천, 오호천, 청간천, 용촌천 등이 있어 하천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해안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짜임새 있는 농촌과 어촌의 취락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성은 대체로 해양성 기후에 속하고 있어 연평균 기온 $11^{\circ} 9'$ 으로 寒暑의 차가 적어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태백산맥에 의한 靄(fouhn)현상으로 연간 평균 풍속은 3.2m/sec로 인천 지방을 제외하면 중부지방에서 가장 바람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강우량은 연중 약 1,200mm내외이지만 늦은 가을에 출현하는 오호쯔크 海氣圈의 성쇠는 직접적으로 교통과 농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봄이 짧고 가을이 길며,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점이 고성 지방을 비롯한 영동지방의 기후 특성이기도 하다.

3. 현재의 역사적 환경

현재 고성군은 “남북교류 및 환동해권 중심지역 건설”과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의 위상 정립”을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다. 남북한 교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남·북 고성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한 금강산이 북고성군에 소재해 있어서 현내면·명호리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만남의 장”과 “통일동산”을 조성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소와 통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북고성 장전향과의 물자 교역에 대비하여 거진항의 항만기능을 어항중심에서 물자교역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환동해 물류거점 항만건설 구상에 있어 1차적으로 가진~공현진 구간을 국제항만으로 도시화하고 발전 여건을 보아 2차적으로 문암항까지 확장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고성군은 국제적 종합관광휴양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화진포, 송지호, 알프스스키장, 건봉사, 신평청소년수련장, 원암온천지구, 통일전망대 등과 같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고성군은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결되는 중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관광개발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城址(성지)

1. 金龜島城(금구도성)

가. 위치

금구도성은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산1번지에 위치한다. 고성군을 종단하는 7번국도를 따라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가면

초도향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 배를 타고 이삼분 정도 가면 금구도에 닿을 수 있다.

이 곳은 선착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박시 주의를 요한다.

나. 구조

금구도는 동쪽으로 머리를 둔 거북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은 바위섬이며, 남쪽과 서쪽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거북 몸통의 산에는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 북동편 평지에는 바위가 매우 많아 암초 구실을 한다.

금구도성지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평지이고 다수의 와편과 오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어서 건물지가 있었던 듯하다. 성벽은 북서쪽 끝을 꼭지점으로 하여 양쪽으로 뿔었으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 高城山城(고성산성)

가. 위치

고성산성은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산 8번지와 초도리 산 21번지의 경계인 고성산(해발 290m) 정상에 위치한다. 이 산성을 가려면 7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화진포에서 죽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죽정리를 거쳐 산학리에 들어서면 갈보리 교회와 갈보리 기도원이 있다. 갈보리 기도원에 주차시키고 산 정상으로 오르면 된다. 7번 국도에서 이곳까지는 약 11km이며, 갈보리 기도원에서 산 정상까지는 약 20분 걸으면 된다.

나. 구조

고성산성은 205m 둘레의 테피식 산성이다. 이 산성은 현재 완전히 멸실되었다. 산 정상에는 갈보리 교회에서 세운 철탑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벽 사면에 3.6m길이에 24×31cm 내외의 속돌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보면 정상 부근을 둘러싼 테피식 산성

으로서 그 둘레가 205m 내외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 정상과 그 주변에서는 와편과 옹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어서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 북벽·남벽 방향은 매우 가파른 편이며, 동쪽과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서쪽으로 정상 하단에는 작기는 하지만 평지가 있다. 이 산성을 오르는 길은 동쪽과 서쪽에 모두 있으나 동쪽 길이 갈보리 교회에서 오르는 것이라서 서쪽 등산로 보다는 비교적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杆城邑城(간성읍성)

가. 위치

간성읍성은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에 위치한 고성군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포함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 읍성은 옛 간성군의 치소 역할을 하였다. 동문지와 서문지 사이로 7번 국도가 가로 질렸다. 이 읍성을 동쪽으로는 시장, 서쪽으로는 법원, 남쪽으로는 간성교회, 북쪽으로는 고성군청이 위치한다. 이 읍성 내부에 간성읍사무소, 법원, 교육청, 등기소, 농협, 우체국 등 현 고성군의 주요 건물이 많다.

나. 구조

간성읍성은 1,165m 둘레의 읍성이다. 고성군청이 이 읍성의 북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다. (7번 국도가 동문지와 서문지를 가로지르고 있다. 남동쪽으로는 간성교회와 간성제일교회가, 남서쪽으로는 간성 천주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등기소가 있으며, 등기소 북쪽으로는 선정비군과 충훈탑이 자리잡고 있다.)

4. 金水里山城(금수리산성) 일명 古城山城

가. 위치

고성산성은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산 116·117번지와 탑동 산 72-1번지의 경계지인 고성산(해발 297m)에 위치한다.

이 산성에 가려면 군청에서 7번 국도를 따라 고성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 전하여 고성군 1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3km쯤가면 오른쪽으로 고성산으로 오르는 산길이 나타난다. 이 산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으면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구조

고성산성은 둘레 633m의 테피식 산성이다. 산 정상부에는 약 1만평의 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외편이 전 구간에서 골고루 수습되고 있다. 현재의 산불감시초소 남동쪽 평지에서 집중적으로 외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竹島城(죽도성)

가. 위치

죽도성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 1번지의 죽도에 위치한다. 죽도 부근에는 송지호 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쪽으로 오호리항이 있다. 오호리항에서 배를



죽왕면 오호리 죽도전경

타고 약 5분정도 가면 죽도에 닿을 수 있다. 이곳은 군부대, 해양경찰과 협조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나. 구조

죽도성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 성지에는 봉수지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정상부에서 건물지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편 여러 점을 수습하였을 뿐이다.

죽도성은 죽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테피식의 작은 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6. 栢村里城址(백촌리성지)

가. 위치

백촌리 성지는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성에 가려면 우선 7번 국도를 따라 동광농고에서 서쪽으로 약 500m정도 가면 백촌리 뜻말이 보인다. 이 성지는 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던 듯 하다.

나. 구조

백촌리 성지는 509m둘레의 성지로 추정된다. 이 성지는 한 마을을 에워싸고 방어하던 시설이었던 듯 하다.

이 성지는 마을이 형성되고, 또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관계로 멸실되었으나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북벽은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으나, 속돌 구간이 간간히 보이기 때문에 북벽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7. 鳳浦里土城(봉포리토성)

가. 위치

봉포리 토성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88번지에 위치한다. 이 토성지는 7번 국도를 따라 봉포리에 이르면 동편의 민박촌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멸실되어 성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속초 기상청, 속초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하버빌 모텔 등이 있으며, 이 일대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 구조

봉포리 토성은 610m 둘레의 성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과정에서 멸실된 것을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가정한 것이다.

현재 이 성지는 7번 국도를 신설하고 민박촌을 형성하면서 그 전모를 상실했다고 한다.

IV . 烽燧址(봉수지)

1. 麻次津里 烽燧(마차진리 봉수)

가. 위치

마차진리 봉수는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산 11번지의 봉화봉(해발 133m)에 위치한다. 이 봉수는 썩고개봉수 · 술산봉수라고도 한다.

이 봉수지에 가려면 7번 국도를 따라 통일전망대 가는 길로 향한다. 화진포 해수욕장을 지나고 금강산 콘도를 지나면 우측으로 금강산 관광 육로를 공사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통일전망대로 향하다 보면 썩고개(일명 배봉리 고개)를 넘게 된다. 이 고개 동편쪽 산 정상에 이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개 정상에서 봉화봉 정상까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 구조

마차진 봉수는 이중 벽을 갖추고 연조를 기단 위에 설치한 형태이다. 연

조는 도루더기 형태로 현존하고 있으며, 남북이 10m, 동서가 9.7m, 높이가 2m 규모이다.

기단은 북쪽이 9.7m, 동쪽이 13m, 남쪽이 9m, 서쪽이 11.5m이다.

내벽은 기단과의 거리가 6m 내외로서 모서리를 원형으로 다듬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타원형에 가깝다. 외벽은 내벽과 10m 거리로서, 현재 남벽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다. 남벽은 약 60m이다. 기단부 남동쪽에는 주거지로 추정되는 평지가 발견된다. 그 규모는 5m 내외이다. 면석은 부정형 막돌로서, 그 크기는 $50 \times 40 \times 12\text{cm}$, $33 \times 30 \times 11\text{cm}$, $17 \times 10 \times 24\text{cm}$ 이다.

2. 正陽山 烽燧(정양산 봉수)

가. 위치

정양산 봉수는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산 14-5와 산 19-2번지 경계되는 정양산 정상에 위치한다. 이 봉수는 반암해수욕장 맞은편에 보이는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반암해수욕장 맞은편에는 오대양수산 도매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200m 진입하면 교회가 위치한다. 이 교회 뒷길로 해서 산정상까지 도보로 약 20분 오르면 봉수지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구조

정양산봉수는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이다. 정상 주변의 둘레는 110m이고, 인공시설물 부근은 50m 이다.

이 봉수지는 삭도된 흔적으로 보아 그 터였음을 알 수 있으나, 봉수지를 증거할만한 유물을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없다.

3. 竹島 烽燧(죽도봉수)

가. 위치

죽도 봉수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 1번지 죽도에 위치한다. 죽도 북쪽

으로는 송지호 해수욕장이 있다. 죽도에 들어가려면 군부대와 해양경찰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이 섬에 들어갈 때에는 송지호해수욕장 남쪽의 오호리항에서 배를 타고 약 5분정도 가면 된다. 죽도에는 선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선할 때 주의를 요한다.

나. 구조

죽도봉수는 죽도 정상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울창한 대나무 숲이 현존하고 있어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정상부에서 외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죽도 정상부 내부에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4. 三浦里 烽燧(삼포리 봉수)

가. 위치

삼포리 봉수는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7번지와 산 19번지 경계에 위치한다. 이 봉수는 7번도로 오호리항 맞은편 서쪽에 위치한다. 이 봉수 북동쪽 7번도로 가에는 산울림 가구할인매장과 나그네 노래주점이 있다. 남쪽으로는 어명기 가옥 진입로가 나 있다.

이 봉수에 쉽게 가려면 7번 도로에서 남쪽으로 어명기 가옥 진입로를 따라 5분정도 가다가 봉수터로 오르는 오른쪽 산길이 있다. 이곳에서 산 정상으로 오르면 된다. 도보로 약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나. 구조

삼포리 봉수는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크게 교란된 상태이지만, 면적이 10m내외의 정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규모를 추정하게 해 준다.

면적은 1m 내외의 크기이다. 몇 년전에 발생했던 고성 화재 때문에 1988년에 설치한 표석은 깨진 상태이다. 주변에서는 다수의 외편이 수습되고 있다.

연조 기단은 10m 내외의 정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는 70cm 둘레의 원형으로 패여 있고, 정상부 주변의 크기는 116m이다.

5. 鳳浦里 烽燧(봉포리 봉수)

가. 위치

봉포리 봉수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55-1의 산(해발 59m)에 위치한다. 이 봉수는 봉포리 마을에서 서남쪽 방향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동대학교 남쪽에 위치한다. 이 산 정상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인상적이다.

이 봉수는 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봉포해수욕장 맞은 편에 위치한다. 7번도로 서쪽으로 원룸 민박촌이 있으며, 현대부동산이 있는 마을로 진입하여 산을 향해 서쪽으로 약 5분 정도 가면 산 중턱에 이른다. 이곳에서 산 정상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나. 구조

봉포리 봉수는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심하게 교란되어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에 삭토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봉수지에 사용하였을 석재가 성황당 담으로 쓰이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봉수지였음을 파악하게 해 준다.

성황당 터는 지름이 5m이고, 바로 위 정상부는 남북이 6.3m, 동서가 7m의 규모이다.

Ⅵ. 綜合檢討(종합검토)

고성군은 내륙지역보다 관방상으로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금구도성** 은 피난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 성을 활용했을 시는 산 정상부에서 외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세웠을 것이다. 외적이란 육지의 침략자와 바다를 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해적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성은 유사시 피난하여 성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대비할 목적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성산성** 의 산 정상부에서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전역과 동해가 한 눈에 조망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사방을 관측하기 위한 시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간성읍성** 은 규모가 작았던 성을 증축하여 큰 읍성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되며 초축시기는 고려말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종원년(1451)에 강원도동 해안지역의 다른 6개 지역 읍성과 함께 수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 **금수리 산성** 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이었으며 이 산성은 산 정상부가 매우 넓은 평지이고 우물 지도 있어서 사람이 생활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장기간 산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이 산성 주변에는 남쪽으로는 남천, 북쪽엔 북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 정상부에서 간성읍과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속초까지 잘 조망된다. 사방의 관측이 용이하며 성벽 외부가 매우 경사져 있으므로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 **죽도성** 은 현재 전축이 울착하며 성의 규모는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산 정상부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으며 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외편이 여러점 발견되었고, 이 성은 외적의 침입을 사전에 관측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 **백촌리 성지** 는 백촌리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성내부의 면적은 약 1만평 정도이고 마을 뒤편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량의 외편이 수습되었다.

◎ **봉포리 토성** 은 1991년부터 택지조성 사업과 신도로 건설 등이 연이어 착수되어 많은 부분이 멸실되어 그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고성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봉수대 각각의 거리는 (북고성) 구장천 봉수 ← 7km → 마차진 봉수 ← 7.3km → 정양산봉수 ← 7.2km → 죽도봉수 ← 7.8km → 덕산봉수 (속초, 일명 외옹치 봉수)이다. 그 평균 거리는 약 7.2km로서 전국 평균 8km보다는 짧은 편이다.

고성군의 7城 5烽燧 개괄

구분	유적지명		위치 (해발: m)	둘레 (m)	특징	별명
	한글	한자				
성곽	금구도성	金龜島城	현내면 초도리	276	석축	
	고성산성	高城山城	현내면 산학리 산8, 현내면 초도리 산21(290m)	205	석축	
	간성읍성	杆城邑城	간성읍 하리12 일원	1.165	석축	
	금수리산성	金水里山城	간성읍 금수리 산116, 117, 탑동 산72-1(297m)	633	석축	
	죽도성	竹島城	죽왕면 오호리 산1 죽도		불명	
	백촌리성지	栢村里城址	토성면 백촌리 80-3	509	토석혼축	
	봉포리토성	鳳浦里土城	토성면 봉포리 88	610	토석혼축	
봉수	마차진리봉수	麻次津里烽燧	현내면 마차진리 산11, 봉화봉(133m)		확인가능	쑥고개봉수, 술산봉수, 해봉리봉수
	정양산봉수	正陽山烽燧	거진읍 반암리 산14-5, 산19-2(170m)		인멸	
	죽도봉수	竹島烽燧	죽왕면 오호리 산1 죽도		확인가능	
	삼포리봉수	三浦里烽燧	죽왕면 삼포리 산17, 산19(59m)		확인가능	
	봉포리봉수	鳳浦里烽燧	토성면 봉포리 산55-1(59m)		인멸	

고성군 성과 봉수 수집유물 정리 결과표

구분		기와	토기	자기	기타	계	비고
1	금구도성	6	13	1		20	
2	고성산성	7	4		토제품 1	12	高城山城
3	간성읍성	10	3			13	
4	금수리산성	22	8			30	古城山城
5	죽도 봉수	4				4	
6	백촌리 성지	11	1			12	
7	봉포리 토성	3	4			7	
8	삼포리 봉수	10				10	
9	봉포리 봉수	5				5	
계		78	33	1		113	

우리고장의 전설과 세시풍속

김철수
(문화원 이사)

I. 글머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 주권을 갈망하며 또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의 다른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조물주의 창조의 섭리라 할 것이다.

또한 창조주는 인간에게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어 천하동식물을 다스리고 공존하게 하였으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억누르고, 누구나 누리고 번영해야 할 자유, 평등, 주권과 행복을 강탈하고 수탈하게 되었으니 인류역사는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반대로 찾은 것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피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토록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 애환이 담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들이 가진 표현본능이라고 하겠다.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지역인 인흥리와 그 일대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며, 그 삶이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점차 현대사회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이러한 모습과 삶의 다양한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관심있게 바라보는 이가 없다. 또한 역설적으로 현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삶의 뜻대로 삼을 수 없겠으나, 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면서, 내 삶의 터전의 근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문화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관찰과 수집 과정을 통해 그냥 간과하고 지나쳤던 환경과 여러 가지 현상의 결과들을 재발견 할 수 있었으며, 한때 일제에 의해 수탈된 문화유산을 생각할 때 정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이들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이처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신선봉과 그 주변의 전설과 그에 얽힌 슬픈 역사에 대해서 50년 동안 조사 발굴한 것을 발표 · 공유 하기 위함이며, 부족하나마 펜을 들어 기록 보존코자 함이다. 뿐만아니라 나와 모든 분들의 시작으로 이지역의 역사 보존 사상이 계속 이어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금강산의 지리적인 이해

우리가 인흥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산의 지리적인 요건부터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세인들은 일반적으로 금강산이 현재의 휴전선 이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금강산과 설악산은 미시령 계곡을 기점으로 구분되어지며, 북쪽은 금강산, 남쪽은 설악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울산바위가 금강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울산바위가 금강산에 포함되지 않음)은

많은 이들이 이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시령계곡 남쪽에 위치한 울산바위는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악산의 일부가 되었다는 전설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렇듯 미시령 계곡을 기점으로 나뉘는 금강산은 미시령 북쪽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의 첫 번째 봉우리이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다섯 개의 봉우리)이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이다.

Ⅲ. 신선봉에서 성황산에 이르는 인흥리 형성근거

[신선봉에서 성황산까지]

금강산의 봉우리 중의 하나인 신선봉은 해발 1,204m이며 양옆으로 2개의 봉우리(북쪽으로 중봉, 남쪽으로 소봉)를 거느리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북쪽 중봉의 한 능선은 5자매바위가 치마를 두르고 있으며 그 앞에 미륵바위(일명 갯바위라 하며 정감록에 십승지라고도 하며 국난이나 변고, 외침이 있을 때 미륵바위(갯바위) 아래 동굴에 피신하여 난을 피하였다고 함)를 거쳐 동해바다 해안의 관동 팔경의 하나인 청간정(청간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것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임)에 이르게 된다.

북쪽의 중봉과 함께 남쪽 소봉에서도 백불동을 지닌 한 능선이 상서로운 거북바위(일명 신선대 신선바위 : 먼 옛날 천상의 신선들이 내려와 노닐었다고 함)를 지나 앞으로 올 어진 이가 탈 말바위를 거쳐 인흥리 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인흥리 성산 성황산에서 그 맥의 끝을 맺었다. (그 성황산에는 앞으로 탄생할 선인이 쓸 관모 바위가 있고 호랑이가 뺏어 버린

불에 달구어진 바위가 있었으나 태풍 “루사”로 훼손되어 일부 자료만이 남아 있다)

[성황산에서 인흥리 형성까지]

인흥리의 형성 근거가 되는 성황산에 대한 부분은 상기 설명을 통해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마을 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조씨성을 가진 나그네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쉬어가기 위해 어느 고목 아래에서 유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다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뜨니 매우 굼주린 호랑이가 성황신(성황산신)에게 나그네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 성황신이 대답하기를 우리집에 온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며, 성황신과 호랑이가 옥신각신 다투는 것이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그네를 달라고 청하니 성황신이 다시 대답하기를 이 사람(나그네)은 앞으로 “인흥”이라는 마을을 형성할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어진이가 탄생하여 이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그네를 내어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호랑이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냇가에서 꼬리에다 물을 묻혀다가 나그네에게 뿌리며 잡아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중 힘에 지쳐 입을 벌리고 잠이 들자, 나그네는 모닥불을 피우고 조약돌을 구워 호랑이 입에다 집어 넣자 호랑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뒹굴다 돌만 뱉어 버리고 죽으니 뱉어 버린 돌의 흔적이 최근까지 남아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로 훼손되어 흔적도 없어졌다. 훗날 죽은 호랑이는 지금의 성황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 나그네는 이곳(인흥리)의 지세가 명당인지라 가족들을 데리고 와 화전을 일구어 마을을 이루었으며, 그 나그네가 “인흥리”를 형성한 시조라 하겠다. 현재 그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모두 흩어져 남아 있는 자손은 찾아 볼 길이 없다.

IV. 인흥리 설화의 당위성

[인흥리의 지리적, 환경적 당위성]

앞서 설명한 부분이 인흥리 형성에 대한 설화적 설명이라면 여기에서는 지리적, 환경적으로 인흥리 형성을 설명하므로써, 현 지역에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도성면 화암사에 위치한 자궁바위 ◀

인흥리 형성의 지리적, 환경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신선봉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선봉에서 한 줄기 작은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만삭한 여인의 배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산봉우리를 만나게 된다. 그 밑에는 만삭한 여인의 배와 같은 형태의 작은 산이 있고, 그 아래에 자궁형상을 하고 있는 자궁바위가 있다. 또한 자궁바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남자의 성기모양을 하고 있는 남근바위(일명 수바위)가 화암사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 자궁바위와 남근바위를 기점으로 하여 약 2km 지점에 나그네가 이루었다는 인흥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인흥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신선봉의 남쪽 소봉 능선에 위치한 거북바위와, 신선봉의 북쪽 중봉 능선에는 미륵바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흥리를 기점으로 우측으로는 거북바위, 좌측으로 미륵바위가 있어 좌청룡 우백호 동양 철학의 음양의 이치에 의해 큰 인물이 나올 이치에 맞는 도선선사의 정설이라 하겠다.

우측 거북바위(신선대)는 상서로운 바위요, 좌측은 앞으로 올 미륵바위(미륵부처)가 위치해 있고 화암사는 앞으로 올 선인을 위해 신라 때부터 불공을 드려 왔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V. 일제강점기의 암흑기 (지역문화의 훼손)

[풍수지리에 의한 문화훼손]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총독부에서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탈하면서 고려 도선선사의 풍수지리설에 접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영원히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전국명산에 쇠말뚝을 박고 산허리를 끊으며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물길을 돌리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만행은 이 지역도 빗겨 갈 수가 없었다.

당시 일제는 앞서 설명한 자궁바위(물이 범람시 물길이 자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양의 이치로 보고 이지역에서 자신들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물의 탄생을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으로 물길을 돌렸다고 함)에 음양의 이치를 가로막기 위해 석공 여러명을 동원하여 물길을 돌리게 하였으며, 화엄사의 천기를 이루기 위한 불공을 금하고 절을 황폐화 시켰다. (세계잼버리 대회시 중수 하였음) 만행은 결국 신선봉에서 이어져 형성된 “인홍리” 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성황산과 마을을 잇는 능선을 끊어 (신선소봉에서 이어지는 능선) 대로를 만들므로 마을까지 이어지는 정기를 차단하려 하였다. 당시 능선을 파헤치는 순간 피가 열두 동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당시 능선이 노루의 “목” 형상이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능선을 잘랐다는 것은 노루의 목을 잘랐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그 능선을 가로지르는 대로 주변의 흙은 피빛으로 붉게(적토) 물들어 있다.

이런 사건과 함께 자궁바위의 물길을 돌리고 인홍마을과 성황산의 능선을 끊는 그 순간 말바위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말울음 소리가 나면서 한마리 백마가 앞으로 올 주인을 잃고 그 슬픔과 괴로움에 뛰어나와 몸부림치

며 울부짖다 단숨에 성천천(인흥리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성천리 마을을 지나는 하천 : 말바위는 성천리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을 뛰어넘어 쇠골령에서 뛰어내려 죽었으며, 이후 백마는 길성황당이 되어 지금까지도 길 잃은 나그네의 길을 인도한다고 한다. 현재 인근마을(성천리)에 말바위에 말발굽 자리만이 남아 있어 뜻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있다.

이후 일제는 인흥리 마을을 노루장, 목항자를 써 장항리라 개명을 시켜 이곳 지세를 죽임으로써 마을을 소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훼손을 통해 생겨난 세시풍속]

이렇듯 인간순리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화강탈과 유린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항일 세시풍속놀이 생겨났다.

총독부는 주민들의 숨은 항일 감정에서 비롯된 것도 모르고, 이에 동조하여 통제를 하지 않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항일세시풍속을 소개해 보겠다.

| 봄 : 물매돌 전쟁놀이 |

봄이면 농사일이 시작되기 직전 인흥1,2리 청소년들은 우마차에 물매돌을 가득히 싣고서 동군(일본)과 서군(조선)으로 나뉘어 돌팔매 싸움을 하는데, 예정된 동군(일본)은 마지막 싸움에서 꼭 패배하게 되어있다. 이 놀이 문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내재되어 있는데, 수많은 돌에 맞아 상처를 입고 그 돌에 쏘이므로 무계에 못이겨 일본열도가 수장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주민들은 일본에 대한 하늘의 징계를 갈망한 것으로 보인다.

| 여름: 물놀이 싸움 |

여름철에는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인흥1,2리 청소년들이 총동원되어 두레박, 함지박 등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동원하여 동군(일본)과 서군(조선)으로 나누어 물싸움을 하였다. 물싸움의 유래는 일본열도가 누워 있는 원숭이 형체와 같아서(원숭이는 물을 싫어함) 상대방인 동군에게 물을 퍼부어 숨돌릴새 없이 공세를 취하여 이기는 물싸움으로, 일본인을 익사시키고 일본열도를 수장시킨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깊은 항일투쟁을 알 수나 있었겠는가?

| 가을: 아낙네들의 키로 물까불기 |

가을 벼가 이삭이 나올 무렵이면, 인흥지역 부녀자들이 총동원하여 저녁 무렵 제일 큰 하천 냇가에 모여, 부녀자들이 가을에 각종 곡물을 선별하는 키를 들고나가 걸으로는 벼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비가 잘 내려 달라고 기우제 형식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은 일본은 섬나라이고 여러 개의 섬이 바다에 모여 하나의 열도를 이루었으므로, 일본을 물의 나라라 하겠으니 부녀자들의 키로 물까불기 행위는 물을 까블며 날려보냄으로써, 물의 나라 일본 열도의 멸망과 천지신명 창조주 조물주의 징계를 기원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이에 반해 현세에 사는 우리들은 무지 몽매한 선조들이라고 매도하였으나, 나라를 사랑하고 애족하는 선조들의 우국 충정을 현세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겨울: 불놀이 |

정월대보름에 달집놀이를 본 따서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태의 달집을 만들고 불을 지펴 일본을 태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청소년들은

망우리를 돌린다고 하며, 불을 지펴 돌리다가(광술이나 벧집) 동쪽 일본을 향하여 불을 던지니(불을 돌릴때 일장기와 같은 원을 그림) 달집태우기는 화장이요, 망우리 불을 돌리다 동해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수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지역 주민들의 “메시아 신앙”과 “도선선사의 풍수지리설”이 자리잡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변방에서 정치적·문화적으로의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금강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흥리를 형성한 시조인 나그네이 이야기와 신선대를 시점으로 인흥리가 지리적(미륵바위, 거북바위, 자궁바위, 남근바위)으로 마을형성에 주요한 위치에 있음을 설명해 보았다. 아울러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손실되고 변화된 문화와 그에 반하여 형성된 항일세시풍속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았다. 이렇듯 자연발생된 지역문화와 인간의 힘으로 소멸하려 했던 일제의 만행들을 볼 때, 그 만큼 우리 선조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자연의 섭리와 순리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고장의 전설을 발굴·조사한 것은 과거를 잊은채 불투명한 미래만을 생각하는 현대인에 대한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과거의 문화속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진리와 교훈을 알리고자 함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향후 전설 또는 설화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에 계속 살을 붙혀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봉래 양사언과 감호 비래정(飛來亭)



이창원
(문화원 이사)

구선봉 한 가운데에서 감호 첫머리에 봉우리가 나지막하게 내려 앉았는데 이곳에 옛날 1571년부터 1576년까지 강릉부사를 지낸 봉래 양사언이 비래정을 짓고 노년을 소일하면서 많은 필적과 전설을 남겼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그는 감호 주변에서 자라 거기에서 장가를 들었으며,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한다. 그 때에 금강산 안쪽 동바위에 蓬萊楓嶽元化洞天的 8자를 남기고 동해시 무릉반석에 새겨진 武陵仙源中臺泉石頭陀洞天 12자를 썼더니 천지가 사흘동안 크게 요동하고 산울림이 사흘이나 울려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사언은 도가적인 풍모와 이와같은 전설로 神필이니 仙필이니 하여 仙風이 짙은 곳을 골라 필적을 남겼는데 금강산의 구룡폭포의 글씨, 평창 봉평면 팔석정 글씨, 설악산 비선대의 글씨 등이 유명하며 감월리 사람들로 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신선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도가적인 잘 생긴 풍모와 강릉 부사를 지낸 유명한 명필이 병들거나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없고 묘와 죽은 다른 흔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선봉의 정상에 편편한 곳이 있는데 아홉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하여 九仙峯 이라 명명하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비래정에는 6.25때까지 아름답리 적송이 열 여

섯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비래정 동북방에 서 있었는데 친구와 같이 재어보니 세이름 반이었다. 6.25당시 그 주변 친구와 비래정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무를 세보고 재보고 재삼 놀랐다. 늘 그 앞을 지나면서 훌륭한 정자다 하는 정도였는데 직접 만져보고 재어 보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국보급이 아닐까 생각해 보니 헤어진 부모 형제 만큼이나 간절히 보고 싶은 비래정 소나무들이다. 그리고 감호동 남쪽에 양사언이 후학을 가르치던 觀海齋가 있었는데 음력 초하루면 분향제를 지내고 3월 3일이면 공자님을 비롯 5성위를 모시고 대제를 올렸는데 관내 유지와 유림들이 모여 성대히 지냈다. 후학을 가르치는 일은 광복 후까지 계승되었는데 친구의 할아버지 심상묵 선생이 6.25때까지 명맥을 이어 왔으며 관해재도 남아있었다. 觀海齋라고 명필 양사언이 썼다하여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유림들이 가끔 백미 1두내지 3두씩 가지고 와서 탁본을 해 가지고 갔다고 한다.

감호 남쪽에는 御風亭이 있었는데 주로 양사언이 낙시터로 이용했다고 전한다. 서남쪽에 臥雲亭을 짓고 양사언의 장인 갑산교수 李時春이 사위인 양사언과 함께 금강산에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감호에는 비래정을 비롯 4동의 정자와 관해재가 1동으로 5동의 건물이 둘러 앉아 있던 예도와 풍류가 한시대를 구가 했던 유서깊은 곳이 휴전선에 묻혀 아주 사라지지 않을지 우려될 뿐이다.

죽정리 편곡 경위문

권 오 진
(문화원 이사)

이 곡은 8.15해방 직후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다가 6.25전쟁 후 대한민국의 영토로 수복된 직후인 1957년 10월경 마을 청년들의 주최로 열린 연극제에 청년 합창용으로 부르기 위하여 당시 죽정1리 청년회장이던 권오형씨의 제의로 음악창작에 조예가 깊은 같은 마을 친구 이병찬씨가 창작하였다.

당시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과 농자재의 절대 부족 속에서도 전쟁으로 폐허화된 향토를 재건하는데 힘겨워하던 주민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먼 장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청년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당시 주민들이 거의 전통 민요나 창으로 여가를 즐기던 세대 속에서 우리고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산간 오지마을에서 현대적인 양악 형식으로 작곡된 사례는 드물다고 보아 이 노래는 지역사회 현대음악 확산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이 노래는 70년대 초반까지 죽정1,2리 마을 청년들에게 전수되어 애창되었으나 마을주민들의 급속한 도시 이주와 특히 노래를 애창하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전출이 많아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뻔 하였다.

또한 원작 악보는 60년대 말까지 마을 회관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관리 소홀과 회관 폐쇄 시 분실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차제에 이 노래를 그대로 배워 알고 있는 출향인 권오석 씨에게 의뢰하여 편곡하게 되었다.

이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향토문화연구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죽정리 향토가

1절

태백산맥 줄기 뺨은 고성산 기슭에
신성한 화진포를 품속에 안고서
전원의 토향방초 호흡해가며 미래의 행복을 꿈꾸어간다.
영원을 노래하며 진리를 찾아가자. 평화로운 이 터전의 젊은이들

2절

동해안에 우뚝 솟은 노인산 앞들에
우리 조상 건설하신 산천초목 우거진 곳
구름같이 넓은 벌판 넓다란 향기 속에 미래의 행복을 꿈꾸어간다.
영원을 노래하며 진리를 찾아가자. 평화로운 이 터전의 젊은이들

후렴

아 문화 농촌 이룩하세 우리 죽정리

개 무덤이



신현필
(고성군 문화원 회원)

7번 국도를 따라 거진읍 자산리를 지나 봉평리로 접어들면 완만한 경사지를 올라 낮은 산등성이로 길이 이어졌다. 한참 가면 왼쪽으로 굽어진 길 오른쪽은 거진읍 화포리이고, 길 왼쪽은 봉평리 중간 마을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고, 길 북쪽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어진 내리막 서부터 화포리 구역을 지나 원당리로 이어진다. 길 남쪽 굽어진 입구서부터 북쪽 내리막 입구까지 이 부근을 “개무덤이” 라고 부른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려왔는지 모르지만 조상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화진포가 완전한 호수이기 전 계절은 여월(余月)이 지나고 보름이 안된 화창한 날이었다.

남쪽 어느마을 선비가 북쪽 친척집 경가일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호주가(好酒家)였던 그는 권주를 마다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받아 마셨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선비는 취중에도 귀가 길을 가늠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은 하루더 담소로 지내자고 만류하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주인을 잘 따르던 개가 따라 왔다가 길동무가 되어 준 것이 큰 위안이 됐다. 훈훈한 미풍은 취기를 더욱 북돋아 점점 몽롱해지며 다리의 중심을 잡지못하게 한다. 개가 앞섰다가 옆에 가까이 접근하여 부축이라도 하듯 주인 곁을 떨어지지 않는다. 선비는 취중에도 시를 읊버무려 읊으며 화포리 언덕 길을 올라섰다.

몸이 노그라지고 눈이 감겨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길 옆 외진 곳의 양지쪽을 찾아 의관을 대충 풀어 놓고, 소복히 깔려있는 낙엽을 보료 삼아 누웠다. 개는 주인을 맴돌며 끁끁 거린다. 선비는 눈을 감은 채 개에게 “너도 여기서 쉬었다가자꾸나!” 한마디 겨우 들릴 정도로 웅얼거리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개도 주인발치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길게 누웠다. 마른 풀잎이 스치는 소리에도 개는 귀를 쫑그리며 반신을 일으켜 두리번거리다 다시 눕기를 거듭하며 경계를 했다. 안심이 되자 개도 피곤한지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묻어버렸다. 술술 부는 화풍은 이들을 깊이깊이 잠들게 했다.

서너 시간이 흘렀다. 선비는 한기와 갈증을 느끼고 뒤척이며 반신을 일으켜 기지개를 펴고 앉았다. 매쾌한 매연 내음이 코를 확 찌른다. 여기저기서 타다남은 나무그루 썩정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간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정신이 새로워 지며 전율이 엄습해 떨리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는 누웠던 주위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멀리까지 물이 흠뻑 젖어있어 산불에서 무사했던 것이다. 물이 경사진 곳으로 흐를 정도로 뿌려졌다. 누가 자기를 구해주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은 없고 적막마저 느껴진다. 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 불려도 기척이 없었다. 찾아보니 개는 낙엽이 쌓인 흠진 곳에 온 몸이 물에 젖은 채 혀를 길게 내 빼물고 사지를 뻗고 누워 있었다. 이미 숨져 있었다. 선비는 비로소 이 개가 목숨을 구해 준 의구이자 충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놀랍고도 믿지 못할 현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모르게 불현 듯 싸늘한 개를 부등켜 안고 소리없이 흐느껴 울며 눈물을 계속 흘렸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연기내음이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개의 코를 자극하고 멀리서 후드득 후드득 불타는 소리가 귓가를 두드렸기에 개는 벌떡 일어나 연기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불이 산 밑에서부터 타 올라오고 있었다. 술술 부는 남풍은 불을 부채질하고 있어 선비가 누워있는 곳이 위험하다.

개는 큰소리로 “멍멍멍” 울부짖으며 주인의 몸을 발로 흔들며 깨웠으나 꿈쩍도 않는다. 안절부절 할 바를 모른다. 화포리 길 언덕 밑의 물을 보았다. 단숨에 뛰어 내려 몸을 물에 던졌다. 언덕을 뛰어 올라 선비가 누워있는 가까이에서부터 몸털에 묻은 물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여 주위를 넓게 적셔 놓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점점 접근하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몸이 찢기어 상처가 나는 것도 모르고 오직 주인 목숨을 지키는 일념뿐이었다. 상처투성이에다 지칠대로 지쳐버렸다. 불은 물에 젖은 곳을 비켜 가 버리고 선비가 누워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되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온몸으로 물운반을 계속하는데 가까이서 뒷불이 일어났다. 기진맥진한 몸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불을 끄고 그 자리에 누운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선비는 개의 몰골과 현 상황을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었다.

참으로 의로운 충견이었다. 애통한 심정으로 슬퍼할 때만은 아니었다.

남쪽 산밑 외딴집을 찾아가 쟁기를 빌려 와 개를 가매장하고 무거운 발길을 집으로 향했다. 밤 늦게 도착한 선비는 제물을 장만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부리는 머슴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어제 있었던 그 장소에 도착한 일행은 눈물을 흘렸다. 아직도 선비가 누웠던 주위의 넓은 곳은 물이 흥건이 젖어있었다. 선비는 개의 무덤을 사람과 같게 하고 예를 갖추어 인간에 버금가는 장례를 지내주고 슬퍼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은혜에 보답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고 무덤을 극진히 관리했다.

선비가 늙어 사망한 후 이 ‘개무덤’은 관리소홀과 돌보는 이 없어 폐허가 되어갔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장소를 모른다. 구전에 의하여 이 부근에 그와 같은 「개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내려오고 있고, 이곳을 「개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구히 후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산 교육의 가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문화는 개를 비유하여 꾸짖는 욕설이 많다. 쉽게 하는 욕설이 『개새끼(개자식)』이다. 못된 행위나 행동을 했거나 남에게 못된 짓과 해를 끼쳤을 때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하고 꾸짖는다.

개가 알아듣고 비웃거나 항의할까 봐 두렵다. 개를 비유하여 욕설이나 꾸지람을 하는 이부터 자성해야 한다. 하루 속히 우리 욕문화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날이 오기를 꼭 믿는다.

이와 같은 욕설이나 꾸지람을 해서도 안되고 듣게 해서도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가자. 의구나 충견보다 못하면서 어찌 이런 욕설이나 꾸지람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한번쯤은 반성해 볼 만하다.

광개토대왕릉설에 부처

차 주 문
(문화원 사료조사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고성(高城)의 옛 지명 ‘달홀(撻忽)’이 신라 경덕왕 대에 와서 한역(漢譯)하여 고성(高城)으로 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찾은 고구려 정사(正史)」의 저자인 오종철씨는 ‘○○忽’은 지명이 아니라 왕릉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원사화(揅園史話) 단군기의 주홀, 숙신홀, 염려홀, 등의 예를 들어 ‘홀(忽)’은 단군조선 시대의 성소로서 제후들을 모아 신령에 제사하고 그 곳에 묘당을 세운 곳이라 한다. 이것을 고구려조에 와서 길지를 택하여 왕릉을 구축하고 선왕의 신령을 모시기 위한 사당을 짓고, 당호에 ‘忽’자를 붙였다 한다.

그 증거로 ①忽이 있는 곳이 한반도 북위 39°선 이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 ② 한 고을에 많게는忽이 4곳까지 있다. ③忽이 있는 고을 모두가 반전맥(反轉脈)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두대간 향로봉에서 정북방향으로 반전한 향로봉산맥(향로봉~남강 적벽산)의 중간 어구산(노인산) 소지맥 끝에 있는 화진포 거북섬을 다음의 예를 들며 광개토대왕릉이라 하며 주장한다.

동왕 비문에 있는[...甲寅年 九月 二九日 乙酉 遷就山陵...]은, 왕 사망 1년 후인 414년 ‘능을 옮겨 모셨다. 산이 나아가 능이 된 곳으로 옮겨 모셨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산이 어디로 나아간단 말인가가 문제이다. 없던 땅을 만들어 넓히고 산이 그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다를 메운 후 그곳에

산(능)을 만들고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광개토대왕릉은 화진포 바다 가운데에 있는 거북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거북은 다산과 장수의 상징으로 고구려, 특히 왕실에서 신성시하였다. 주몽의 건국기나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쫓기던 주몽이 거북의 도움으로 강(엄리대수)을 건넜다는 점, 주몽이 (거북)알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고구려중원비의 위치로 보아 장수왕릉이 있을 충북 음성(영호)의 위치가 거북의 알집(胎)에 해당하는 부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이 음성지방에서 지금까지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북놀이의 가사[...이 거북이가 동해 바다를 건너...]와 간성의 가라홀 또는 가아홀의 화진포 거북섬이 모두 거북과 관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광개토대왕릉설 주장에 대하여 각종 사료와 자료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광개토대왕비문에는 ‘홀(忽)’ 지명이 없다.

광개토대왕비문에 나타난 공취성이나 수묘인의 징발지인 고구려의 구토나 새로 확보한 땅을 살펴보아도 ‘忽’ 지명은 없었다. 貫奴城(강릉),新城(심양동쪽), 彌鄒城(인천) 등과 같이 ‘○○城’ 〇 지명을 「~의 지명을 사용하였다. [...□□□鴨盧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의 내용에 나타난 원정에서~」 ‘64성(城)과 1,400부락(村)을 깨트렸다.’는 비문내용을 보아 고구려의 행정단위는 성, 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에 편찬한 [삼국사기 지리편]에서의 미추[홀](인천)이란 지명 이전에 비문에서는 미추[성]으로, 간성의 가라[홀] 혹은 가아[홀] 이전의 수성(★城)이란 지명이 있었음을 보아 ‘忽’은 오씨의 주장대로 왕릉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2. 박제상은 신라왕의 동생 보해를 고성 앞바다에서 탈출시켰다.

삼국유사를 보면 425년 5월 15일 박제상이 고구려에 볼모로 간 신라 눌지왕의 동생 보해(복호)를 고성 앞바다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고성 앞바다를 주지해 볼 필요가 있다. 425년은 장수왕의 평양천도(427)가 있기 전이므로 고구려의 수도는 현 압록강 변의 집안이다. 볼모인 보해를 집안에서 동해 바다를 이용하여 탈출시키려 하였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인 원산이나 함흥 앞바다를 통하여 탈출 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도상거리 100여 km 나 떨어진 고성 앞바다를 택하여 탈출시켰다 함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신라 선덕여왕은 미륵보살’이란 글에서 보해왕자는 광개토대왕릉의 수묘인(능지기)이 되어, 비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예(韓穢) 220가(家) 수묘인 연호 중의 하나로 편입돼 있다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호우총(壺杆塚)에서 비문과 같은 글씨체인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바닥에 양각된 청동제 대접이 출토되었음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여기 을묘년은 장수왕 3년(415년)으로 선대왕의 비문을 세우고 선왕릉을 천취산릉한 그 다음 해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보해는 고성에서 가까운 광개토대왕릉(화진포 거북섬)에서 수묘인 생활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할 것이다.

3. 장수왕의 실직성 공격과 문자명왕이 바다에 망제를 지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長壽王 五十六年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 悉直州城, 文咨明王 四年 秋七月 南巡狩 望海而遠], 468년 장수왕이 친히 말갈(이병도 박사는 동예군으로도 본다)의 군사 1만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실직주(삼척)성을 공격하여 동해안 려·라간의 접경지역을 툰 툰히 확보하였다는 점은 고구려 왕실에서 무언가에 의해 이 지역을 상당

히 중요시 여겼다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18년(409)에 이은 495년 문자명왕의 두 번째 남순 기록이다. 문자명왕은 남으로 순수(巡狩)해 귀경 길에 바다에 망제를 지내고 돌아갔다. 광개토대왕과의 남순의 우연성은 차치하더라도 바다에 망제를 지냈다함은 음성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의 가사를 보거나 위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동해바다의 화진포 거북섬 임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왕릉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고증은 오늘에 사는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 할 것이다. 화진포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하나가 우리 한민족사의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대하여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더니, 이제 중국은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고구려사까지 왜곡하려 하고있다. 우리 역사의 근간과 민족의 정체성 까지 혼란을 주는 이때에 오늘에 사는 우리는 유구한 전통과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료, 유적 하나하나를 발굴해 내어 위대했던 조상들의 위덕을 기릴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내면 초도리 금구도 전경

우리 고장을 배경으로 한 공양왕릉(恭讓王陵)설

이 선 국
(간성읍장)

고려의 34대 공양왕(1345-1394)의 이름은 요(瑤)인데, 아버지는 정원 부원군(定原府院君)인 군(鈞)이다. 1389년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에 의하여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장악한 신흥사대부 이성계(李成桂) 등이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왕(禡王)과 창왕(昌王)을 신씨(辛氏)로 몰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킨다.

공양왕은 재위 3년 동안 신흥사대부들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고려의 구귀족인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정책을 집행할 것에 불과했다. 특히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모두 불사르고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한 전제개혁(田制改革)(1391)은 구질서인 고려왕조가 몰락하고 신질서인 조선왕조가 수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폐위된 우왕과 창왕은 강릉과 강화에서 각각 살해되었다. 개혁세력의 반대파인 포은 정몽주(鄭夢周) 선생과 같은 고려 최후의 학자를 제거한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의 양위를 강요하였고, 공양왕 4년(1392) 7월에 이성계(李成桂)의 혁명(革命)에 의해 고려왕조는 멸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 공양왕은 원주(原州)로 추방되었다가 간성군(杆城郡)으로 옮겨졌고 이어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었으며, 태조 3년(1394) 4월

삼척부(三陟府)에서 두 아들과 함께 50세의 나이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그 후 태종 16년(1416)에 공양왕으로 봉하고 고양현에 무덤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공양왕(1389-1392 재위)은 고려 21대 희종(1204-1211)의 6대손으로 정원부원군 균(鈞)의 아들. 창왕을 폐위시킨 이성계 일파의 강압으로 쓰러져가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나 애시당초 왕위는 신흥사대부에 의한 허위(虛位)였던 것이다.

‘공민왕-우왕-창왕’으로 이어지는 적손의 혈통이 있었음에도 신종의 7대손이며 희종의 6대손인 공양왕을 왕으로 옹립한 것부터가 계획된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성계와 신흥사대부의 추대로 별안간 왕위에 오른 공양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하면 좋으냐’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고 전한다.

쿠데타 세력이었던 이성계 추종세력의 기세와 협박으로 왕이 즉위한 뒤 임명했던 대신들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공양왕은 역성혁명 세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신들을 파직하고 유배시켰으며, 유배지에 있던 우왕과 그 아들 창왕을 살해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계와 신흥사대부는 이미 새 왕조의 집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후환을 없앨 계략으로 우왕(禡王)을 신돈의 자식으로 몰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며 고려왕조의 인물들을 차례로 제거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 건국 후 공양왕은 정사(政事)에 어둡고 덕(德)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당한다. 허수아비 왕 노릇 3년만이였다.

1392년 공양왕은 원주로 쫓겨 가고, 다음엔 강원도 간성 땅으로, 다시 삼척으로 더욱 멀리 유배되었다가 1394년 이성계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불행한 일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그는 공양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공양

왕으로 추봉되었다. 무덤이 능(陵)으로 승격된 것은 22년 뒤인 1416년 태종 16년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실에 따르면 공양왕이 살해된 곳은 삼척이다. 그렇다면,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삼척에는 왕이 머물렀다는 ‘궁말(궁촌리)’이라는 지명이 있고 공양왕릉이 있는 고개는 왕이 살해된 곳이라 하여 ‘살해재’라 불리고 있으므로 분명 공양왕의 죽음과 무관한 곳은 아니다.

현재 사학계에서는 공양왕의 무덤을 고양과 삼척 두 군데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공양왕은 삼척에서 명을 받은 자객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리고 공양왕을 확실히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만을 잘라 이성계에게 가지고 갔다. 그래서 머리가 묻힌 곳과 몸뚱이가 묻힌 곳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의 무덤은 머리를 묻은 곳이고, 강원도 삼척에 있는 무덤은 인근 사람들이 남은 사체를 수습하여 묻은 자리. 이렇게 본다면 두 곳의 무덤 모두 진짜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추정도 할 수 있다. 처음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태종 때 고려의 왕으로 추봉되면서 옛 고려의 수도 가까운 곳으로 이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신은 옮겨갔지만 삼척 사람들은 비운의 왕을 추념하는 마음으로 옛 무덤자리를 계속 공양왕의 영혼이 계신 곳이라 믿으며 넋을 위로하고 슬픔을 달랠 수도 있다.

이러한 민중의 정서가 지금까지 이어져 삼척 궁촌(宮村)에서는 3년마다 어룡제(漁龍祭)를 지내는데, 그에 앞서 반드시 공양왕릉 앞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 있다.

현재 사적 제 191호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원당면의 공양왕릉이 있고, 공양왕이 살해된 삼척지역의 근덕면 궁촌리(近德面 宮村里) 178번지의

해안가 언덕에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공양왕릉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1995년 강원도 기념물 제 71호로 지정되었다.

무덤은 모두 4기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공양왕의 무덤이고 2기는 왕자의 무덤, 나머지 1기는 왕의 시녀 또는 왕이 타던 말의 무덤이라 전한다¹⁾

이처럼 두 곳이 거론되는 이유는 공양왕의 재위 시기가 조선 건국과 맞물려 있어 문헌이 빈약하므로 정확한 고증이 어려운 까닭도 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도 공양왕(恭讓王) 서거와 관련된 비사(秘史)가 함께 문증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공양왕의 문신(文臣)이었던 함부열(咸傅說)씨와 이성계를 도와 3등 개국공신이 된 함부림(咸傅霖)씨는 형제였지만 새로운 왕조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형제는 정적(政敵)이 되어야 했다. 형 함부림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추후 대사헌과 형조판서를 지낸 후 영의정에 올랐다. 아우 함부열은 고려말에 예부상서와 홍문관 수사를 지냈으나 조선개국 동참을 거부하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아우 함부열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뒤 공양왕이 원주로 유배되자 은밀히 공양왕을 수행하였고 다시 간성(杆城)으로 유배지를 옮기자 왕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간성으로 함께 옮겨 왔다. 형 함부림의 정보에 의해 왕의 살해위험을 알고 삼척으로 또다시 도피해서 살상 비사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공양왕과 함께 하다가 간성에서 여생을 보낸 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함씨 문중에 전하는 함부열 야사에 따르면 공양왕 일행이 2년간 고성군 간성읍 금장동(金章洞) 수타사(壽陀寺)를 근거지로 머무는 동안 부족국

가 왕권 형태를 갖춘 지사(志士)와 무사(武士)가 삼백여명에 이르렀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감시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394년 4월 17일 공양왕과 그 추종자들은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 고돌산(古突山) 살해치(殺害峙)로 도피 중 중추부사 정남진(鄭南晉) 형조외랑 부하들에 의해 피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야사(野史)에 의하면 당시 아우 함부열이 형 함부림에게 간청하여 공양왕을 간신히 피신시킬 기회를 얻어 왕족시신만 거두게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공양왕 시해의 왕명을 거역한 정남진과 함부림은 고심하다 후환이 두려워 심복자객을 다시 간성으로 보내 1394년 4월 25일 공양왕을 시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함부열은 공양왕이 숨을 거둔 고성산 서록을 원정동(元政洞)이라 명명하고 매장한 후 후손에게 자신도 그 밑에 장사(葬事)하여 시왕(侍王)께 하고 무고축(無告祝)으로 제사(祭祀)하라는 유언을 남겨 지금도 후손들은 이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양왕이 피살된 지 만 22년이 지난 1416년에 태종은 강봉된 공양군을 공양왕으로 추봉하고 삼척에 있다고 생각한 왕과 왕비의 시신을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왕릉골로 이장(移葬)하였으나 그것은 세자(世子) 석(奭)의 부부(夫婦)이고, 삼척에 있다는 공양왕릉은 공양왕비와 종사자들의 운소라는 설이 함부열 야사에 전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秘史)가 유지되어 온 것은 형 함부림의 세도(勢道) 덕분이라고 한다.

형 함부림은 아우 함부열의 직언(直言)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었다고 한다. 함부열이 간성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남겼다는 시(詩)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太乙高城山下飛 - 태율이 고성산 아래로 날으니
 梧桐葉裏影藏微 - 오동잎 속에 맥이 감추어져 가늘다
 莫認玉帶非爲案 - 옥대 아니 되지 않았다고 혐의치 말라
 轉轉花開萬世輝 - 고축에 꽃이 피니 만세에 빛난다

형과 아우가 고려의 멸망과 조선왕조의 개국으로 충신과 역적으로 나뉘면서 본관(本貫)도 달리하게 되었다. 형 함부림계는 강릉(江陵), 아우 함부열계는 본래의 양근(楊根)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3년 8월 20일 함씨의 자손들이 함부열(咸傳說) 묘소의 대대적인 복원 정비사업 중에 공양왕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였는데 공양왕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부장품은 발견치 못하였다고 전한다.

<참고문헌> 高城郡誌, 1998, 고성군

미래산업의 중심인 해양심층수¹⁾

1.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조성 현황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인근 ⇨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조성 및 운영



- 목적 : 해양심층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 주관 :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심층수연구센터)
- 기간 : 2004 ~ 2010년 ■ 장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인근
- 규모 : 부지 2,200평, 건평 770평 연구개발동, 산업특성화실험동, 전시홍보관 등
- 능력 : 해양심층수 최대 1,000톤/일 취수
- 내용 : 해양심층수 담수화, 저온에너지 물질 추출, 수산 이용 등의 이용 및 자원분석 인증관리

1) 資料 : 高城郡

2. 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여 수온이 항상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이다.

즉, 해양심층수는 저온성, 부영양성, 미네랄성 및 청정성의 특징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 중에서 생성되어 해수로서 재생 및 순환되는 막대한 청정자원이다.

3. 고성 해양심층수의 수질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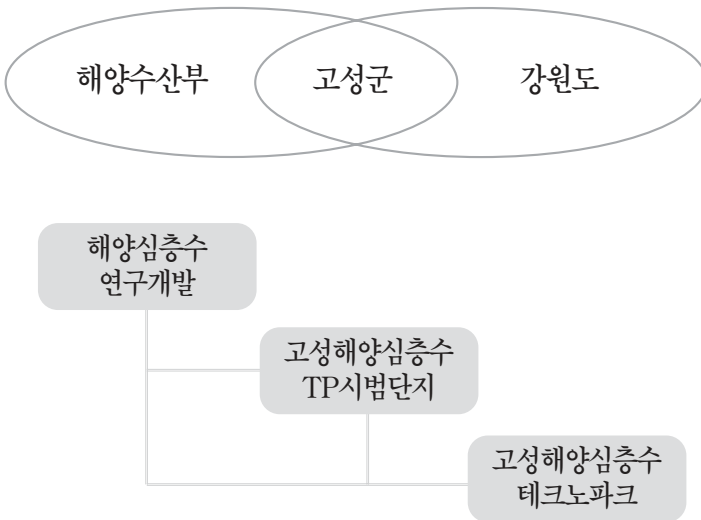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심층수는 강원도 동해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3km 이내에서 획득이 가능한 곳이 강원도 북부 해역과 주변 해역, 북한만의 경성만으로 알려져 있다. 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연구 대상해역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앞 지선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간 해양심층수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개발 대상해역의 심층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자들과의 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수지점의 설정, 해양심층수의 정의 및 범위 설정자료로 활용하며, 산업적 이용에 따라 수질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계절별 및 월별 측정을 수행해 오고 있다.

- | | | |
|-----------------------------|-------------------------------|-----------------------------|
| • 수심 : 330m | •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 3.5km | • 수온 : 0.6 ~ 1.1℃ |
| • 염분 : 34.1‰ | • pH : 7.78 | • NO ₃ -N : 0.37 |
| • PO ₄ -P : 0.05 | • SiO ₂ -Si : 2.74 | • COD : 0.1 ~ 0.2 |

고성지역의 심층수는 우수한 지리적 조건과 수질 조건을 갖춘 곳으로 국외 심층수 개발 지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 있는 수자원의 개발로 연안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해양 청정산업의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의 추진 및 구성



□ **해양심층수 연구개발(해양수산부/해양연구원) : 2000 ~ 2005년**

- .. 해양심층수 자원 개발,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개발
- .. 산학연관간 유기적 연계강화 및 협력개발을 통한 실용화 실증
- .. 해양심층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및 법제회 추진

□ **고성 해양심층수 TP시범단지 (해양수산부/강원도/고성군) : 2003~2005년**

- .. 고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실용화 실증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 .. 고성 해양심층수 TP시범단지 조성 및 시범적 이용생산 지원
- .. 고성 해양심층수 TP시범단지 주변해역 자원 및 환경관리

□ **고성 해양심층수 TP(강원도/고성군) : 2006 ~ 2015년**

- ..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심층수비즈니스 전개기반 조성
- .. 고성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를 이용한 종합 해양관광권 활성화

나. 전담기관별 추진상황

□ **공동연구센터 신축**

해양연구원이 위탁받아 심층수 응용연구 및 다목적이용 모델 구상
용도로 진행

- .. 위치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7번지외1필지
- .. 부지면적 : 2,300평
- .. 사업기간 : 2004.7.30 ~ 2005.10.31
- .. 사업비 : 122억원 (국비 102억, 수자원공사 20억)

—공동연구센터 신축 30억, 취수관 설치 40억, 연구개발 35억, 장비구입 17억

„ 주요시설

—공동연구센터 : 연구개발동의 5동(745평)

—취수관 : 2조, 8km, 1,000톤/일

[중층수 1조(3km, 500톤/일),

심층수 1조(5km, 500톤/일)]



□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참여업체 선정

„ 선정주관 : 해양연구원

„ 선정목적 : 해양심층수 시제품 개발 공동연구

„ 공동연구 협약체결 : 2005.6월

„ 선정업체 및 연구분야

선정업체	연구분야	선정업체	연구분야
국순당	증류식 소주	현대약품	이온음료
애경산업	화장품	강릉초당두부	두부
동원F&B	녹차음료	두산R&D	청주
샘표식품	장류	대학촌	발효음료

고 성 군

□ 연구시범단지 부지조성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2-11번지외1필지

„ 사업기간 : 2004.3.15 ~ 2005.6.24

„ 사업비 : 군비 22억(부지조성공사 16억, 토지매입 6억)

„ 주요 시설공사

—부지조성 10,800평, 진입도로 및 보도 367m, 상하수도 820m, 옹벽 144m,
가로등 8개소 등

[부지조성 목적(총 10,800평)]

2,300평 : 국책 심층수 연구사업 목적의 공동연구센터 신축

2,000평 : 지역 브랜드화 연구목적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5,000평 : 심층수 이용 건강요법 시설의 타라소피아 시설유치

1,500평 : 기타 조정 및 녹지

□ **공동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약정서 체결(고성군⇔해양연구원간)**

.. 초안작성 협의 : 2004. 6. 1

.. 1차수정 협의 : 2004. 6. 10 ~ 2004. 6. 29

.. 2차수정 협의 : 2004. 7. 21 ~ 2004. 8. 11

□ **창업보육센터 건립추진**

해양연구원의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자생력 제고와 해양심층수 이용 농·수·축산물 지역 브랜드화사업 정착

.. 위 치 :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인근(오호리 산 2-9번지)

.. 사업비 : 100억원(건축비 70억원, 기반시설 3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07년

.. 부지면적 : 3,600평

.. 사업규모 : 2동/3층(건물연면적 : 1,000평)

.. 사업내용 : 심층수 이용 한우사육, 수경재배, 한해성 종묘생산, 수산증양식 등 지역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5. 해양심층수의 활용방안

해양심층수의 이러한 다양한 자원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자원적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그 특성을 공익적 및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해양심층수의 저온성, 부영양성, 미네랄성 및 청정성 등의 자원적 가치를 공공 및 산업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정리해 보면 식수와 관련한 해양심층수 담수화 및 수질 조정 분야, 식량과 관련한 수산 생산 및 가공, 그리고 농업이용 분야, 에너지와 관련한 냉방, 냉장, 냉동 및 제빙 분야, 자원과 관련한 소금, 희소금속, 에너지원 등의 유용물질 추출분야 및 기타 의약, 미용, 건강 등의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심층수 활용기능 분야]

구분		현황	활용방안
수산 분야	증식	자원급감, 해양오염 위협	한해성 자원조성(대구, 도루묵 등)
	양식	안정적공급 곤란, 식량부족, 산업경쟁력 약화	한해성 수산양식(김, 전복, 가자미 등)
비수산 분야	에너지	수입 의존, 환경 오염원	냉각, 냉방, 냉장
	식수	물 부족, 오염	생수, 기능성 음료수
	소금	오염 심각	청정 및 기능성 소금
	식품	안전 위협, 오염	김치류, 장류, 두부 등
	약품	난치병 증가 및 신약개발 필요	당뇨병 약, 신약개발
	의료	신경성 및 알레르기성 질환 다발	피부염 치료, 해양요법
	미용	민감성 피부 증대	화장품, 보습제 등
	자원	자원 무기화	희소금속, 에너지원
	농업	농약 과다사용, 산업경쟁력	냉온성 식물 수경재배, 토양내 응결 급수 등
	관광	수요증대, 기반취약, 요구다양화	심층수 이용 관광화
	휴양		생태형 청정촌 조성
	교육		전시체험형 해양교육



김성호

- (전)고성군문화원 이사
- 고성군 사진동우회 회원
- 개인전 1회
- 고성, 속초, 강릉그룹전 30회
- 한·중·일 교류전 5회
- (사)한국사진작가 협회 속초지부

[공 존]





이태건

- 1935년 12월 출생
- 한국외국어 대학 졸업(불어전공)
- 미국 사진학교 FPS졸업
- 서울(1989년) 흑백, 칼라 개인전
- 고성군 사진동우회 회원(고문)

[花津浦湖의 조용한 여름]





류경렬

- (전) 공현진초등학교 교장
- 국제기능올림픽 심사위원
- 제11회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심사위원
- 고성사진 동우회 회장
- 창작사진 개인전(1회)
- 각종 축제 사진전 참가 10여회
- 저서 : 이야기 명심보감

[매미의 탈바꿈]





안의 봉

- (전)고성군청 근무
- 고성군 사진동우회 회원
- 회원전 12회 참가
- 고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다수 입선

[왕곡마을]



길을 묻다

장은선

익숙한 풍경에 무덤덤한 듯
승객 떴이 하품하거나 졸고 있다
선그라스를 낀 운전기사는
뽕짝가요에 맞춰 생을 반추하듯
가속페달을 밟았다 늦췄다 한다
낮술로 버얼건 어부들이
흑싸래기 껌질을 두들겨
수심에 가라앉은 꿈들을 건질 때
송지호 갈대 숲 고니들은
중천을 내려온 산 그림자를 쫓아대거나
물안개에 걸터앉아 서걱이는 수초 같아
길까지 따라온 마음을 버리라 한다
툰드라를 지나온 대머리독수리들은
선승처럼 가부좌 틀고 눈을 부라리며
수행자의 고단한 생을 묵언으로 보여 준다
저 길들 저마다 상처가 있어
툑툑거리고 기침소리 들리는 듯하다
철지난 백사장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모래바람이
눈먼 해송들의 살갓을 깎아대어
부초 같은 아련한 목선 한 척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리움인 듯
길을 찾는 가슴 한 귀퉁이 저러온다.

< 약력 >

- 제8회 서울시 이야기 공모전 입상
- 충남대 문학상 당선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가족창작시 입상
- 설악문우회원(갈매동인)
- 고성군 거진읍 거진 9리 6반

도루묵 찌개

김 종 현

그래

너도 한때는 은어라 불리우며
수라상에 오르던 시절도 있었지

‘도루묵이라 해라.’
임금님의 한마디로
너는 이름마저 바뀌고

고기가 흔하던 시절
밥상보다 돼지밥통에 더 많이 들어가더니
바다가 흉년 들어
빈 그물만 올라오는
지금
네 몸은 귀하신 몸 되었구나

자박자박 끓는 물 속에서
통통 알 뻥 몸으로 돌아눕는 너를 보며
선뜻 젓가락이 가지 못하는 것은



푸른 바다를 보지 못한
너의 알들과
비어 있을 그물에 대한
미안함.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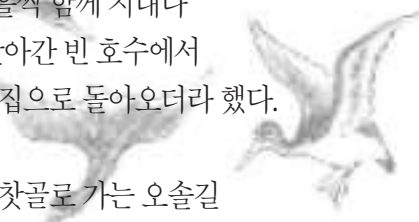
- 2001년 계간 '문학마을'로 등단
- 설악문우회 (갈매 동인) 사무국장
- 강원문인협회 회원
- 속초문인협회 감사
- 거진읍 거진 3리 거성초등학교 교사

화진포 찻골 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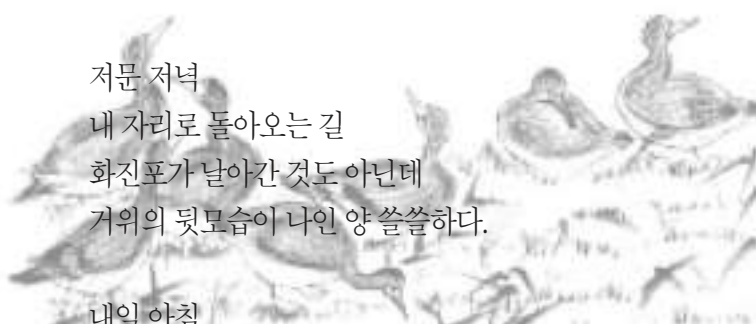
김 향 속



옛날 찻골 윤씨네 거위 한 마리
고니 때 화진포에 내려앉는 한겨울이면
집을 나가 그들과 어울려 놀았다한다.
때로는 사나흘씩 함께 지내다
고니 때 다 날아간 빈 호수에서
늦은 저녁 제집으로 돌아오더라 했다.



호수를 따라 찻골로 가는 오솔길
갈대 숲 산딸기덤불 밀어내고 찻길을 내더니
이발관에서 막 나온 남자처럼
말쑥한 화진포가 어쩐지 낯설어 보인다.



저문 저녁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
화진포가 날아간 것도 아닌데
거위의 뒷모습이 나인 양 쓸쓸하다.

내일 아침

고니 떼가 날아왔는지
뒤뚱거리며 나가 보아야겠다.

〈약력〉

- 2003년 계간 시현실 겨울호로 등단
- 설악문우회원(갈매동인)
- 거진읍 거진8리 거진애견샵

화진포 • 8

조인화

화진포 다리가면 돌 위에 앉아 있는 새 있다
오래 되어 같이 돌이 되어버린 새 꽃이 있다
칠백이십만평 땅은 수몰지구
물이끼 겹겹이 가라앉은 십육킬로미터
해당화 잎만 무성히 피워놓고 유월이 지나간다.
혁명을 얘기하던 노송들 콘도 앞에 서서
길손을 맞는데
꺾여지고 휘어진 세월의 비늘 더듬어 오르며
숲이 그렇게 창을 열어
북녘의 소식 같은 하늘이 여기도 있네
길 눈 어두운 그리움 물줄기 끌고 자맥질하는
한 낮 숲
갈대 숲에선 쇠비듬새 울음소리
꿈이 듯 생시이 듯
작고 예쁘다.

〈약력〉

- 설악문우회원(갈매동인)
- 거진읍 거진7리 취봉꽃집

친정

송옥주

천리라도 만리라도
가고 싶은 나의 친정
철없이 뛰놀던 내자란 친정
사계절이 지나도 따뜻한 나의 친정
아~ 아그립구나 내자란 친정
세월이 가고 또 가니
내 나이 어느새 장년이 되었네

꿈속에도 그려보는 나의 친정
철없던 그 시절 부모님께 꾸중듣던
그 옛 생각도 이제는 세월에
묻어버리고 내 마을 고향의
친정으로 달려가 보자

● 토성면 인흥1리

詩가 있는 乾鳳寺



임정숙
(시인)

복잡한 도시에서 사찰을 찾아나서는 것은 어느 누구와의 약속된 길이 아니어도 좋으리라. 더구나 그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반가움 또한 크리라.

차창으로 낮익은 능선이 들어옴에 길 떠나기 전 내안의 머뭇거림을 눈치챘던 해가 서산에 기운 채로 하루를 넘길 채비를 하고 있었다.

태어난 곳 가까이에 대사찰이 있음은 더없이 복된 일이라 하겠으나 한때 적화된 땅에서 아픈 상처기를 싸맨 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보듬고도 남음직한 산천이 꽤나 늠름해 보였다.

어느 삶이든 간에 고비가 있어 그 삶이 버거울 땐 능선은 험하고 가파르게 기쁨으로 충만할땐 넘쳐나는 부드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리라.

금강산 비로봉 양갈래 단발령 서쪽 안고개는 길 떠난 자의 허기를, 안문동쪽 바깥고개는 돌아가는 자의 공수래적 삶의 구도(求道)를 깨워주고도 남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늘 아쉬움으로 남는 길이어서일까 산사를 향한 속도가 점점 가해짐에 반가움보다는 길 위의 상실이 아픔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었다. 직선으로 잘 닦여진 길 위의 작고 빛바랜 것들이 새삼 그리웠다. 잘 다듬어진 것은 기어이 한 시대를 밀어내고야 마는 것이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올려다 보이는 내가 태어난 마을 옛이름 어령으로 넘어가는

가르마 낸 고갯턱을 외면한 채 육송정(六松亭) 홍예교에 탑고개를 넘고 보니 세상 밖으로 밀려난 외로움 위에 또 다른 외로움이 포개진 채 그 무게가 등 뒤 배낭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동족상잔의 6.25의 비극 속에 스님들은 차츰 절간을 떠나고 세월의 풍상을 겪을 대로 겪고 있던 사찰을 보다 못한 불자들은 본토 도량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으로 인등을 밝힌 것이다. 스물 넷, 소위 피를 동이동이 쏟아내고도 남은 나이의 자식을 적화된 땅에서 가슴에 묻고 마른손 비비던 옛 여인의 한은 비단 내 집안의 슬픈 가족사만은 아니었던 것을, 빼앗긴 땅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젊은 육신을 불구덩이에 던진 아버지, 내 유년도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했었다. 후일 내안의 쓸쓸함과 수선스러움이 그늘이 되어 준 탓일까 나는 가슴 아린 시절, 그 날의 풍광들을 시(詩)로 옮겨 놓아 세상을 향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름 없는 초라한 역에서도 한 나그네를 위해 기차가 멈추듯이 부처는 나를 위해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따스하게 품어주신 것이다. 뿌연 먼지를 일구던 신작로 위에 간간이 튀어 오르던 자갈돌, 땀이 맘껏 날아오르던 한가로운 산천을 세월이 업고 도망친 것이다.

묵언은 금물인 양 침묵조차도 오욕과 명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간다. 치성길에 다리푼이라도 팔아서 보시(布施)하던 일조차도, 두 눈 훤히 뜨고도 혜안(慧眼)이 열릴 리 없는, 뜬 눈을 감은 듯이 살아야하는 현실이 슬프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실천하던 사찰, 세조가 정사를 뒤로한 채 닷새간이나 머무르며 왕실의 원당으로 정하고 어실각을 짓게 했던, 전소되기 전 절간문(門)이 3,187여 칸이나 되었다던 곳, 신라시대 발징화상이 염불수행 하던 승려 31인이 들림을 받아 극락왕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키위해 세워진 등공대의 석조병부도탑을 다녀온다는 발길들이

간간이 이어졌다. 믿음이 갖는 실체가 불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리라.

사찰 안으로 들어서면 용의 해 첫날에 세워진 만해선사와 조용출님의 시가 비(碑)로 서 있다. 바로 5년 전 군관민을 비롯 2000여 불자들이 님의 쏜구처럼 췌녕쿨로 엮히고 설킨 채 간간이 뿌려지는 빗줄기 사이로 저마다 이마에 인등을 켜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날 님의 시(詩) 췌녕쿨을 낭송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이어 해강 김규진선생의 단아한 필체가 새겨진 불이문(不二門)이 전소되지 않은 채 옛 모습 그대로 중생을 맞아들이고 있었다.

소백산 줄기엔 사찰 부석사가 있음에 흐르는 물소리 또한 절경인 만큼 능파교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물소리가 퇴계 이황의 죽계수, 즉, 죽계구곡에 굽이굽이 흘러내림을 연상하리만큼 세차게 흘러내렸다.

때마침 능파교의 복원공사로 인해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신도들의 발길이 잠시 멈춰지곤 했다. 덩달아 내 발걸음도 멈춘 상태에서 수년전 행자스님의 말을 떠올려 보았다.

능파란 여인, 또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비유한 말로 고해를 건너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라고, 하얗게 핀 망초꽃에 머물 생각없이 사심없이 길 떠나는 물을 보며 흘러가는 것은 물이 아닌 해탈이려니 라는 생각에 만해선사의 해탈에 관한 시 한편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우리라」고 선사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사는 어지간히도 어리석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긴 아파도 그 줄을 끊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줄이 단단히 얹혀 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얹는 사랑의 줄이 약할까봐서 나의 님은 사랑하는 줄을 곱으로 드렸습니다”

—만해詩 선사의 설법—전문

어찌보면 큰 배려에 가까운 사랑 또한 속박일 것이며 선사께선 체험공간의 원형을 탐색하시고도 남을 바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 나는 좀체 떨어지지 않는 걸음새를 회한과 더불어 풀어 놓고 있었다.

“달은 소나무위에 걸리우고
바위가 있음에 물소리 요란타
저리 소리내어 우는 것은
가난과 나와 모두가
구도(求道) 안에서 숨을 쉬라는,

능파교 아래 물소리
욕망 밀어내지 못하면
심히 요란케 들리우고
심성 고우면 맑게 들리우고
물 같은 마음 물 같이 살고 싶어
공기 한 점 바람으로 승전해서
날르는 물이여
빈 바람 줄기에 세상 욕심 덧없음이여!”

—졸詩—능파교 물소리—전문

불이문에 들어설 적에 본 촌로가 물에 손을 담군 채 망초꽃에 눈을 던지고는 일어서질 않았다. 몇구비나 고해를 건넌음일까 절로 던져지는 내안의 질문에 마침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서며 나를 향해 말을 건넸다.

“물소리가 예 같지 않아” 라고.

가지런히 놓여진 돌계단을 밟아 올라 부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돌아나와 방생탕에 이르렀다. 이름 모를 노오란꽃들이 제작은 몸체로 갓 피어난 연꽃을 에워싸고 있었다. 마침 개구리 한 마리도 어디쯤에선가 울고 있었다. 숨어서 우는 개구리의 울음에 순간 앞서 말한 행자스님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는 반사요법이라.

“살기 좋을 때 죽을 짓 하는

죽을 때가 되서야 살 짓을 하는”

나를 숙연케 하는 것이 어디 개구리 울음 뿐이라

물의 합일 떨어지는 얇은 계곡 아래서 참하게 핀 어린 꽃이 보는 이 없이도 수줍게 피어 있었다. 물풀은 물풀대로 서로 감긴 듯 조를 이루어 떠있고 여러다 못해 아린 모습의 이름 모를 꽃들은 저 혼자 피었던만 사람들은 그저 바빠 스쳐지날 뿐이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산아래 사찰은 바다를 품고 선 채로 부드러운 능선을 어둠에 감출 채비를 하고 있었다.

범종각 너머서부터 어스름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법당 안의 고요가 더 큰 고요를 불러들여 하늘엔 온갖 그리운 것들이 별이 되어 돌아나고 있었다.

내가 놓아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움 또한 집착할수록 저리 돌아나는 것이리라 그리움 없이는 연민 또한 없으리니 하늘은 온통 은가루를 쏟아 부은 듯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런 하늘을 이고 앉아 있는 봉황탑 위의 봉황새가 날아오를 생각 없이

사찰 지킴이로 앉아 있었다. 목숨조차도 거부한 채 생명이 없음에 비로서 묵언할 수 있는, 빈 바람 즐기마저도 벗어던진 채 차가운 목숨의 아미타불, 그 석주 아래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내뺄듯 사심없이 달아나는 바람 줄기가 불이문을 벗어나 부도전으로 향함에 떠밀려 나가듯 따라 나간 나는 한참을 독불장군처럼 서 있었다.

어둠속에서 놓친 차편을 아쉬워하는 내 앞에 불 밝히듯 서 있는 원추리 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순간 나는 중얼대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바로 여기 이 자리였어.” “여기쯤이었다구.” 반가움에 원추리 꽃을 덩싹 잡아볼 양으로 가까이 가서 보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맘때 내 할머니가 마른손 비비던 곳. 그 등 너머의 시간이 이렇게 꽃으로 다시 피어나 나를 기다리고 섰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솟았다. 치성을 드리던 할머니 등 뒤에서 지루함에 저 가녀린 꽃대만 훑어내린 것을, 차편을 놓친 것이 잘 된 일이라며 고즈넉한 시간 속에서 나는 전소된 채 절도 없는 절 땅에 대고 마른 손 비비던 내 할머니를 나즉히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맘때 난리가 가고나서
할미는 눈 붙이기전 몸 닦으시고
베옷 손질해 머리맡에 두시고
나는 종일 뽕이나 따 먹던 입술 문대고
돌중도 돌아앉아 돌배나무 끼고 돌아
바튼 걸음걸이로 외갓집 동네 지나
문수고개 턱 아래 고개가 너무 높아
발버둥질로 울었다.
어린꿩은 애비꿩 애미꿩

잘도 따라 날으는데 나는 부러움에
애틀한 돌팔매질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급한 할미는 철조망 너머
절도없는 절땅에 대고 치성들이는데
나는 원추리 꽃대만 훑어 내리고
다 자란 지금 할미 되어 고개 넘으니
새로 선 절에선 아미타불 소리 들리나
어린 꿩도 날지않고
그때 쳐 놓았던 철조망 나혼자 넘고
그 돌 집어들어 내 가슴팍에 던진다.

시집 - 건봉사 가는 길 중에서-“할미와 건봉사”-전문

눈먼 세상을 뒤로한 채 돌 앉아 핀 원추리 꽃과 그맘때 할머니도 만나보
았으니 돌아가리라 발걸음을 재촉하였으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마치 운
무처럼 감겨오는 답답함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채 뻗어있는 육로로 가는 길이 정전도 휴전도 아닌
끊어진 역사 앞에 누워있는 것이다.

금강산은 민족성을 닮아 빼어난 자태로 서 있을진대 해금강 푸른 물살
은 쪽빛으로 흐를진대 동강난 국토를 볼 수 없는 서러운 사람들, 정든 산천
초목을 깨치고 돌아서서 뒷걸음으로 떠난 이들은 어린 풀잎마저도 이리
고운 것을 차마 어찌 두고 갔을까. 이곳에 남아 혼자 보는 것은 차라리 슬
픔보다 더 큰 죄스러움일진대....

통일은 와야 한다. 이 사찰 금강산 줄기이니 부처도 오직 한 분이시니 염
불외듯 가슴에 일어나는 불꽃을 소원하며 외쳐댔다.

“금강산아! 일만 이천봉
 무양하나 금강산아!
 너는 너의 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너의 님은 너 때문에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온갖 종교, 철학, 명예, 재산 그 외에
 있으면 있는대로 태워버리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너는 꽃이 붉은것이 너냐
 너는 잎이 푸른것이 너냐
 너는 단풍에 취한것이 너냐
 너는 백설에 깨인것이 너냐
 나는 너의 침묵을 잘 안다
 너는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종작없는 찬미를 받으면서도
 시뻘 웃음을 참고 고요히 있는 줄은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너라도 천당이나 지옥이나
 하나만 가지고 있으려무나
 꿈 없는 잠처럼 깨끗하고 단순하란 말이다.
 나도 짧은 갈궁이로 강 건너 꽃을
 꺾는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하려고 한다.
 너는 너의 입김에 흘러오는
 조각구름에 입 맞춘다.

만이천봉! 무양하냐 금강산아!
너는 너의 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만해詩 금강산—전문

끊기는 맥을 간간이 이어가며 스스로를 달래 본 것이다 말씀대로
“꽃이 붉은것이 너냐”
“잎이 푸른것이 너냐”
“단풍에 취한것이 너냐”
50여 긴 세월 이렇듯 미로 속에서 기다려야하는가
이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또한 부처께 소원해야 하리.
마다할 수 없었던 길 떠난 나의 하루가 시간의 쳇바퀴에 물려 겨우 얻어
탄 차의 차창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잊혀져갈까 늘 두렵기만한 내 유년의 풍광을 나는
길 위에 놓인 푸른 도화지에 눈을 감은 채 그려 놓고 있었다.

“해마다 원추리꽃 피는 뜨락에서
밤새 발길 재촉해 걸어나온
달로 서 있는 나
동이째 이고가던 구름 산정(山頂)이
가져다 머리에 이었다. 적요 하나를
그 고요를 깨뜨려 더 큰 고요속으로 들어가
사리같은 울음 토해내는 밤부엉이
영 너머 집생각에 괜한 소리질러
제소리에 놀라
냉천골 참샘리로 내리뛰는 동자승

“매야 매야 어디로 가니”

“이산 저산너머 내 집 찾아가지”

설산스님 노심초사에 하루 해 기울면 건봉사 가는 길 문수고개 길 따라
원추리꽃 붉은 사리 길 늦은 땅거미도 제 집을 찾아 간다.

-98, 월간 문학 “건봉사 가는 길”-전문

<약력>

- 강원도 간성 어천리 출생
- 광산초교 재학 양양초교 졸업
- 동국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수학
- 문예중앙에 시 발표와 동시에 월간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 98.2월 양양군청으로부터 명예군민패 수여

<작품집>

- 시집으로

“언어를 위하여”

“남대천 언어를 위하여”

“건봉사 가는 길”

- 장편소설

“누군들 연어가 아니라”

- 그 외 황금찬, 박이도 시인과 시동인지

“겨울야외수업” 과 동국문집 “문향” 등이 있음

- 현재 한국문인협회 국제 펜클럽 회원으로 활동 중임

화진포(花津浦) 사랑

徳田이응철
(수필가)

오래 전의 일이다. 도시 근교 중학교에서 여고로 발령을 받고 내 칸에는 가슴 부풀어 달려가보니 학생들은 대학입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녀석들은 시내 학교에 점수가 못 미쳐 변두리로 밀려온 녀석들이라 의욕이 없이 그야말로 놀자 주의였다.

지금처럼 소질계발 프로그램도 없이 인문계 흉내를 다 내야하니 한심했다. 학교에서는 솔직히 학력보다는 사고예방에 더 급급했다. 담임을 맡았다. 녀석들은 복도에서 헛내기 총각선생만 보면 “야! 저건 내 꺼야, 건들지 마.” 라고 떠들어대니 말만 여학교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날부터 녀석들에게 공부보다 문학을 접목시키는 교육을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특별활동 문예반을 자원하고 보니 너무 운문이 부족해 시집을 쌓아놓고 밤늦도록 공부를 하곤 했다. 감상이고 뭐고 그냥 외우다시피 했다. 아이들에게도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암기하고 레슨을 받았다. 여학생이라 선호했다. 갑자기 버스 안에서, 화단 가에서, 화장실에서 떼아닌 시 암송 붐이 거품처럼 일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시집을 섭렵하던 어느 날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잘못 봤나 하고 눈을 비비고 확인했지만, 귀가 닳도록 들은 섯귀가 나를 외락 껴안는 게 아닌가! 시인

조병화님의 시였다.

눈에 보이 읊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 읊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 하 읊는 저 세상에
혹, 떠나신 지
어언 수 삼 년
당신의 말씀 그 목소리

애! 너 뭐 그리 생각하니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다
슬픈 거, 기쁜 거
너대로 다 그냥 사는 거다
잠깐이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교직 생활 30년-, 초임지는 은빛 파도가 찰랑이는 동해안 최북단의 작은 초등학교였다. 당시 영을 넘어 가려면 완행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로 종일 가야했다. 그런 험준한 영을 마다하지 않고 발령장을 들고 간 것은 한창 그림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이젤을 걸머지고 해변을 서성였다. 린시드유로 얼룩진 가운을

해풍에 나부끼면서 바다를 그리고, 등대를 그리고, 수평선을 그렸다. 주말만 되면 미술반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화진포로 그림 그리러 간다. 떠가는 배에 손짓을 하고 해풍에 머리칼을 나부낀다. 노래를 부르며 비릿한 덕장을 지나 화진포로 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서 중앙여고를 나온 처녀 선생이 부임했다. 청순했다. 오빠가 만화가였다.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이 작은 학교에 십시간에 퍼졌다. 여선생은 문학을 좋아했다. 처녀, 총각 선생은 둘 다 내륙 지방 출신이라 토요일만 되면 어느새 아이들과 해변으로 달려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축광으로 나가 계를 잡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선생이 말 끝마다 즐겨 쓰는 말투였다.

-그래, 사는 거야! 그냥 사는거야! 라는 말이었다.

그래,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선생님! 저 그전에 있던 꿈 다 버렸어요. 시골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런 곳에서 폭 파묻혀 그냥 살고 싶어요.

언젠가 바닷가를 걸으며, 해변을 마구 질주하며 내게 묻지도 않는 말을 했지만, 당시 나로서는 그것을 해석할 나이가 못 되어 관심 밖이었으니-.

집들이 게딱지처럼 모여있는 해변은 사계절 고기들이 육지로 올라와 하얗게 뱃가죽을 드러내고 일광욕을 즐기며 바닷속의 신비를 늘 꼬맹이들한테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영덕 계를 좋아했다. 어린아이처럼 잇몸을 환히 드러내고 천진스럽게 웃는다. 이 명숙! 빠알간 입술 같은 게 다리에서 하얀 맛살을 꺼내 먹으며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던 여선생!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로 환경정리를 같이 하던 여선생!

서울 태생인 그녀는 철 따라 피어나는 낭만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감수성이 예민했다. 청보리가 꽤는 보리밭에서, 또는 괴목을 발견하면

달려가 Y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달고 다녔다. 그때마다 나는 그럼 그냥 살지 뭐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언어를 했다.

그 후, 도시로 전근을 간 후에 바닷가 소식을 접할 때 그녀는 떠나고 없었다. 사표를 던지고 서둘러 상경했다는 소문만이 잡초처럼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그 후 다시 대학을 마치고 여고에서 조병화 시집을 읽다가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다 라는 말을 찾아냈으니 맹아기 때 그 회한이 얼마나 컸을까?

뽕얀 정갱이를 살짝 가린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꼬마들과 해변을 마구 달리며 조개껍데기를 줍던 여선생-.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한창 스케치를 하고 있는 내게로 다가와 응석을 부린다.

“선생니~임, 여자랑 있을 때 그림 그리면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며 애꿎은 모래성만 쌓고 다시 허물기를 몇 차례 하던 그 선생, 너무 답을 외면하던 나의 서툰 몸짓-.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장거리 전화가 답지한다.

차집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어느 잡지에서 여고 때 외운 시가 난다고, 허리가 절구통 만한 애 엄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건다. 그럴 때면, “그래! 만신창이가 된 나 역시 사는 거다, 기쁜 거, 슬픈 거 다 그대로 살고 있어” 라고 답을 한다.

청색 시절-. 내 화단에 사랑을 가득 심어주고 떠난 그 여선생! 이제야 겨우 문학에 입문했는데, 그녀는 30년 전에 벌써 명시를 줄줄 외우며 그냥 사는 거라고 생을 노래했으니-. 지금도 화진포는 둘 만의 발자국들을 고이 간직한 채 바다는 호수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

-2004년 다시 한마리의 연어가 되어 대진고(大津高)에 근무

약력

- 49년생. 춘천산
- 김유정 문학공모 최우수
- 강원일보 신춘문예 입상(동화)
- "수필과 비평" 신인상
- 양록제 문화예술부문상 수상
- 전국 환경보전 생활수기 우수상

고성 일기

신 준 철
(동광농공고 교사)

-에필로그-

가끔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홀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東海바다가
엮어지면 코 닿을 곳에 펼쳐진 바닷가에서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남들은
혼자가 아니라서 덜 외로울 거라
쉽게들 이야기 하곤 했지만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외로움의 시작이었다.

또한
넷의 외로움을 더해보니
우린 저마다 네 곱절의 외로움을 지니고

생활한 듯싶다.

-병설 중학교

행정구역상으로는 학교주소는 고성군 토성면이지만
학교 후문을 나가 길을 건너면 바로 고성군 죽왕면이 시작된다.

또한 동광농공고는 병설인 동광중학교와 같은 울타리에 위치해 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진입로 옆으로 운동장이 위치해 있고
중학교 건물과 고등학교 건물이 앞뒤로 위치해 있다.

-7번국도

모처럼 잠을 내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죽왕 우체국
엘 다녀왔다.

우체국 가는 7번 국도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송지호> 라는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한가로이 바라보니 그제야 내가 바닷가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천학정

이곳 고성은 언제나 별들이 가깝고도 밝게 하늘 촘촘히 비추이고 있고,
저녁이면 바닷가 특유의 찬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아침 운동도 할 겸 처음으로 바닷가로 나가 해 돋는 광경을 보려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인지 날씨가 흐려 일출은 못 보고, 밤새 잡은 고기들을 경매

에 내 놓으려 바쁘게 준비하는 어민들의 손놀림을 싱싱한 고기와 함께 감상하였다.

이곳 고성에는 경치가 뛰어난 정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청간정>이고 또 하나는 <천학정>인데 오늘 운동하러 간 교암에 위치한 정자가 바로 <천학정>이라 한다.

-고성의 아침 풍경

고성에서의 4주를 보내면서 어느덧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서인지 6시반이면 눈을 뜨게 된다.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밥을 안치고, 방을 끌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서로를 깨우고.....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면 3~40분쯤 여유를 가지다 관사를 나서서 학교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싱그러운 바람은 마음마저 상큼하게 만드느라 보다.

적당히 쌀쌀함을 가지고 얼굴에 와 닿은 바닷가 특유의 내음을 머금은 바람, 어쩔 그 바람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낮섬을 느끼는 건 아닐까 싶어진다.

-고성의 점심 풍경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3월이면 선생님들에게 할 일이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3월이 마치 영원히 만나지 못할 철로처럼 해야 할 일과 해놓은 일들로 평행선을 그려 놓는다.

그 와중에 잠을 내어 녹차 한 잔을 마시고 교무실 밖으로 펼쳐지는 봄 햇

살이 너무 정겹게 느껴져 교정을 걷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문득 정원에서 두 그루의 목련을 바라보게 된다.

하얀 목련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자색의 꽃을 피우는 자목련이 서로를 닮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겹게 인사를 건네는 학생의 목소리에 문득 따뜻한 봄 햇살을 닮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고성의 저녁 풍경

자꾸 나오는 뱃살을 빼려하기보다는 외로움을 잊으려 운동장을 달린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을 흘리며 비로소 안정감을 찾지만 교정 곳곳에 스며드는 어둠에 또다시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밤 파도처럼 밀려온다.

스스로에게 약속한 열 바퀴를 헤아리면서 가쁜 숨을 고르고자 고개를 들어 흘끗 바라본 하늘엔 여자의 눈썹처럼 예쁘게 그려놓은 듯한 초승달과 그 아래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작은별 하나가 다정한 연인같이 밀어를 나누고 있다.

-자장면집 순례

함께 있는 두 선생의 모임으로 남은 단 둘이 저녁을 해결하게 되어

오늘 저녁은 죽왕면 공현진리에 짬뽕을 잘한다는 중국집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상호를 몰랐지만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못 찾을까보냐는 생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순례한 끝에 간신히 찾았는데, 아뿔사! 애써 찾은 보람 없이 상중(喪中)이라는 안내쪽지가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

해물 특히 오징어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아쉬움 때문인지 절로 입맛이 다셔지고 순간 침이 꿀꺽 넘어 갔다.

-미시령

두 달여를 오고 가면서 봄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미시령의 길은 초록을
어제도 감탄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며 넘어 왔는데 오늘 아침 TV에서는
어젯밤 갑자기 내린 폭설로 미시령이 통제되었으며 폭설로 인한 낙석이
무려 50톤이나 발생되었다는 보도에 어안이 병병해진다.

-아카시아와 해당화

관사를 나서 후문을 열고 토성면과 죽왕면의 경계가 되는 길을 따라 짧은
시간동안 산책을 한다.

길옆을 따라 나무마다 아름답리 활짝 꽃피운 아카시아 향기가 진하게
코를 자극하고 독을 따라 피어난 진분홍빛의 해당화가 고성의 아침을 활
짝 열어 놓는다.

-봄 소풍

상큼한 아침,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마시며 관사를 나서니
따사로운 봄 햇살이 양증맞게 다가온다.

오늘은 남들이 수학여행으로 가는 설악산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다.

-설악산

햇살 좋은 5월,
들꽃 향기 진한 5월,

일년 중 가장 다양한 꽃을 피운다는 5월,

연둣빛 신록의 숲은
어느새 짙푸른 녹음으로 바뀌어
봄꽃들을 활짝 피워놓고
청량한 아름다움이 설악에는 지천이다.

-백도

저녁식사를 하기 전 넷이서 운동도 할 겸 산책을 나선다.
오늘은 해변을 따라 문암리에 위치한 백도로 행선지를 결정한다.
초소에 초병들이 근무를 서기 전이라 초병들의 이동로를 따라 처녀림의
백사장을 밟는 행운을 누리며 걷는 백도항으로 일몰이 마치 일출처럼 장
관으로 펼쳐지고, 방파제에는 낚시하는 사람들과 긴 꼬챙이로 해변가로
밀려드는 문어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촌부를 배경으로 석
양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다.

-5월의 바다

천진의 두부 맛이 일품이라기에 두부를 사러 아야진에 위치한 슈퍼에 갔
다가 내친 김에 비 오는 바닷가를 순례한다.
가까이 아야진, 교암, 문암, 백촌항이 7번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고 5월
의 바다는 날갯짓을 멈추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이젠 봄 바다라 하기
엔 오히려 계절을 성큼 지나 바다는 저만큼 여름을 향해 있다.

-빨간 우체통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의 식당 옆에 위치한
간이 우체통으로 편지를 보낸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느낌이 참 좋다.
더구나 빨간 우체통은
보내는 이의 마음을 붉은 장미처럼 물들여 놓는다
그래서
우체통은 영원히 빨간색이어야 할 듯싶다.

-아아진

저녁 식사를 하고
아아진까지 걸어 보자는 의견에 모두들
힘들지 않느냐는 표정이다.
그래도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실감이 더 앞서는지
주섬주섬 운동복 차림을 갖추는 모습에는 비장감마저 서려 있다.

관사에서 아아진은 생각보다 꽤 먼 거리였다.
한 시간 남짓 걸어서야 아아진 항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다리는 아파왔지만 7번 국도를 따라 시원한 밤바람이 지친 발걸음을 가
볍게 해준다.
멀리 수평선에 맞닿아 점점이 박힌 오징어 집어등이 해안에 가까워 오

자 마치 해안도로의 가로등처럼 끝없이 펼쳐지고 그 빛으로 인해 7번 국도를 비롯해 온 사위가 아침을 맞이하듯 희뽀히 밝다.

-진부령

많은 비로 인해 진부령은 3월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가까운 혹은 먼 산의 운무가 계속 이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황토 빛을 띠고 거침없이 넘쳐 웅장함이 느껴진다.

진부령을 벗어나자 비가 멈칫거리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이 너무도 선명하다. 마치 상큼한 풋과일 내음 마냥 마음속까지도 온갖 시름을 떨쳐 버린 듯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비 그치면 계곡이 한껏 푸르러진 산의 모습을 오롯이 담고 힘차게 흐르리라. 여전히 도로는 비에 젖어 있고 길게 펼쳐진 강엔 물이 넘치니 강이 강답다.

-가진항

오랜만에 가진항엘 들러 물회에 소주 다섯 잔 정도를 마시고 나니 몸과 마음에 비로소 여유가 찾아든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 병을 더 시켜 몇 잔을 더 마시고 나니 그제야 멀리서부터 밀려드는 파도를 쫓아 싱그러운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피곤한 날갯짓을 멈춘 갈매기는 가진항에 정박된 배 위가 제집인 양 너무도 한가롭게 앉아 있다.

-설악수련원

고성과 춘천을 오고가면서 수없이 지나쳤던 설악수련원으로 야영 인솔을 와있다. 첫 날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려 일정에 차질을 가져 올까봐 노심초사 하였는데 오늘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로 오히려 눈이 부시다.

모처럼 일손을 놓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속에 들어 앉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바라보니 내몸과 마음도 청아한 가을처럼 싱그러움으로 가득 채워진다.

-추억의 도시락

월요일 저녁 식사는 늘 푸짐하다. 서로가 싸온 반찬을 식탁에 다 올려놓고 반찬 가지 수를 헤아리는 재미와 함께 간혹 같은 종류의 반찬을 이 맛저 맛 따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반환점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반찬이 하나둘씩 떨어져 가면 그때부터 서로의 요리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오늘은 함께 있는 한 선생이 조카 결혼식 참가로 떠나 셋이 남아 저녁을 먹어야 했다.

계절도 겨울로 향하고 있고 옛 추억도 살릴 겸 저녁에는 김치볶음밥을 하자는 제의를 하니 모두들 대환영이다.

김치를 깔고, 멸치와 참치, 남아 있던 오징어 젓갈과 창란 젓갈 그리고 무생채와 깍두기를 잘게 썰어 넣고 그 위에다가 마늘과 파도 송송 썰어 넣고

푸짐하게 밥을 엮고 밥 중간중간 참호를 파서 고추장을 듬뿍 묻고 들기름을 고루 치니 한참을 지나자 방안 가득히 그럴싸한 냄새와 함께 옛 학창 시절 난로 위에서 달그락거리던 김치 도시락이 떠올려 진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밥을 했는 데도 한 톨 남김없이 맛있게 먹어 치운 우리는 오늘부터 김치 볶음밥 메뉴를 <추억의 도시락>으로 부르기로 한다.

-첫눈

겨울도 이곳 바닷가에서는 소리로부터 오는가 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처럼 따뜻하던 날씨가 오늘은 훽훽한 바람소리를 동반하여 속살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덤으로 가져다준다.

때문인지 흰 겨울을 알리려던 첫 눈도 일정한 방향 없이 공중곡예를 하며 훽날린다.

어느덧 내 맘 속에도 겨울이 들어 왔는지 문득 가슴이 시려온다

-도치두루치기

함께 있던 선생이 며칠전 우연히 TV를 통해 고성 8味를 소개하는 프로에서 보았다며 <도치두루치기>를 먹어보자고 제의한다.

을씨년스러운 겨울비가 내리고 날씨는 옴팡지게 추워져 가는데도 우리는 거진에 위치한 한 식당을 모든 채널을 동원해 물어물어 어렵사리 찾아 심통이라고도 불리우는 <도치 알탕>을 맛보는데 성공했다.

-눈 내리는 도원리

오랜만에
눈싸움두 하구
어렸을 때 났던
하얀 눈 위로
동심에 빠져든다

눈이 발목 째
폭폭 젖어든다.

-미시령의 눈

새로운 학년도를 설계하는 업무분장이 있다하여 2월 들어 두 번째로 미시령을 넘어 고성으로 향한다. 미시령 넘는 길에는 일주일 전 엄청나게 퍼부었던 그 많던 눈이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져 있다.

다 녹은 것일까? 생각을 비웃듯이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 있는 눈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듯, 담벼락처럼 미시령을 따라 펼쳐져 있다.

마치 백설기를 쥘 놓은듯...

약력

- 동광농공고등학교 교사. 시인
- 풀무문학 동인
- <시집> 하늘은 참 맑던데(95)



인연(因緣)



황연근
(속초여고 교장)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심인 향로봉 기슭 아래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동해의 푸른 바다를 기상 삼아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하다하여 옛 고구려 때부터 하늘 뜻이 있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 지금의 고성땅이다.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둘러 쌓인 고성은 하늘을 만드느라 천인들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으로 이름난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찌 고향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옛말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말로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일을 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뜻으로 온 천하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인 것 같다.

우리는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님을 항상 잊지 못하듯 고향이라는 두 단어도 언제 어디서나 잊어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 천륜의 인연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살던 고향 마을 초계천에는 어려서부터 동네 마을의 어귀뜰에 클로버가 많아 동네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소꿉 장난으로 클로버 놀이를 즐기곤 하였다.

클로버의 번식은 그 꽃술에 날아드는 꿀벌들의 덕택이요, 꿀벌은 들쥐가 많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법이다. 결국 들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많아야 클로

버도 번성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은 대 자연속의 모든 생명체에도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이나 밭에 밟히는 풀 한 포기, 마주 잡히는 옆 사람의 손목 마디에도 끊을 수 없는 血流가 흐르고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인간사 모든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고향의 모든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인연은 끊을 수 없는 필연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을 종교성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과학적, 합리성마저 지녔다고 보고 싶다. 우리의 얼과 몸은 거름이 되어 새로운 얼과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나 예수, 아니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들이 마셨다가 내 뿜은 공기를 오늘 우리는 살아서 호흡한다. 어느 누구도 한 평생을 『나』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산수 화려한 내고장 고성에서의 인연을 더욱 자랑삼아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의 뿌리를 귀히 여기고 아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해 본다.

우리는 가끔 독불 장군식의 인생이 아닌지 반성해 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더욱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 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육상선수가 바통을 놓쳐서도 안 되고 끝내 거머쥐고만 있어도 안 되듯 우리는 다 함께 이 기심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얹히고 도우면서 人生이라는 한 구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향의 인연을 맺으며 통일의 길목이 확 트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의 땅 고성의 발전을 빌어 본다.

분단의 아픔, 실향의 땅에서 쓴 詩

김춘만
(시인)

분단의 땅 고성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란 나의 눈에는 실향민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이웃들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렇게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인데도 세월은 멀쩡하게 반세기가 넘어가고 그분들 고향을 지척에 두고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듯 했다. 이 분단의 현실을 내가 어찌 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소리 없이 사그라지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문학을 하는 나의 몫이라 생각되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발표했던 몇 편의 관련 시를 소개하면서 실향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실향민들의 공동묘지에서 쓴 시가 ‘장지에서’였다.

겨울이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어두운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운구하는 사람들, 뒤따르는 조문객들 모두 말이 없었다. 함께 월남하여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홀로된 미망인과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한 점 흔적인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그는 떠났다.

산등성이로 천천히 오르는 장례행렬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때 월남하여 한 많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담은 나이 지긋한 피난민 1세대들 뿐, 힘깨나 쓸 젊은 사람들이 없는 장례 행

렬이었다.

장지는 꽤 높은 등성이에 마련되어 있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했던가. 양지 바르고 가까운 곳부터 채워지더니 이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터를 잡을 수 있다. 함께 한 조문객들은 모두가 친동기간 같던 고향 사람들, 한때는 서러워 소리치며 울기도 했으나, 이제는 눈물도 말랐는지 아니면 체념인지 묵묵히 실향의 ‘한’을 묻고 있었다.

葬地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천천히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함경도 학성 학남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강원도 속초 장사동으로 떠내려왔다.

그 언제런가.

한 번 닫힌 땅문은 까닭 없이
열리지 않는 빗장 지른 세월
어찌다 생면부지 이곳에 밀려와
퍼렇게 얼어버린 손등 위에
속절없이
평평 눈물 같은 눈은 내리는데
왜 이리 안개만 가득한가.
흐려진 시력을 문지르며
산허리 올라서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군데군데
저마다 말 꽃을 피우며
모닥불을 올리는데
그 위를 하얗게
재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실향민들에게 명절은 즐거운 날이 아니다.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명절이지 갈 곳도, 올 사람도 없는 명절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명절날에는 더욱 취했다. 고향이 그리울수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술을 마시는 일 뿐이었다. 그렇게 몇 해를 버티시더니 박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토록 가고 싶던 고향을 갔을 것이다. 설 쇠러 가듯, 정월 초하루에.

설쇠기(2)

기사년 정월 초하루
여든 네 살의 박 할아버지
귀향했다.

서지도 눕지도 못하던 고통
조용히 사그라뜨리고
면사무소에서 양식 대준
거택 보호자는 가난과도 떠났다.

혀가 굳어 말도 못했는데

떠나기 직전에 말문도 트여
죽도록 고생시킨 할멈 걱정도 하고
한 점 혈육 떨구지 못한 건
아쉬움도 없이
그 노구가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귀향했다.

강원도 통천땅이 고향인
기업가가 공개적으로 귀향하여
수많은 말들이 뒤범벅인 때
이슬 내리듯 소리 없이
한 장 종잇장 날리듯 가볍게
그렇게 박 할아버지
소문 없는 귀향했다.

처가는 월남 가족이다. 장인은 성진, 장모는 단천 분인데, 북에 부모, 형제를 두고 두 분만이 1.4후퇴 때 월남하셨던 것이다. 뿐인가, 북에는 일곱 살짜리 아들을 두고 오셨다는 데 그 사연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분단의 아픔, 실향민의 애환을 시로 쓰게 된 것도 그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성진 바다

성진이 고향인 장인께서 돌아가셨다.
평생 고향 찾다가 가신 분이었기에

쓰러지신 자리에는 바다 넓은 성진이
떠오를 만 했다.
오 십년 기다린 귀향이 이렇듯 갑작스럽다는 걸
누가 소리쳐 알려주지 않아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받아드리고 있다.

일흔 다섯 동갑이 울고 있다.
함께 월남한 아야진 아저씨는 성진 고개 너머
외진 마을을 펼쳐놓고 꺾꺾 우셨다
그런 울음은 참이었다.
살점이었다가 뼈가 되는데
그것이 가슴에 닿으면 바다가 되어 출렁거렸다.

복에 둔 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땅에 수북한 딸들
방북신청서 만들 때 찍은 근사한 사진 앞에 썼고
옆드려 술 한 잔 부어놓고
일어나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은
촛불 아래 출렁이는 바다를 만나는지
눈빛 점차 아득해라.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 장모께서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셨다. 눈가
가 항상 젖어 사셨는데 결국 장인께서 고향에 못 가보고 돌아가신 게 그렇
게 억울했던가 보다. 더도 말고 고향이나 한 번 뵙아보자는데 ‘적십자회
답’이니 ‘방북신청’이니 실낱 같은 희망에 매달리게 하다가 참으로 많은

분들 세상을 뜨게 했다. 누구의 책임이요? 하면 손들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욤나무에서 고욤 빠지듯이 힘없이 그 분들은 세상을 떠나신다. 이런 세상은 분명 좋은 세상은 아닐 것이다.

장모님

산, 바다, 호수가 있고 싱싱한 헛감이 많다고 모두가 이곳을 살기 좋아하여도 끝내 이곳에 정 붙이지 못하고 고향만 그리운다. 한도 서리다 주저앉아 웬만하면 잇을 날도 있겠는데 처 고모부 가시고, 장인도 가시고, 모두가 떠나신 이 땅을 거저는 못 떠나시겠다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읊디다. 일곱 살 아들이 눈에 밝힌다고 평생을 보이지 않던 울음 이제서 터뜨리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장모님 달래줄 세상은 오지 않고 바라보는 이 땅의 자식들만 애가 탑니다. 바다 없어도 산이 없어도 좋습니다. 장모님 살고 싶은 곳에서 하루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탕 같던 날들 가볍게 말려서 훌훌 털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보면 보고싶은 사람 보지 못하고 가고싶은 곳 가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산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소리는 낮아서 무심하면 지나치기 쉽다. 실향민들의 공동묘지, 원적지를 비문에 새겨놓고 잠들어 있는 원혼들이 이 땅에서 겪은 애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여 목소리 높이지 않았다. 가슴으로만 울었던 것이다.

산 울음

몸을 낮추어 둘러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 산은

스치기 쉽다.

목소리 낮추어 산을 불러 보아라.

더 작게

산의 대답이 들려 올 것이다.

큰 산 가득 차 오르는 산 울음보다

조용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너무도 조용하여

산을 덮고도 없는 듯 하여라.

휴전 45년 만에 속초에서 북으로 가는 배가 났었다. ‘카타마란’ 호. 신포양화항으로 양수발전소의 기술자와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출항한 첫 배였다. 그 후 금강산 여행길이 열렸고, 많은 남북 교류활동으로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느 배, 어느 차에도 고향 가라고 싣향민들을 태우지는 않았다. 싣향민들이 가고 싶은 자기 고향을 가지 못하는 한, 저들의 삶은 뼈가 그리던 땅에 뿌려지지 않는 한 우리 이웃의 ‘애기’는 끝낼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금강산 유람, 백두산 관광이나 했다고 풀어질 ‘애기’도 아니고, 그러자고 애절한 마음으로 반세기나 기다린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中國旅行 白頭山(백두산) 探訪記(탐방기)

최선희¹⁾

2005년 9월 3일 5박 6일 일정으로 관내노인들 84명을 대동하고 중국 백두산 여행의 길을 떠났다.

버스 2대에 분승하여 우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여권수속을 모두 마치고 대인훼리호 여객선에 몸을 싣고 선상 1-2층 침실에 누워 망망한 대해를 13시간이나 항해한 끝에 중국땅 대련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로 가면 2시간 남짓 걸릴 터이지만 대다수가 70세 가까운 노인들이라 삼다도 여행사의 노인관광 상품으로 49만 7천원의 경비로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기에 여객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대련항은 비교적 잘 정돈된 항구로 비쳐졌다. 주변이 깨끗하고 고층빌딩이 많이 보였다. 대련은 중국사람들이 중국에서 살고싶은 도시 중에 2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있는 도시이며 동북 3성의 관문으로 제2의 홍콩을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 대련에는 크고작은 광장이 50여개나 된다고 한다.

대련에서 심양으로 가는 4차선(왕복 8차선)고속도로는 5시간 달리는 동안 평탄대로에 터널하나 언덕하나 보이지 않고 시속 120km로 거침없이 내 달렸다. 특이 할만한 것은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변에 넓은띠의 버드나무가 여유로움을 더해 주었다. 또, 고속도로변 농장에는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밭과 포도밭이 눈이 모자라게 자라

1)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 취업지원센터장, 고성군 문화원 감사

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작물들을 어떻게 수확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왜냐하면 농촌들녘에서 현대화된 농자재 기기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길역은 그리 크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역이었다. 역사 바닥은 울퉁불퉁 보도블럭이 엉망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불평하나 하지 않고 잘도 다닌다.

중국은 영어로 차이나라고 부른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일까? 중국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한 시간이 늦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길시는 인구가 43만명으로서 30%가 조선족이라고 한다.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는 모든 가게(상가)의 상호들을 한글로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서 집이나 땅은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50년 단위로 받으며 내 땅이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어딜 찾아봐도 묘지를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그것도 반쪽인데 묘지로 잠식되는 땅이 해마다 여의도의 1.5배로 산지가 훼손되고 없어지는데 13억의 중국인들은 화장의 장묘문화가 정착되고 최근에도 티벳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토막을 내 높은산 꼭대기에 두어 까막까치와 뭇새들이 물고 가게 하는데 이것이 천당에 가는 것으로 믿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조국의 영산 백두산에 오른다는 감격에 모두들 들떠 있었다. 우리의 영토를 밟고 몇시간이면 볼 것을 먼 남의 나라 땅을 걸쳐 백두산을 탐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시리게 했다.

중국인 기사들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합차를 타고 70~80도의 고불꼬불한 경사도를 곡예시들처럼 백두산 80% 능선까지 이동하여 약 11.5km 오르면

백두산 천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자고로 백두산은 수려하고 신비한 전설로 관광자원의 천하명승지이다. 백두산 천지의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와 괴암괴석 잔잔한 비단결 같은 천지가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화가 아닐수 없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천만년의 백두산은 신선이 사는 산이요 또한 불암산이라고도 불려왔다.

백두산은 약 200만년 전 땅속의 고압기체가 지각을 뚫고 시뻘건 돌맹이들과 먼지를 휘날리며 뜨거운 암장이 꿈틀거리는 불용인 양 화산은 비탈을 활으며 산천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리라. 이로 인하여 괴암괴석들의 봉우리들이 생겼을 것이다.

백두산에는 수없이 산봉우리들이 솟아있지만 그중에서도 백운봉은 백두산의 주봉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유유히 감도는 구름사이로 못 봉우리들이 다투어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지만 유독 백운봉만은 신비하게 운무속에서 가물거린다.

백두산 천지에는 두 갈래 물줄기가 있는데 한 갈래는 하늘에서 내리고 한 갈래는 땅에서 솟는다 했다. 천수와 지수가 합류하여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3강의 발원지를 이룬다. 여기에서 발원된 물은 아슬아슬한 협곡을 꿰질러 굽이굽이 흘러 천리를 관류하면서 백두산의 젖줄인 양 관동의 대지를 적셔 준다.

백두산의 천지는 봉우리들 사이에 박혀있는 유달리 아름다운 한 조각의 옥거울과 같다. 백두산에는 수를 헤아릴수 없을 만치 많은 전설과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다.

한 전설에 의하면 천지는 원래 하늘에서 떨어진 옥거울이었다고 한다. 천궁서왕 마마의 두 딸이 이 옥거울로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비쳐보았는데 동생이 더 예뻐다고 한다. 이에 질투가 난 언니가 옥거울을 이 황만한 산에 던졌는데 후에 천지로 변해 버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또 하나의 전설은 백두산의 모녀(毛女)이야기이다. 정조(正祖)때 반체제(反體制)선비 신광하(申光河)라는 이가 있었는데 유람을 좋아하여 두만강을 역류하여 백두산에 올라 백두록(白頭錄)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두산 모녀 이야기가 나온다. 온 몸에 짐승처럼 털이 난 여인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모녀는 본디 함경도 경원(慶源)사람으로 흉년과 수탈을 견딜 수 없어 일가족이 두만강을 월경, 백두산속 대류동에 숨어 사는데, 폭설에 갇혀 일가족이 이산하여 나이 어린 딸 둘 만이 동굴에 살아 남았던 것이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두 소녀를 노루와 사슴 그리고 곰이 돕고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데 풀과 열매 살코기를 생식하자 온 몸에 털이나 옷을 입지 않아도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모녀가 옛기억을 더듬어 고향 마을을 찾아들자 괴물이 나타나다하여 외딴집에 가두고 밥만 넣어주니 익은 밥을 먹자 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날 산속으로 날 데려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갔다는 백두산의 모녀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백두산 천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깊은 화산호수인데 그 규모는 최대수심 384m, 둘레 14.4km, 동서 최대길이 3.6km, 저수량 19억 55백만㎥, 평균수심 213.3m, 수면 0.165㎢, 남북 최대길이 4.6km, 생성연대는 약 100만년으로서 해발 2,744m의 높은 산위에 자리 잡고 있다.

관광코스의 제일경으로 부르는 천지연폭포(중국에서는 장백폭포)는 그 높이가 68m(떨어지는 바닥길이 80m)로 천지주위 산봉우리를 사이에 두고 천수가 요란하게 소리치며 계곡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폭포의 자욱한 물안개는 계곡을 휘감으며 환상적인 비경을 연출하며 떨어져 제2의 송화강을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백두산은 명주실 같이 가늘다는 은실폭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폭포가 18개나 된다.

장백폭포 아래에서 흘러넘치는 뜨거운 온천물, 염기의 암석에는 울긋불

긋 수놓은 듯 금양색, 남색, 진홍색, 비취색 등 다양한 빛깔로 꽃을 연상케 하고 있다.

수온이 80℃에 달하는 백두온천물은 밥과 반찬을 덥힐 수가 있고 달걀도 익힐 수가 있다. 이 온천물은 지친 피로를 없애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것 외에도 온천물에는 여러가지 광물 화학원소들이 함유되어 있어 원기를 돋우고 갖가지 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 빠듯한 여행 스케줄로 백두산 온천물에 몸을 담가보지 못함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백두산에는 또 한 가지의 희한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물에 뜨는 돌, 물 밑에 가라 앉는 나무가 있다면 누구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엔 이런 나무와 돌이 있다. 이런 물 위에 뜨는 돌을 화산재부석 또는 수부석(水浮石)이라고 하는데 온 몸에 구멍이 숭숭 나고 구멍마다 공기가 차서 물 위에 뜰 수가 있다.

또 물에 가라 앉는 나무는 금강목 또는 수부목(水浮木)이라 하는데 나무가 단단하고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다.

백두산은 신비롭고도 풍요로와 약용가치가 있는 식물만도 800여 종이 나 되며 500여 종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희귀동물들이 사는 보고이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영산을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땅 영토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백두산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를 배경으로 찍은 필자.

일본의 공민관 제도와 문화 시설을 돌아보며

남 병 욱
(고성군문화원사무국장)

2005년 6월 26일부터 4박 5일 간 전국문화원 연합회 주최로 일본의 공민관 제도와 문화 활동 전반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오전 11시에 양양 공항에서 김해 공항으로, 다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나와 삼척, 양구, 정선,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이 처음부터 함께 했다. 선상에서 이홍재 교수의 「일본의 공민관 활동과 지역문화 정책」이란 강의를 들으며서 공민관 제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전국에서 모인 문화원 관계자들인 만큼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자기 고장의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바빴다. 큰 배였지만 배멀미를 하는지 약간 메스꺼워서 선내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벌써 여러 사람은 구토를 하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였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엘피지 저장탱크가 수십 개 이어진 것이었다. 이 저장탱크는 다른 항구에 가도 예외 없이 보이는 것이다. 바람을 이용한 풍차가 해변가에 늘어서 있는데 보기가 좋았다.

우리는 우선, 기구치시의 중앙 공민관을 견학하기로 했다. 기구치시 주민을 위해 실생활에 맞는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주민의 교양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곳 관장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관장 1명, 직원 4명, 지도원 2명, 사무원(임시직) 2명 등 총 9명의 직원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내 205명의 인원을 관장하고 있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축제일인 12월 28일부터 다음 해 1월 4일까지, 매월 첫째 일요일, 매 주 월요일의 야간에는 휴관한다.

공민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교육, 육아학급 운영, 어린이 요리교실, 토요일 체험교실, 어학 교육으로 중국어 강좌, 한국어 강좌가 있다. 그리고 PC 강좌, 10코스 교양 강좌 등이 있다. 특히, 고령자 대학은 1972년부터 시작했는데 회원 200명인 12클럽이 10개 분야(원예, 분재, 서예, 문예, 요리, 꽃꽂이, 춤, 합창, 펜글씨, 다이쇼코(일본식 거문고, 회화) 등을 매월 교양 강좌로 개최하며 시외 연수도 매년 2회 갖는다.

또한, 자주 사업으로 교양, 취미, 건강, 자원봉사 분야에서 동료를 만들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권행정 상담, 연금 상담, 수급자 설명회, 사업 설명회)을 도와주고 여러 기관의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선상에서의 공민관 제도에 강의, 기구치시 공민관장의 해설과 가이드의 설명 등을 들으면서 일본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또,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경청하고 이를 잘 해소해주고 있다는 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고향에 돌아가면 미약하지만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으로는 7세기 후반에 아마토 정권이 세운 산성인 기구치성을 탐방했다. 663년 백제를 도와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하자, 규슈 지역인 이곳에도 위험을 느껴 여러 성을 쌓았는데 특히, 기구치성은 이 성들에 식량이나 무기, 병사 등을 보급할 수 있는 지원 기지로 만들었다 한다. 구마모토 일대가 한 눈에 보이는 성으로 고대 건축물의 특징과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

놓고 있었다.

28일은 나미 소학교를 견학하였다. 일본의 전통춤 공연을 관람하고 실제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전화를 할 때의 자세나 언어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규칙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학교에서 당장이라도 도입해야할 제도라 생각했다. 자식들의 기를 죽이지 않고, 공부만 잘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생활 예의범절에 소홀한 나머지 수많은 패륜아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학생들이 몽당연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절약정신을 배우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내용은 잘 몰랐지만 열심히 전통춤을 공연하였고, 진정에서 우리나라오는 환영에 마음까지 상쾌해졌다.

일행은 다시 벳부로 향했다. 일본의 도로는 주로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는 시속 80km, 지방도로는 60km로 우리나라보다 주행 속도가 느지만 고속도로에서도 100km 이상 달리는 차를 거의 보지 못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보면 어느 곳이든 정해진 주차 시설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하나 같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들의 교통 문화가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

그리고, 도회지는 물론이고 시골 마을에 가든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교장,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가 될 수 있다면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이후, 여러 유명한 온천과 폭포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을 못내 아쉬워하며 시모노세키 항에서 다시 부관 웨리호에 몸을 실었다. 마지막 밤은 우리 한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현

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 밤이 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항의 뱃고동 소리를 뒤로 했는데 어느새 양양 공항에 도착했다. 5명의 일행이 헤어지기가 아쉬워 순두부로 점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역시 우리 맛이 최고다, 최고야!



▷일본 유노하나에서

아빠를 닮은 효녀가 되고싶어요

한은지
(아아진초교 6학년)

“애들아, 빨리 나와 어서 가자.”

오늘은 우리가족이 간성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입니다. 난 오늘 같은 날 집에서 혼자 TV도 내 마음대로 보고 컴퓨터 게임도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빠한테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여름을 재촉하는 나무와 풀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지.”

“어디예요?”

“아주 좋은 곳이야.”

“야! 신난다.”

하지만 아빠가 차를 세우신 곳은 산중에 쓸쓸하게 들어서 있는 허름한 옛날 집이었습니다.

“에이 시시해, 아빠, 이게 뭐가 좋은 곳이에요?”

“글쎄, 정말 시시한 곳일까? 이곳은 노상헌 효자각이야.”

“노상헌 효자각이요?”

“그래, 소재공 12대손 노상헌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행실이 바르고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여 부모에 극진한 효도는 물론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등 선비다운 행실과 선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런 노선비의

100여년전에 이 효자각을 만들었다고 하는구나.”

“100여년 전이라구요?”

“그래,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에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지?”

노상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도와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주경야독하여 산림처사로 썩긴 아까운 인물이어서 벼슬길에 나가도록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권고하였으나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한 그는 한 시도 부모님 곁을 떠난 일이 없었다는 구나. 왜냐하면 학문을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누구나 해야 할 일일 뿐, 벼슬을 위해 학문을 닦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구나. ”

“와, 진짜로 선비다운 선비였었나 봐요.”

“정말, 그렇지?”

아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노선비가 마흔이 넘은 해였다. 가뭄이 극심해 마을 앞 냇가는 먼지가 일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단다. 가뭄탓으로 농사는 흉작이었지. 곡간의 곡식은 금세 바닥이 났으므로 노선비는 늙은 부모님께 쌀밥을 드리기 위해 겨울동안 남의 머슴살이를 하였단다.

적지 않은 그 나이에 말이다. 그리고 봄눈이 녹을 즈음 노선비의 부친께서 갑자기 몸져누웠을 때 아버님의 수척한 얼굴을 더 이상 곁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노선비는 벽장문을 열고 논문서를 꺼내었지. 논을 팔아 약을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것을 본 그 아내가 만류하였으나 노선비는 ‘땅이야 돈을 벌어 다시 살 수 있어도 아버님의 생명은 천금을 주고도 다시 살 수 없지 않소.’ 라고 말하고 그 날부터 노씨 부부는 정성껏 약을 드린 후 정한수를 떠놓고 병환이 빨리 완쾌되길 빌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부친의 병환이 완쾌되자 마을뿐만이 아니라 온 고을이 노상헌 효자 이야

기로 떠들썩 하였단다. 그는 이렇듯 효심이 극진하였고 학문도 인격과 자아 완성을 위해서만 평생을 닦았으며 벼슬길에 미련도 없이 오직 자연에 묻혀 욕심없이 고고하게 학처럼 살다 간 선비 중 선비였단다.”

난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서 오기 싫어했던 내 마음을 아빠가 알아차린 것 같아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얼마 전 혈압이 높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간성에 계신 작은아버지 댁에 계셨는데 저희들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가셔서 작은엄마와 함께 목욕도 해 드리면 눈만 동그랗게 뜨시고 멍하니 바라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시던 할머니가 절뚝거리시긴 하지만 걸으실 수 있고 말씀도 하실 수 있는걸 생각하면 꿈만 같다고 아빠께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와 동생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와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신 할머니를 들어서 부축하고 들어가니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난 엄마를 도와 할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전과는 너무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돌아오자 아빠는 보일러의 기름을 확인하시고 집 안 여기저기를 돌보셨습니다.

내년부터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고집을 하셔도 꼭 함께 살자고 약속하시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효’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빠 같은 효자를 두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 속엔 아빠의 지극한 효심이 따뜻한 햇살이 되어 가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마세요. 저도 아빠만큼은 못해도 아빠를 닮은 효녀가 되고 싶어요.’

주1) 고성군문화원공모작품

주2) 향토예찬 경로효친선양 글짓기 최우수작품

너를 초청하고 싶어

임 예 진
(공현진초교6학년)

나래야! 안녕?

난 강원도 고성군에서 사는 예진이야. 잘 지내니? 난 아주 잘 지내! 오늘은 너에게 우리고장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단다. 우리 고장은 깨끗하고 맑은 바닷가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최고 자랑거리란다. 다른 데와는 달리 모두 자연산이어서 더욱 싱싱해서 맛도 좋다. 우리 동네 횃집에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모두들 아주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해. 보들보들한 속살을 살살 회를 떠서 먹는 건 그야말로 예술이래. 나 그냥 엄마가 찢어주시는 회를 가끔 먹어보는데, 맛이 아- 음- 아주 최고였어. 휴일이나 방학 때면 많은 외지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놀러 온단다. 이 곳은 바닷가 모두가 뛰어난 해수욕장이라네. 도시에 있는 사람이 만든 수영장은 이 곳 바다에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푸른 바다에 몸을 담그며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그 기분! 아마 넌 모를 거야. 정말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란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면 마치 갇혀 지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갑갑해져.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넌 아마 모를 거야. 난 자연에서 뛰놀며 하루하루가 즐겁단다. 나래야. 네가 우리 고장을 본다면 속이 탁 트이고 온갖 고민, 걱정들이 싹 날아갈 거야. 언제 와 봐. 언제나 환영이야^_^

우리 고장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고와서 모두들 친절할 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서로 정을 주고 받으면서 의좋게 지내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고장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는 고장이라서 그만큼 자연을 보호하는데도 힘쓰고 있어. 이런 곳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난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

나래야! 나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단지 자랑만 하는게 아니라, 장차 커서도 우리 고장을 아끼고 보호하는 훌륭한 어른이 될거야. 네가 이 곳에 와 보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지도 알게 될 거고 틀림없이 해맑은 미소를 짓게 될텐데... 솔직히 도시에 사는 나래 네가 부러울 때도 있어. 좋은 시설이 많고 편리할테니까. 그래도 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고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조금은 불편하고 시설도 그리 좋진 않지만 대신에 문을 열고 나서면 동서남북 어디나 숨쉬는 자연이 나를 감싸주고 있으니깐.

다음에는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제와 축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게.

이 편지를 쓰는 우리 교실 창문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가 보이고, 싱싱하게 자라는 학교 큰 나무들 그늘 밑에서 유치원, 1학년 동생들이 노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아.

올 여름에 너를 이 곳으로 초청하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오늘은 이만 쓸게. 안녕~~

강원도 고성에서 예진이가...

우리지역 문화 유적을찾아서

이 리 나
(고성중학교 2학년)

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달랐다면 달랐다.

늘 아침에 입던 교복을 뒤로한 채 나는 사복을 입고 늘 매던 가방 속 책들 대신 나는 도시락을 넣은 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제 가을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겨울이라는 녀석이 날 찾아와서일까?

아침부터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어찌나 지루하기 짝이 없게 들리던지 그 때만 해도 교감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뭘 어떡하라는지 그저 날씨 탓만 하며 판청만 피우기 급선무였다.

허나, 아침의 그런 판청들은 감춰 보려고 하는 것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면서 적고 읽고 혼자 분주한 척은 다 떨 정도였지만 그날은 많은걸 보고 알 수 있는 나만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관동8경 중 거의 대부분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가보니 그 느낌은 역시나 달랐다. 그날의 행선지를 살펴보자면 간성향교, 건봉사, 청간정, 왕곡마을 등이었다.

평소와 그날은 아마도 분명 다른 게 틀림없었다. 이쪽에 몇 년씩 살면서도 담 넘어 지붕밖에 볼 수 없었던 간성향교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나에게 찾아와 줬다 그곳에는 문이 3개나 있었고 매우 웅장한 느낌까지 전해졌다. 옛날사람들의 공부를 도맡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고 했다.

내부를 봐서인지 확실히 느낌도 달랐지만 생각도 달라졌는지 모른다.

그렇게 간성향교를 이어 건봉사에까지 가게 됐다. 기독교 신자여서였을까? 건봉사는 말만 들어봤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다. 그렇게 몇 년씩 이곳에 살아 왔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나 자신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적고 듣고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간 틈틈이 버스 안에서도 옛날이면 창밖 넘어 풍경감상이나 하고 있을 나였지만 이리 적고 저리 적고 어찌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렇게 조금씩 적어 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어린애처럼 조금씩 자랑할 때쯤 되면 그기분은 정말이지 약간의 스릴과 재미가 곁들여져 주면서 즐거웠다.

그렇게 해서 흘러흘러 왕곡마을까지 왔을 때엔 오봉교회라는 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매우 인자하시고 친절해 보이셨던 목사님께서서는 벌써 추운 날에만 더 돋보이는 김들이 모락모락 피어날 정도로 뜨거운 물을 끓여주시고 계셨다. 각자 도시락을 펴고 먹을 생각에 그저 좋기만 했던 나였다. 뜻밖에 선생님들께서 준비 하셨는지 모두에게 컵라면을 나누어주시고 계셨다. 아마도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주시고 싶은 마음이셨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뜨거운 라면국물과 차디차지만 환상의 꿀맛을 자랑하는 김밥과 점심을 해결한 뒤 목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지역 쪽의 가옥구조와 암기와나 수키와같이 기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처마나 지붕 등의 설명들도 들을 수 있었다.

송지호에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해안절벽 위에 한껏 뿔내며 있던 청간정까지 보고서야 그날의 하루는 저물어 갈 수 있었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솔직히 가보지 못한 곳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 나에게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그 추운 날씨에 설명해 주셨던 간성향교의 전교님이시나 건봉사의 스님, 또 왕곡마을에서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마음 한편에 감사하는 마음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곳 저곳 다니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고성에 대한 애심도 더 깊게 늘어난 것만 같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花津 八景(화진 8경)

윤용수
(간성향교 전교)

머리말

萬物의 영장인 인간의 高貴한 가치는 우리의 文化를 永久히 保存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文化遺産들이 사실이면서도 기록이 불확실하여 傳說이나 神話로 또는 구전 비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지나고 있으며, 듣고는 있으면서 自然環境과 生態界의 변화로 인한 옛 모습 그대로를 찾아볼 수 없고 알고 있는 形象도 훼손되고 복구되지 않아 보는 이의 가슴을 안타깝게 함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地域文化 發展의 원동력은 그 고장의 傳統과 文化유산을 찾아 가꾸는 한편 선인들의 거룩한 정신과 업적을 바르게 이어받아 현대에 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 하겠다. 지난 과거의 遺蹟을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조명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전통을 영위하였고 불멸의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상기할 때 오늘을 존재케 한 옛 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복원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한다. 그런 맥락에서 버려서는 안될 花津浦의 八景을 되새겨 유일무이한 우리고장의 수려하고 원대한 석호(潟湖)의 절경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 미력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花津八景의 立地的 景觀

花津浦는 호수 둘레 16km, 면적 72만여 평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나무 숲을 등지고 바람결에 나부끼는 갈대꽃(茅花)의 물결 속에 한 폭의 그림 처럼 어우러진 마을 풍광 개미(昆蟲)도 없는 주옥같은 모나스광질의 명사(鳴砂) 바다와 호수가 연계되어 사계절 변모하는 절경들은 꽃(花)속에 나루(津)와 개(浦) 글자 그대로의 花津浦이다. 八景이 由來된 中國 湖南省 洞庭湖의 瀟湘八景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八景임에는 틀림없다. 그러기에 방랑객 김삿갓(金笠)이 이곳을 지나면서 湖水周邊을 區間별로 相對적으로 照明하면서 이름지어 읊었던 八景을 차례대로 음미해 보기로 하자.



第一景: 月安楓林(월안풍림)

지금의 源塘 앞동산이 있는 곳 옛 지명이 달안(月安)이다 湖水에 평화롭게 비친 달빛의 수려함과 동산의 五色丹楓이 조화를 이루어 호수에 비치니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소박한 村老의 심금을 울릴만한 절경이었음에는 틀림없었으리라

第二景: 次洞炊煙(차동취연)

그 맞은편에 건너다 보이는 차굴(次洞: 花浦의 다음 마을의 소지명)의 늘어진 마을 지킴이 老松가지들 그 속으로 웅기종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북방식 한옥집들 집집마다 솟아오르는 밥짓는 굴뚝의 흰 연기 또한 일품이고 보면 월안의 풍림과 주고받는 일경이다



第三景：茅花亭閣(모화정각)

시골 아낙네들 봄날의 花煎놀이터, 소리쳐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민요 가락들 메아리쳐 퍼지니 잔잔한 호수를 설레게 한다는 곳. 무더운 여름 날 소치는 牧童들의 늘어진 낮잠 끝에 간간이 글소리도 들리는 곳, 가을에 갈 대꽃(茅花) 나부끼는 마장뿌리(馬場) 위의 亭子 마루에 걸터앉아 바라본 山과 들, 바다와 湖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보면 어느 선비인들 스쳐만 지날 수는 없었으리라

第四景：楓岩歸帆(풍암귀범)

돛단 배 단풍바위(楓岩)를 향해 돌아오는 一葉片舟의 한가로움은 한 幅의 그림에는 틀림없으리라. 이 楓岩은 장자 못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니 인색하고 미욕한 부자 시아버지와 인자하고 선량한 며느리의 逆境을 잘 묘사한 전설과 호수의 發源을 영원히 지켜볼 고청선황목이 준엄한 모습으로 호수를 지켜 내려다보고 있으니 호수 속에 가라앉아 잠든 화진이란 부잣집의 옛 담장이 물 맑고 잔잔한 날 楓岩 깊숙이 내려다보인다는 설화도 虛言은 아니리라.

第五景：長坪落雁(장평락안)

長坪이란 글자 그대로 긴 뜰이 호수를 에워 싸고 있다는 뜻으로 이 마을의 소지명이다. 새우, 빙어, 곤쟁이 등의 먹이사슬이 많아 기러기,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오리 등의 철새들이 철 따라 날아들어 한가로이 노닐며 흥 悲를 가릴 수 없이 울어대는 고요속의 音律은 새들만의 놀이터는 아닐지니

第六景：白沙海棠(백사해당)

송림의 老巨樹가 호수와 바다를 갈라놓은 鳴沙 白沙場에 붉은 빛 자태

를 뽑내는 海棠花, 무엇을 바라서도 아닐 진데 폭염 속에서도 곳곳이 용기 중기 군락을 이루어 백사장을 지키고 있으니 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으리라, 옆자리 加平臺에 무거운 몸을 던지고 두 다리 쪽 뻗으며 꽃 빛에 도취되어 사색에 잠겨 있노라면 어느새 꽃상여에 앉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곳은 外國人들의 휴양지로 옛부터 사용되어 왔고 한국 唯一의 별장지로 사용되어 오지 않았던가, 지금도 花津浦의 城으로, 해수욕장으로 명성이 자자함은 당연하리라.

第七景: 九龍治水(구룡치수)

花津浦의 물나들이에 雨天으로 增水되고 바다에 기상 악화로 波濤가 치면 바닷물과 호수의 상호작용의 순리로 서로 부딪히며 부서지는 물보라는 白沙場을 흰 물결로 뒤 엮는다

부처님(釋迦)이 탄생할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 기쁨을 나타냈다는 佛家の 傳信속에 용이 다스리는 물 모습에 비유했으리라.



第八景: 金龜弄波(금구농파)

거북이도 금거북이 따로 있었다던가, 얼마나 그 모양이 빛나고 아름다웠으면 금구로 표현했을까, 누구도 그 모양이 아니라고는 못하리라, 섬 안에 있는 성곽은 新羅 때 花郎이 水軍基地로 사용했다고도 하고 高句麗 廣開土大王陵 자리라고도 하는 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거북이 파도를 희롱한다 하였으니 파도치는 물결이 거북의 머리에 부딪혀 하늘 높이 치솟으면 나는 갈매기도 하늘로 물결 따라 치솟는 모습은 佳景 중에도 壯觀이니 보는 이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으리라.

맺는 말

花津八景은 특성화할 수 있는 文化遺産임에도 군부 통제지역으로 순조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었거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전란을 겪으면서 원형이 바뀌었거나 훼손되었고 또는 서구문명의 잠식으로 韓國的 文化遺産의 가치를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어 옛 모습대로의 八景을 感想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현실이다.

天惠的인 자원을 물려받은 우리는 옛 모습대로의 花津八景을 볼 수 있고 고성군의 명승 觀光資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鶴首苦待해 본다.

왕곡(旺谷) 전통 마을¹⁾

오봉리왕곡 마을은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서쪽으로는 구성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정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공현진리가 인접되어 있다. 조선시대 금성(錦城), 왕곡(旺谷), 적동(笛洞)으로 불려오다가 한일합방과 동시에 금성, 왕곡, 적동이 합하여 오봉리(五峰里)로 되었다.

마을 뒤편에는 오음산(五音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 올라 가면 주위에 있는 장현리(長峴里), 왕곡리(旺谷里), 적동리(笛洞里), 서성리(西城里), 탑동리(塔洞里) 등 6개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와 개짖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하여 오음산(五音山)이라 불렀다고 하며 오봉 1,2리를 중심으로 5개의 높은 산이 둘러져 있어 오봉리(五峰里)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지호 북쪽 오음산(260m) 남쪽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왕곡마을은 해변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지만 어촌보다는 깊은 산촌같다는 느낌이 더 짙다.

봉우리 다섯 개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기에 전쟁도 피해 갔다는 오봉리 왕곡마을은 1988년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전통 기와집 본채 28동, 부속채 7동, 초가 본채 9동, 부속채 32동, 스테트지붕 본채 11동, 부속채 62동, 기타 등 모두 161동이 양지바른 곳에 평화롭게 들어앉아 있다.

큰 부자가 없는 데도 기와집을 많이 지었던 것은 이웃한 구성리에 기와 굽는

1) 고성문화 편집 위원회

가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은지 100년이 넘는 기와집들은 모두 강원 북부 지방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방, 마루 그리고 부엌과 외양간이 한데 붙어 있는 집중식 구조인데 외양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부엌앞의 처마밑에 붙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되면 평면모양이 ㄱ자가 된다.

부엌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주거공간이 배치되는데, 겨울이 긴 추운 지방에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지은 양통집이다. 이곳 마을의 한옥을 잘 살펴 보면 집집마다 굴뚝위에 향아리가 얹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도 왜 향아리를 굴뚝 위에 얹는지 모르지만 단지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에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효자각이 2개나 세워졌을 정도로 효자마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한옥이 잘 보존돼 TV극 ‘배달의 기사’ 촬영장소로도 많이 애용됐다고 한다.

1988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이 곳은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동안 1820년에 세워졌다는 강릉함씨 4세 효자각이 고쳐졌고, 예술창작의 집도 들어섰다.

현재, 보수추진공사가 2003~2012년(10개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문화재 원형보존관리 - 퇴락가옥 정비(안채, 부속채, 담장보수), 초가 이영잇기
- ② 마을 공동시설 -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창고, 집단축사시설 등
- ③ 마을 기반시설 - 소화전 설치, 소화전 정비, 상수도 확장, 교량개 보수.
- ④ 관람객 편의시설
 - 보호구역내: 전시가옥 조성 등

- 보호구역밖 : 집단상가 조성, 안내시설, 공중 화장실 등 사업

2001년 1월 7일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되었으며,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의 한 분인 홍문박사 함부열(咸富悅)이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하여 일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은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후 오늘에 이르러 강원도 전통민가와 북방식 전통가옥의 원형이 고루 잘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크고, 옛 생활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가구는 48가구로서 인구는 119명(남61, 여58)이다.

양통집

한용마루 안에 앞뒤로 방을 꾸민 집을 말한다. 대개 함경도 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동해안 지방, 안동지역 등에 분포한다. 평면 구성은 방이 겹으로 배열되고, 외양간, 방앗간, 고방 등이 몸체 안에 붙여진다.

양통집은 크게 정주간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은 주로 강원도, 영동, 소백산맥의 산간지대에 분포하고,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함경도에 분포한다.

정주간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따뜻한 실내 공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주거 공간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집의 중앙에 위치한다.

보통 정주간을 중심으로 식사와 잠자리, 가족 모임 등 생활이 이루어 지는데, 남자 어른은 거처하지 않고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방이라는 특색이 있다.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 주최/주관기관 : 고성군/고성군문화원
- 최초 개최연도 : 1983년도
- 개최시기 : 매년 9월 22일~24일
- 축제성격 : 군민의 화합 및 민속행사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현재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은 옛날 수성군의 행정구역과 동일하다. 즉, 고구려~통일신라~고려~조선 Chri까지 수성군으로 불리어 오다가 중종 24년(서기 1529년) 간성군으로 개칭되었고 1919년 고성군으로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고장 향토문화의 전통은 수성군시대부터 그 맥을 이어온 것이다.

◆ 지역특성

고성군은 금강산관광지의 전초지역으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오고 가는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 농축산물, 해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고장으로 1983년부터 1시군 1문화축제로 고성군민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축제 행사 종목

제례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경축행사, 부대행사 등

명태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 주최 / 주관기관 : 고성군 / 명태축제위원회
- 최초 개최연도 : 1998년도
- 개최시기 : 매년 2월 24일~26일까지
- 축제성격 : 지역특산물 홍보



◆ 축제의 유래

국내 최고의 명태 어장을 가진 우리 군에서 명태의 맛과 군어(郡魚)로서의 자부심을 알리고자 개최하고 있다.

◆ 지역특성

명태축제는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 군의 향토문화 축제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온 군민의 협력과 성원속에서 금강산을 연계하여 하루속히 통일을 소망하는 염원을 담아 대내·외 널리 알리고 나아가 고성의 이미지를 전국속에 부각시킴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있다.

◆ 축제행사종목

식전행사, 개막식, 공연행사, 행양축제, 지역향토문화체험, 청소년축제, 장외행사, 명태노래자랑 등

고성군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 주최 / 주관기관 : 고성군
- 최초 개최연도 : 2004년도
- 개최시기 : 매년 11월 6일(10:00)~7일까지
- 축제성격 :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옥에서 안방과 외양간, 부엌 등의 옛 생활방식을 재현함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 돌담따라 떠나는 왕곡마을 이야기
- 함씨와 최씨의 깃땃싸움놀이, 상여외나무다리건너놀이, 절구체험
- 맷돌체험, 짚신만들기 체험, 뿔메치기 체험 등

◆ 지역의 특성

한옥전통 형태구조의 50동이 보존된 국가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인 왕곡마을의 전통 문화와 전통체험행사를 결합한 가족단위 참여 민속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왕곡마을을 중심으로 연중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관광민속체험단지이다.

◆ 축제행사종목

전통마당놀이체험, 동물몰이체험, 소달구지타기체험, 감자 / 고구마 구워먹기. 전통전 만들기, 왕곡주만들기, 한과만들기, 이영 및 곱세만들기 체험, 송지호 생태체험 등

소똥령 단풍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 주최 / 후원 : 간성읍 장신2리 / 고성군
- 최초 개최연도 : 2003년도
- 개최시기 : 매년 10월 16일
- 축제성격 : 소똥령 등산로 인도교 단풍축제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사업을 맞이하여 고성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홍보하고 발전적인 농촌관광 마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지역특성

고성군 간성읍 장신2리 진부령 첫 마을인데 매년 여름철에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농촌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축제행사종목

소똥령등반(인도교개통식, 소똥령보물찾기), 떡치기, 소달구지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버베기 및 탈곡체험 등

송지호 재첩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 후원 / 주관기관 : 고성군
송지호 내수면어업계
- 최초 개최연도 : 2004년도
- 개최시기 : 매년 7월 30일 ~ 8월 6일
- 축제성격 : 찾아온 피서객에게 재첩을 잡아 보게하고 즐기며 재첩국을 시음한다.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전국 제1의 석호(潟湖) 호수의 고장인 고성군 송지호에서 시범 사업으로 개최하는 여름철 재첩잡이 체험축제이다.

◆ 지역특성

- 피서객에게 즐길거리를 놓어가에게는 소득을 주는 행사로 추진한다.
- 찾아온 피서객이 직접 참여해보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체험형 축제를 통해 재첩도 고성군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홍보한다.

◆ 축제행사종목

전야행사, 개막행사, 호수축제, 놀이기기, 해녀(해남)잠수복 입어보기, 재첩, O.X문제 맞추기, 재첩국만들기, 바다사진, 재첩홍보전시회 등

해맞이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관내 각 어항)
- 주최 / 주관기관 : 통일전망대=문화원, 해당마을
- 최초 개최연도 : 2000년도
- 개최시기 : 매년 1월 1일
- 축제성격 : 통일기원 및 해맞이 새해소망 기원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 통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기도

◆ 지역특성

- 사계절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성군이 매년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자원 홍보와 고성군 군민의 대 화합과 대통합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고성군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삼아 사계절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군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한다.

◆ 축제행사종목

헬륨풍선, 폭죽, 초롱등, 난타공연 등

연어의 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북천, 명파천)
- 주최 / 주관기관 : 강원도민일보
연어사랑 시민모임
- 최초 개최연도 : 2000년도
- 개최시기 : 매년 4월 10일 ~ 11일까지
- 축제성격 : 연어 치어 방류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연어 연 50만마리를 방류하면서 연어의 꿈 잔치행사

◆ 지역특성

- 출생하면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3년~5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생태를 연구하고 및 치어를 방류한다.
- 연어축제관련 연계상품 개발 판매한다.
- 지역숙박, 먹거리, 볼거리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 축제행사종목

전야제행사(가수 이남이와 철가방 프로젝트 공연) 등

화진포 호수 마라톤 대회 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화진포)
- 주최 / 주관기관 : 생활체육협의회 / 고성군
- 최초 개최연도 : 2003년도
- 개최시기 : 매년 10월 17일(오전 10시 05분)
- 축제성격 : 화진포 하프 마라톤 대회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2003년부터 건강달리기를 전환하여 화진포 주위(이승만별장,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화진포 8경을 배경으로 관광객은 물론 남, 여 노소 참가하는 하프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푸짐한 상품도 마련돼 인기높은 행사임.

◆ 지역특성

- 사계절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성군 거진읍 소재 화진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하프마라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 고성군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삼아 사계절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군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한다.

◆ 축제행사종목

해양박물관을 출발하여 → 대진중, 고교앞 → 현내면사무소 앞 → 대진해안도로 → 초동항입구 → 화진포광장 → 화진포콘도입구 → 역사안전보전시관 → 화진포막국수 → 거진도시 계획도로 → 화진포막국수 → 화진포철길 → 화포(갯골) → 금강삼사 앞 → 역사안전보전시관 앞 → 화진포콘도입구 → 화진포광장(골안점)

양미리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 주최 / 주관기관 : 토성면 봉포리
- 최초 개최연도 : 2005년도
- 개최시기 : 12월 3일
- 축제성격 : 청정 봉포 앞바다의 환경을 근거로 테마를 도출 차별성 확보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각종 수산물의 소비적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 지역특성

- 청정봉포 동해 앞바다의 양미리 조업 및 어민들의 과거사를 돌아보고 양미리의 내력과 소비적 측면에서 인식변화를 유도한다.
-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독특한 테마로 차별화된 다양한 행사를 구성하여 우리고장의 축제의 명물로 개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 축제행사종목

풍어제, 품바공연 및 노래자랑, 갈매기 먹이주기, 양미리 구워먹기 등

피망축제

- 지역명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
- 주최 / 후원 : 고성군 간성읍 홀리마을 / 고성군
- 최초 개최연도 : 2004년도
- 개최시기 : 매년 9월 17일~
- 축제성격 : 전국 제일의 청정피망의 우수성홍보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피망 재배농가(작목반), 마을주민, 관내외 관련기관 단체 등의 단합과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으로 생산의욕 향상

◆ 지역특성

고성군 간성읍 홀리마을은 알프스 스키장으로 유명하나 마을은 우리나라의 최고 고랭지로서 농특산물 전시장 관람은 물론 농특산진열외 다양한 특산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축제행사종목

피망요리준비, 축하시루떡절단, 요리경연장 시식회 누가누가 잘하나(피망높이쌓기), 피망먹고 힘쓰기, 피망이고달리기, 피망계주, 족구, 주민화합한마당 등

一生의 정기 건강검진

김 종 태
(한림의원원장 전문의)

정기 건강검진은 그 비용 및 효과면에서 개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될 것이 추천되고 있으며 일생을 생활양식의 변화와 건강의 요구에 따라 10개의 뚜렷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건강목표와 시행할 건강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1.청년기(18~24세)

1)기간중 1회 병원방문실시(대학입학, 군입대, 취업시 실시 가능)

- 완전한 이학적 신체검사
- 정기예방접종(Tetanus 등)
- 결핵, 성병 검사
- Cholesterol 측정
- 혈압 측정
- 시력 검사

2)건강교육실시

- 영양, 운동, 학업 등
- 직업상의 위험
- 성교육, 피임
- 결혼 및 가족관계

- 음주, 흡연 등

3)매년 정기치과 검사

2.청장년기(25~39세)

1)기간중 정기병원방문(30세:1차, 35세:2차)

- 완전한 이학적 신체검사
- 혈압 측정
- 혈색소 측정
- Cholesterol 측정
- 피부, 목, 구강 검사
- 결핵 검사

2)매년 부인과 진찰 및 pap smear 실시, 매년 유방검사

3)건강교육실시

영양, 운동, 흡연, 음주, 결혼 및 자녀교육 등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강화

4)매년 정기치과검사

3.중년기(40~59세)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각종 만성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암 등)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여성에서는 폐경기의 적응을 대비하기 시작할 시기이다.

1)정기병원방문(40, 45, 50세) 완전한 이학적 신체검사 및 병력청취, 각종 만성 질환에 대한 검사 실시(완전한 정기검진 실시)

- 예방접종 실시
- 영양, 운동, 직업, 성생활, 결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 기호품(흡연, 음주, 커피 등)에 대한 상담

- 기타 약물중독에 관한 상담
- 2) 각종 암에 대한 조기진단 실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 3) 55세 이상은 매년 혈압, 체중 등을 측정
- 4) 은퇴에 대한 상담
- 5) 갱년기장애 등 상담

4. 초로기(69세~74세)

- 1) 매 2년마다 정기 병원 방문
 -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
 - 은퇴에 대한 상담
 -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상담
 - 영양, 가족관계, 운동 등에 관한 상담
- 2) 최소 매년 병원 방문
 - 완전한 신체검사 및 병력청취 영양, 운동, 활동, 주거환경에 대한 상담
- 3) 매년 influenza 예방접종 실시
- 4) 매년 정기치과검사
- 5) 가족관계 및 사후에 대한 대비상담

위의 각 시기에 걸쳐서 추천되는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항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연령, 성별 및 개인의 질병의 위험상태에 따라서 의사와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관리방법은 환자와 가족의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병원을 찾을 때나 접촉이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건강관리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이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적절할 것이다.

내 치아는 내가 지킨다.

김 국 배
(간성 바른치과의원 원장)

충치로 치수까지 구멍이 뚫렸을 경우

충치가 마지막 요새인 상아질을 뚫고 치수까지 번졌을 경우, 치수를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치수란 기관은 순환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세균에 감염되면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기 쉽다. 그러므로, 예전의 치과 의사들은 ‘더 이상 치수를 남기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을 내린 후 즉시 신경을 뽑아 없애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신경을 보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치과 의사들 사이에 치수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치수의 일부분에만 염증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엔 치수를 보존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염증 부위의 치수에 직접 약을 사용하여 살균한 후 회복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복수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이러한 치료에 사용되는 좋은 약이 개발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봉쇄하는데 사용하는 재료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수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다시 세균에 감염된다면 치료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한 다음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 그 때 순순히 치수를 포기하고 제거하려는 의식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드문 치료 방법이긴 하나, 회복할 기미가 없는 부분만 제거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치수는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취하는 경우가 많다.

2)치수 대부분에 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이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치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발수(拔髓)라 하는데, 치수 치료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한 때는 의치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멸절한 치수를 무턱대고 제거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닌 한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

치수를 제거한 후 생긴 공동(空洞)은 무균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 봉쇄한다. 이러한 상태의 치아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로 낙엽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 아무리 열심히 이러한 치아에 수복치료를 시도한들 그 결과는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치수를 제거하는 일] 만 큼은 피하려 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성의 8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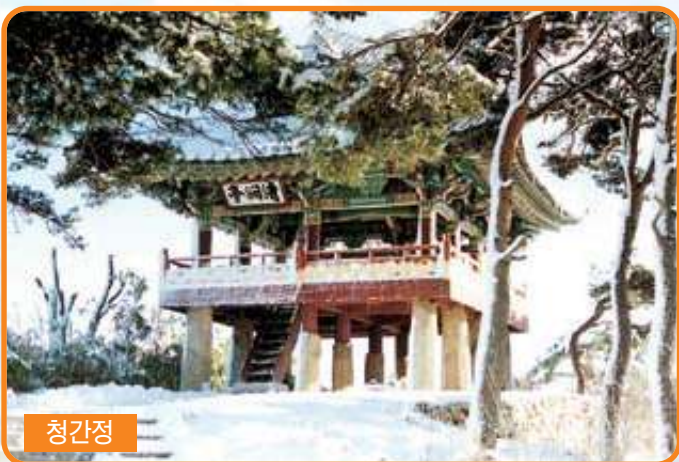




송지호



청학정



청간정



통일전망대



마봉산설경



울산바위

고성의 8味

여행은 설렘과 즐거운 기대이다. 여행지에서의 맛있는 식사는 더욱 큰 즐거움이다. 그 고장에 가면 그곳의 음식을 먹어봐야 여행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고성의 향토음식들이 다 모였다. 파도소리 바닷바람과 함께 고성이가 자랑하는 최고의 맛! 고성8미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또 고성에는 고성8미 외에도 버섯전골, 산채정식, 감자부침과 송편 등의 산채요리와 각종 모듬 생선회, 명태불고기 등의 생선요리, 메밀음식이 유명하다.

자연산 물회



어부들이 밤새 술을 푼 속을 달래려고 새벽 출어를 나가기 전에 요기삼아 먹던 음식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자연산 가자미, 오징어, 해삼 등에 각종 야채와 초고추장이 어우러져서 담백하고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한다.

명태지리국



고성군의 대표어종인 명태로 요리하여 비리지 않고 시원담백하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저지방 음식이다. 지리란 양념을 거의 안 넣고 마늘과 소금만으로 끓인 것을 말한다.



도치두루치기

도치두루치기는 겨울철 별미 중의 하나로 잘 익은 김장김치를 넣고 끓이면 얼큰하고 개운한데, 소주 안주와 매운탕 거리로 먹으면 그만이다. 심통이라고도 불리는 도치는 일반생선과는 달리 살이 연하고 뼈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



토종흑돼지

토종돼지고기는 지방이 적고 다른 영양소가 많아 담백하고, 고소하며 쫄깃쫄깃하다. 다른 육류에 비하여 단백질, 비타민 B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인, 칼륨, 철분, 메치오닌성분도 많다.



털게찜

푸른 동해바다에서 볼 수 있는 털게는 표면에 털이 보송보송 나 있으며 혀에서 느껴지는 하얀 속살의 담백한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정도로 맛있다. 밥 한술을 떠서 등껍데기에 넣고 내장과 함께 비벼먹는 맛도 일품이다.



고성막국수

고성특유의 동치미로 육수맛을 내서 개운한 고성막국수는 얼음이 뚱뚱 떠 있고 굵직한 무가 먹음직스러운 동치미를 떠서 국수에 부어 먹는데 그 맛이 담백하다. 구수하고 진한 맛을 보고 싶다면 편육을 시켜 막국수와 함께 즐기면 된다.



도루묵찌개

겨울철 별미로 알이 꽉 찬 도루묵찌개를 맛보다 보면 입안에서 살짝 터지는 알의 쫄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도루묵알은 전자파등에 좋다는 이유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또한 도루묵은 비늘 없는 생선이라 고단백이지만 아주 담백한 맛이 난다.



추어탕

청정고성의 깨끗하고 힘이 넘치는 미꾸라지를 갈아 고추장에 끓인 추어탕은 예부터 전통보신식품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훌륭한 스테미너 음식이다. 다른 동물성 식품에서는 보기 드문 비타민A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에는 신선한 회와 산채요리, 명태요리, 매운탕 등 맛깔난 음식이 고성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고성군문화원 연혁

년 월 일	연 혁 내 용
1983. 10. 01	고성군청 별관 1층 임대 사무실 설치
1984. 01. 06	고성군 문화원 설립허가(490호) 대표자: 함병철(원장) 문화공보부장관(초대) 이사: 함병철, 이백규, 김경명, 이귀립, 이복수, 최달규, 함정균. 함형운(8명) 감사: 김성호, 전정인(2명)
1984. 01. 06	사무국장: 함형운 임명
1985. 03. 01	고성군청 별관 2층 증축으로 사무실 이전
1985. 11. 20	고성군 문화원 착공
1986. 12. 31	고성군문화의집 준공
1987. 01. 05	고성군문화의집 1층으로 사무실 이전
1988. 01. 06	문화원장: 함병철 유임
1988. 12. 20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2. 06. 22	함희조 원장 취임(1996.6.21까지)
1994. 07. 05	부원장: 이병찬, 심규섭(2인) 취임
1994. 08. 09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인 고성군문화원 설립인가
1996. 06. 28	임원 취임 승인→원장: 함희조, 부원장: 권오진, 이병찬 유임이사: 이성식 유임이사(신임) 김대현, 윤용수, 권오훈, 김영 태, 김성호, 조정현(임기2000. 6. 24까지)
1996. 09. 09	문화학교 지정

년 월 일	연 혁 내 용
1996. 12. 31	시범문화원 지정 시설 확충(강당 및 문화사랑방 방송시설 및 교구확보)
1997. 12. 20	영상음악감상실 개설
1998. 05. 29	금호현악사중주 초청 콘서트
1998. 06. 20	문화원장 함희조 사임, 권오진 부원장 직무대리 발령
1998. 07. 12	함희조 원장 사임
1998. 07. 13	이병찬 원장 취임(7.20 이취임식) 2000. 6. 19까지
2002. 01. 01	사무국장 남병욱 임명(고성군문화원 공개 채용)
2002. 03. 02	간사 최윤정 임명
2003. 11. 22	문화원 사무실 보수공사 및 모빌렉 설치 공사
2004. 04. 01	고성군문화원 정관 변경(제14조(임기) 제2항)
2005. 06. 29	제7대 황연인 문화원장 취임
2005. 07. 14	고성군문화원 법인등기 설립(대표이사: 황연인 이사: 14명) 문화원 이사: 황연인, 한창수, 전계찬, 임연식, 남기윤, 전영주, 문창하, 이성식, 이창원, 권오진, 최재인, 최용일, 송정석, 김광재, 김철수 감사: 박덕조, 최선희(17명) 고문: 이병찬, 윤용수(2명)

고성군 문화원 임원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고 문	이 병 찬	고성군 죽왕면 오호 179-10	632-3897 011-9950-3897
고 문	윤 용 수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4	682-1285 017-378-3418
원 장	황 연 인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111 삼익A105-903	681-2414 016-687-2412
부 원 장	한 창 수	고성군 거진읍 거진 8리 304	681-4467 011-9872-4461
감 사	박 덕 조	고성군 간성읍 상리 489-2	681-2955 010-3064-2955
감 사	최 선 호	고성군 간성읍 하2리 17-2	681-5659 011-426-4659
이 사	전 계 찬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46-16	682-7766
이 사	임 연 식	고성군 간성읍 신안 1리	681-2067 016-351-5990
이 사	남 기 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8 동해A 106호	681-3559 016-9240-3833
이 사	전 영 주	고성군 간성읍 상리 458	681-2265 011-661-2265
이 사	문 창 하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1-11	681-3232 011-9796-3213
이 사	이 성 식	고성군 거진읍 거진 304-7	682-2460 011-360-2460
이 사	이 창 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238-28	682-2126 011-325-9059
이 사	권 오 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134	682-1743 017-371-1743
이 사	최 재 인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15-6	682-0306 019-9027-0306
이 사	최 용 일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83 1/1	632-0248 016-296-0249
이 사	송 정 석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624 1/3	631-6269 011-9798-4291
이 사	김 광 재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122	632-1518 011-9058-1511
이 사	김 철 수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429	636-1452 019-636-1451

고성군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며 지역문화 교류, 사회교육 등 군민의 문화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귀하를 고성군 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문화원이 하는 일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문화원의 회원이 되시면

1. 정기 간행물인 “고성문화”와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2.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비디오, CD등)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회원자격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화원 회원이 되는 자격 및 참여방법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셔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회원자격 : 고성군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성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자
2. 회 비 : 년회비 20,000원(신입회원 50,000원 별도)
3. 납입계좌 : 농협 247-01-305242 (예금주: 고성문화원)
4. 문의전화 : TEL) 681-2922 FAX) 681-2928

高城文化

創刊號(2005年)

印刷日 : 2005. 12. 20.

發行日 : 2005. 12. 20.

發行人 : 黃鍊仁(高城郡文化院長)

編輯人 : 김용경, 최선희, 김춘만, 이선국, 남병욱

文化院 電話 : 033)681-2922

팩스 : 033)681-2928

印刷 : 대성문화출판사

電話 : 033)651-4354

<非賣品>

이冊은 高城郡費 支援으로 發行되었음.

